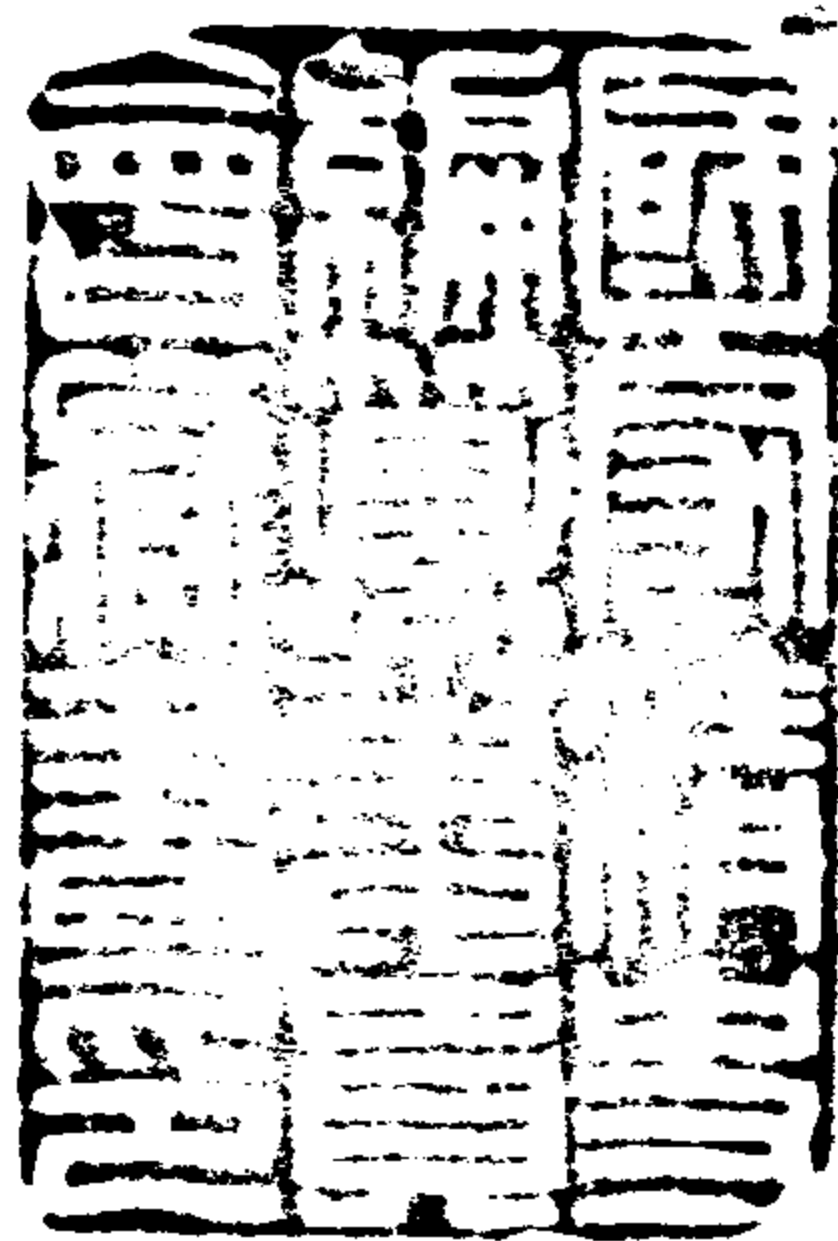


008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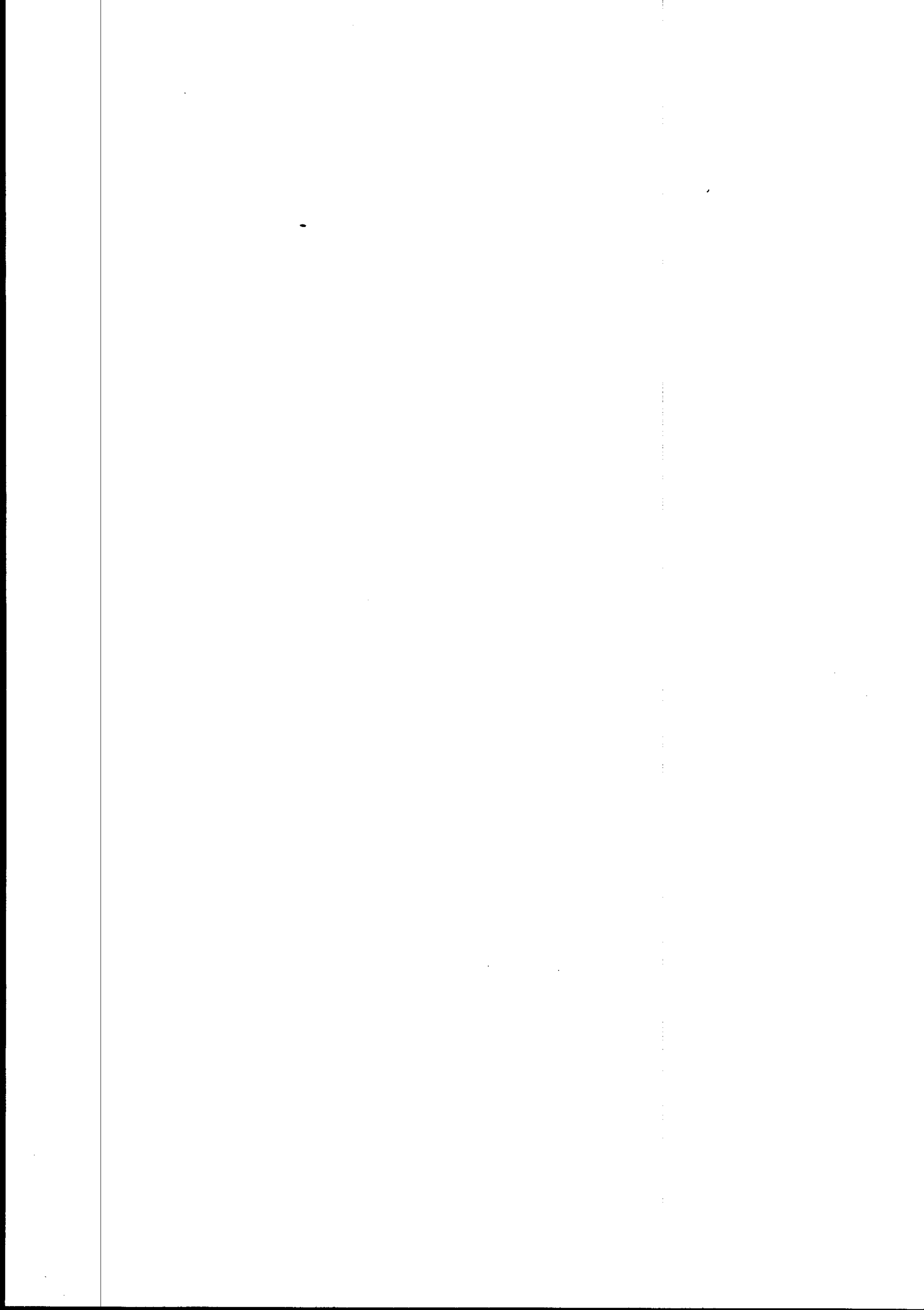
林基中編

燕行錄全集

96



東國大學校出版部



燕行錄은 韓國의 외교사절들이 明나라와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았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記錄遺産이다.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기록은 朝天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고,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것은 燕行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다. 그래서 흔히들 朝天錄과 燕行錄이란 用語를 그렇게 辨別하여 使用하려고 하는 傾向도 있다. 그러나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記錄에도 燕行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어서 이 책의 이름을 『燕行錄全集』이라 붙였다고 들었다. 따라서 이 책은 韓國人이 元과 明과 淸朝에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은 中國使行錄全集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가령 王朝의 記錄도 이 全集의 수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中國使行錄은 中國人의 使行錄으로 誤認될 素地도 있어서 燕行錄이란 이름이 無難할 것으로 여겨진다.

燕行錄은 高麗末부터 朝鮮末까지 五百餘年 동안 韓國人들이 外交的인 通路로 中國에 나가서 보고들은 見聞과 先進文物에 대한 體驗들을 自由롭고 創意性 있게 記錄한 것이다. 여기에는 韓國과 東亞細亞, 東亞細亞와 世界外 交의 力學關係, 公式 非公式의 國際貿易과 經濟的 狀況, 多様な 文化交流와 尖端 學術交流 등 아주 多樣하고 많은 情報의 양이 生생한 모습으로 알알이 박혀 있다. 따라서 東亞細亞 어느 分野의 研究에서도 參考하지 않을 수 없는 尙大한 記錄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 全集의 編者인 林基中 教授는 우리 대학 國語國文學科에서 梁柱東 教授님의 指導로 鄉歌를 研究한 分이다. 이 분은 母校의 教授로 있으면서 이미 몇 가지 學界가 注目할만한 일을 해낸 바 있다. 우리 대학의 支援으로 中國 北京大學에 專家教授로 가서 實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저 있었던 廣開土王碑 原石拓本 4種을 찾아내어, 그 碑文을 새롭게 읽어냄으로써 一百餘年 동안의 昏迷를 거듭해온 東亞細亞 學界에 새로운 研究地平을 열었으며, 얼마

전에는 韓國의 歌辭文學原典을 모두 모아 『歷代歌辭文學全集』 全 50卷을 펴낸 바 있다. 이 作業은 우리 대학과 韓國政府의 支援을 받아 韓國歌辭文學 註釋研究로 계속 進行되고 있어 머지 않아 學界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의 『燕行錄全集』은 國內外에 散漫하게 흩어져 있어 그 全貌나 實體把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資料들을 林教授께서 30年 가까이 執拗하게 蒐集하여, 이를 整理해낸 東亞細亞關係史料의 한 集大成이다. 이 全集은 그 編輯期間만해도 一年六個月이나 所要된 巨帙이다. 이것을 우리 대학이 開校 百周年을 앞에 두고, 全 100卷의 全集으로 出版하여 東亞細亞 學界에 내놓게 된 것은 참으로 榮光된 일이며, 東國學統의 底力을 새삼스럽게 確認할 수 있는 快舉가 아닐 수 없다. 이 全集에 漏落된 것은 林教授께서 私費出版으로도라도 續編을 펴내 마무리할 意志를 가지고 準備를 繼續하고 있으므로 不遠 그 뜻이 成就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現在 世界는 人文學의 危機라는 또 다른 도전에 直面해 있다. 이런 狀況論理 속에서 韓國人文學이 世界的인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그 튼실한 土臺 마련을 하면서 새롭게 出發할 必要가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그러한 側面에서도 世界學界에 여러 모로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면서, 여러 經濟的인 負擔을 무릅쓰고 韓國과 東亞細亞 學界를 위해서 이 全集을 세상에 내놓기로 勇斷을 내린 것이다. 아무쪼록 이 全集이 韓國은 물론이고 東亞細亞와 世界學界에 크게 寄與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2001年 8月 10日

東國大學校總長 宋錫球

人文學은 探究의 對象이 自由롭고 廣範하다. 人文學은 知識을 삶의 直接的 手段으로 應用하려는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과는 달리 知識이 그런 實用性에서 無限히 自由로 워질 수 있게 하려는 學問이다. 人文學은 豊富한 對象을 통해서 생각하기, 말하기, 글 쓰기, 行動하기를 重視하는 學問이다. 생각하기의 靈感性과 多樣性, 말하기와 글 쓰기의 體系性,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行動하기는 삶의 質을 높이고 人間 社會를 圓滑히 돌아가게 하는 原動力이 된다. 따라서 人文學은 人間의 삶을 支撐하는 土臺라는 側面에서 볼 때 恒常 基礎學問이라는 本質的 屬性을 가지고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韓國 人文學의 土臺가 되기에 充分한 資料의 하나이다.

燕行錄은 朝鮮王朝 5百年 동안 韓國과 中國 사이의 交涉關係를 自由롭게 記錄한 우리 民族의 記錄遺産이며, 당시 韓國과 東亞細亞 韓國과 世界 여러 나라와의 交流에 關한 가장 彪大한 記錄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文學과 哲學, 文化와 歷史, 外交와 交易, 學問과 批評 등에 關한 실로 廣範하고 多樣한 記錄의 寶庫이다.

나는 한글보다 漢文을 먼저 배운 世代이다. 내가 처음 文字를 接한 것은 한글이 아니라 漢字였다. 내가 할아버님께 推句를 배울 무렵에 나는 할아버님께 유충렬전을 읽어 드렸다. 推句는 謹嚴한 音聲으로 統制되었으나 유충렬전은 재미있는 想像의 날개를 달아 주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점점 繼續되는 中國文化의 餘震 속에 彷徨하면서 正작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混亂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 내가 韓國文學을 專攻하게 된 것은 中國學이 아닌 韓國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韓國人의 생각을 韓國式의 글자와 韓國式의 글 쓰기 方式으로 쓴 文學은 西紀 42年頃の 龜旨歌라는 노래가 처음이다. 그 뒤에 漢字를 빌어서 鄉札이라는 韓國式 글자로 쓴 鄉歌文學이 나타나며, 이어서 우리 글자로 쓴 한글문학이 나타나 오늘에 이르렀다. 다

른 한편으로는 紀元前 17年 韓國人의 생각을 中國式의 漢字와 中國式의 글 쓰기 方法으로 쓴 黃鳥歌라는 作品이 있다. 이러한 傳統을 잇는 文學이 三國과 高麗를 거쳐서 朝鮮王朝 末까지 韓國人의 생각하기와 글 쓰기 方式의 主流를 形成하여 왔다. 이와 같은 韓國文學의 두 갈래의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갈래 모두 中國文化와 軋 수 없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韓國文學의 中國影響 問題를 綿密하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韓國文學의 獨創性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韓·中文學의 影響의 授受關係를 살펴보고 하였다. 文獻記錄을 根據로 論據를 提示할 수 있는 影響의 通路를 찾다보니 燕行錄이라는 큰 鑛脈이 發見된 것이다. 그래서 燕行錄을 調査하기 始作한 것이 1970年代 中반이다. 틈틈이 燕行錄을 調査하여 目錄을 만들고 資料를 모으는 일을 1978年 말까지 繼續하였다. 그 結果 豫想 밖으로 그 量이 尢大하고 몇 년 안에 다 찾아내서 整理할 수 있는 作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아낸 資料마다 대체로 前人未踏의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읽는 時間 또한 몇 년 안으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恩師님 몇 분께서 學位論文을 提出하지 않고 燕行錄의 世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 強力하게 方向轉換을 要請하였다. 燕行錄으로 韓·中文學의 影響 授受關係를 밝혀 學位論文으로 提出하려던 꿈을 不可避 점을 수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처음 構想하였던 順序를 바꾸어 鄉歌研究로 學位論文을 쓰고, 燕行錄研究는 다음 차례의 研究課題로 삼기로 하였다. 未練을 버리지 못하고 그 후 繼續 資料를 蒐集하여 오던 터에 1980年代 母校의 부름을 받고 研究室을 東國大學校로 옮기게 되었다. 木覓山이 바라보이는 研究室에 들어가던 첫날 나는 三希堂이라는 堂號를 만 들어 걸었다. 大學時節부터 構想하였던 세 가지 學問의 바람을 이루어 보려고 發願을 담아서 걸어본 것이다. 세 가지의 發願이란 첫째 새로운 方法의 鄉歌 研究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鄉歌의 正確한 現代語譯, 둘째 歌辭文學의 原典全集 編纂과 그 註釋全集 出刊과 그 研究, 셋째 燕行錄 原典全集 編纂과 重要한 燕行錄의 翻譯全集 出刊과 그 研究였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成就된 것이 별로 없다. 첫째 것은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와 『우리 의 옛 노래』로 출간되었고, 둘째 것은 『歷代歌辭文學全集』으로 出刊된 바 있으며 進行中인 歌辭註釋作業이 그것

이다. 그 중 燕行錄의 研究는 평 대신 답으로 끝날 공산이 가장 커서 이 全集이라도 서둘러 펴내 學界에 多少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出版을 決心하였다. 그 동안 枝葉的으로 接近하여 보았던 『燕行歌辭原典 研究』와 『燕行錄研究』는 校訂 중에 있으므로 早晚間 出刊 될 것이다.

燕行錄은 大略 5百餘種이 存在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내가 確認한 것은 400餘種이다. 앞으로 繼續하여 追跡調査를 해볼 計劃이다. 그 중 380餘種을 모으는데 걸린 時間과 努力, 經濟的인 負擔과 발품의 苦痛은 後日譚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몇 년 전에 民族文化推進會에 韓國文集의 影印本 出版을 提案한 일이 있다. 그때 國庫로 影印本을 出版한다고 하여 學界에 否定的인 見解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作業이 韓國 人文學界에 얼마나 많은 寄與를 하고 있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燕行錄全集』도 이번 出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障壁들이 隨時로 이 일의 推進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 고비 고비마다 성균관대학에서 출간한 『燕行錄選集』 두 권과 民族文化推進會에서 翻譯 出刊한 『國譯 燕行錄選集』 몇 권이 많은 慰勞를 하여주었다. 그리고 中國과 日本에서 이 全集의 出版이 궁금하여 일부러 찾아와 激勵하여 准 學者들과 國內의 뜻 있는 學者 몇 분의 激勵가 큰 慰勞가 되었다. 특히 韓國의 高柄翊 교수, 李佑成 교수의 指導助言과 黃元九 교수, 朴泰根 교수의 激勵가 많은 힘이 되었다. 中國 北京大學의 樂黛雲 교수, 浙江大學의 金健人 교수, 日本 京都大學의 夫馬進 교수의 激勵도 큰 힘이 되었다. 나와 이분들의 생각은 이번에 出版하는 『燕行錄全集』이 15世紀부터 20世紀까지 東亞細亞의 一級史料라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있었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政治·經濟·外交·學術·文化에 관한 가장 自由로운 記錄이며 가장 彪大한 記錄遺産이다. 그리고 燕行錄의 擔當階層은 東亞細亞를 이끌어간 最上層部에 속하는 特殊集團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뿐 아니라 世界에 하나밖에 없는 特殊한 類型的 記錄遺産이다.

이 책이 東國大學校 出版部에서 나오게 된 데는 特別한 因緣이 있다. 1999年 가을 中國 北京大學에서 文學·史學·哲學 分野 韓·中學術 세미나가 있었다.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께서 첫날 主題發表를 하고 이어서

이들 간 두 나라學者들의 個別發表가 있었다. 宋總長께서는 異例的으로 다른 日程을 뒤로 돌리고 開會式에서부터 閉會式 때까지 이 세미나에 參與하였다. 그 때 내 發表는 19世紀 燕行錄에 關한 것이었다. 發表가 끝나자 中國側의 여러 學者들이 이 問題에 많은 關心을 보였다. 中國 여러 地域의 몇 大學에서 燕行錄에 關心을 가진 研究者들이 資料 때문에 여러 번 韓國訪問을 하였으며, 그 때마다 東國大學校의 어느 教授가 『燕行錄全集』을 編纂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出刊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進行되어 가고 있는지는 質問이 쏟아져 나왔다. 質疑應答을 통해서 確한 出版事情을 들은 宋總長께서 韓國과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해서 東國大學校가 『燕行錄全集』 出版하는 問題를 積極 檢討하여 보겠다는 趣旨의 말씀을 하였다. 그 다음날 宋總長께서 歸國할 때 金浦空港에 迎接 나온 東國大學校 關係者들에게 곧바로 『燕行錄全集』 出版檢討를 指示함으로써 여러 차례 번거로운 節次를 거쳐 이번 出刊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全五十卷의 全集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옛날 複寫하여 編輯해 두었던 資料들이 狀態가 좋지 않고 編輯 또한 問題가 있어서 再作業을 하는 한편 資料를 補完하다 보니 全五十卷으로 消化할 分量을 훨씬 超過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처음 編輯이 한 쪽 한 면으로 된 것이어서 한 쪽을 네 면으로 編輯하여 全五十卷으로 줄일 形便도 못 되었다. 一次 複寫한 原稿를 確認節次를 거친 다음에 다시 크기를 一定하게 複寫하고, 그것을 오려 臺紙에 붙여서 쪽 차례를 確認하고, 燕行時期를 찾아 그것을 燕行의 時期別로 整理·配列하고, 燕行錄 作者의 出生年代를 찾아 그것을 다시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配列하여 全一百卷으로 分冊한 뒤 卷別로 쪽을 매겨서 印刷所에 넘기는, 아주 지루한 作業을 하였다. 이름 잡아 總 7萬餘張을 複寫하였으므로 重複된 資料를 골라내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編輯期間이 1年 3個月이나 걸렸으며 編輯 마무리 段階의 몇 달간은 編輯空間이 좁아서 講義室 크기의 房을 別途로 마련하여 編輯作業을 進行하였다. 이 全集의 차례를 처음에는 燕行年代順으로 配列하려고 모든 燕行錄의 作者와 燕行年代를 確認하였다. 그렇게 配列을 하여 살펴본 結果 한 作者가 여러 차례 燕行을 한 경우 한 곳에 모여 있던 作品들이 여러 곳으로 散漫하게 흩어지는 問題가 發生하였다. 이 問題를 克服하려고 한 것이 이 全集에서 택한 燕行錄 作者가 태어난 時代順 配列方法이다.

이 『燕行錄全集』은 單純하지 않은 編纂作業을 한 사람이 單獨으로 遂行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특히 많았으며, 이로 인한 得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資料가 하나밖에 없는 行草書로 된 筆寫本 古書이거나 이런저런 資料들 속에 깊숙이 끼어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 모은 것들이어서 冊 體制의 均齊性이나 印刷의 鮮明性에 多少 滿足치 못한 部分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흠어져 가려지고, 헤쳐 消滅되어 가는 東亞細亞의 貴重한 文獻資料 燕行錄을 이렇게 한곳에 모아 책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에 관한 그 어떠한 作業도 圓滿하게 遂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全集 刊行의 가장 큰 意味이다. 이제 이 全集으로 現代活字화가 可能하고 翻譯과 註釋 作業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번에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作品들은 續集으로 補完하여 마무리 할 豫定이다. 續集의 마무리 段階에서 解題集을 別冊으로 出版할 豫定이다.

이 全集을 펴내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님의 東亞細亞 學界를 위한 出版決斷에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貴重한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명지학원 兪榮九 理事長님, 연세대 黃元九 名譽教授님, 차영성씨, 이현공과 成長慶 宗會長님, 동국대학교 鄭用吉 企劃人事處長님, 尹鐘燮 辯護士님과 일일이 舉名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여러 關係機關에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일년 넘게 編輯室에서 默言으로 苦痛을 같이한 용지인쇄주식회사 金章燮 전무님의 勞苦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感謝에 앞서 그분께 먼저 慰勞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東國大學校 出版部 家族들도 어려운 일을 맡아서 進行하느라고 勞苦가 많았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은 感謝를 드린다.

2001년 7월 20일

東峰涼月之室에서

林基中 씀

一 일러두기

- 이 全集의 이름에 쓰인 燕行錄이라는 表現은 朝天錄類、燕行錄類、瀋陽日記類、漂海錄類를 모두 總括하는 用語로 쓴 것이다.
- 이 全集에 수록한 燕行錄은 寫本과 刊本、單行本과 文集本、國內本과 國外本을 蒐集하여 體系的으로 整理한 것이다.
- 이 全集에 수록한 몇 種類의 燕行錄은 研究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重要 異本을 같이 수록하였다.
- 이 全集에는 이 分野 研究에 꼭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몇 種類의 燕行路程記、燕行別章帖、燕行地圖를 수록하였다.
- 이 全集에 수록한 燕行詩、赴燕詩 등은 一定한 體系를 갖추고 있어서 이 分野 研究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만 選別하여 수록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은 原典의 狀態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나 原典을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不得已 現代活字로 바꾸어서 수록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 配列은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하였으며、出生年代가 未詳일 때는 燕行年代順으로 하고、들 다 未詳일 때는 맨 뒤로 配列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 配列順序를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한 까닭은 燕行錄을 作者別로 한 곳에 모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이 全集의 別冊 目錄集에는 作者出生年度順 目錄、燕行年代順 目錄、燕行錄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作者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을 別途로 作成하여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配慮하였다.
-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國內本과 國外本은 곧 이어서 燕行錄全集 續集으로 續刊할 豫定이다.
- 이 全集의 編輯이 마무리 될 때까지 編者가 入手하지 못한 燕行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하여 續

集에는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아래 資料의 所藏者들께서는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를 懇曲하게 付託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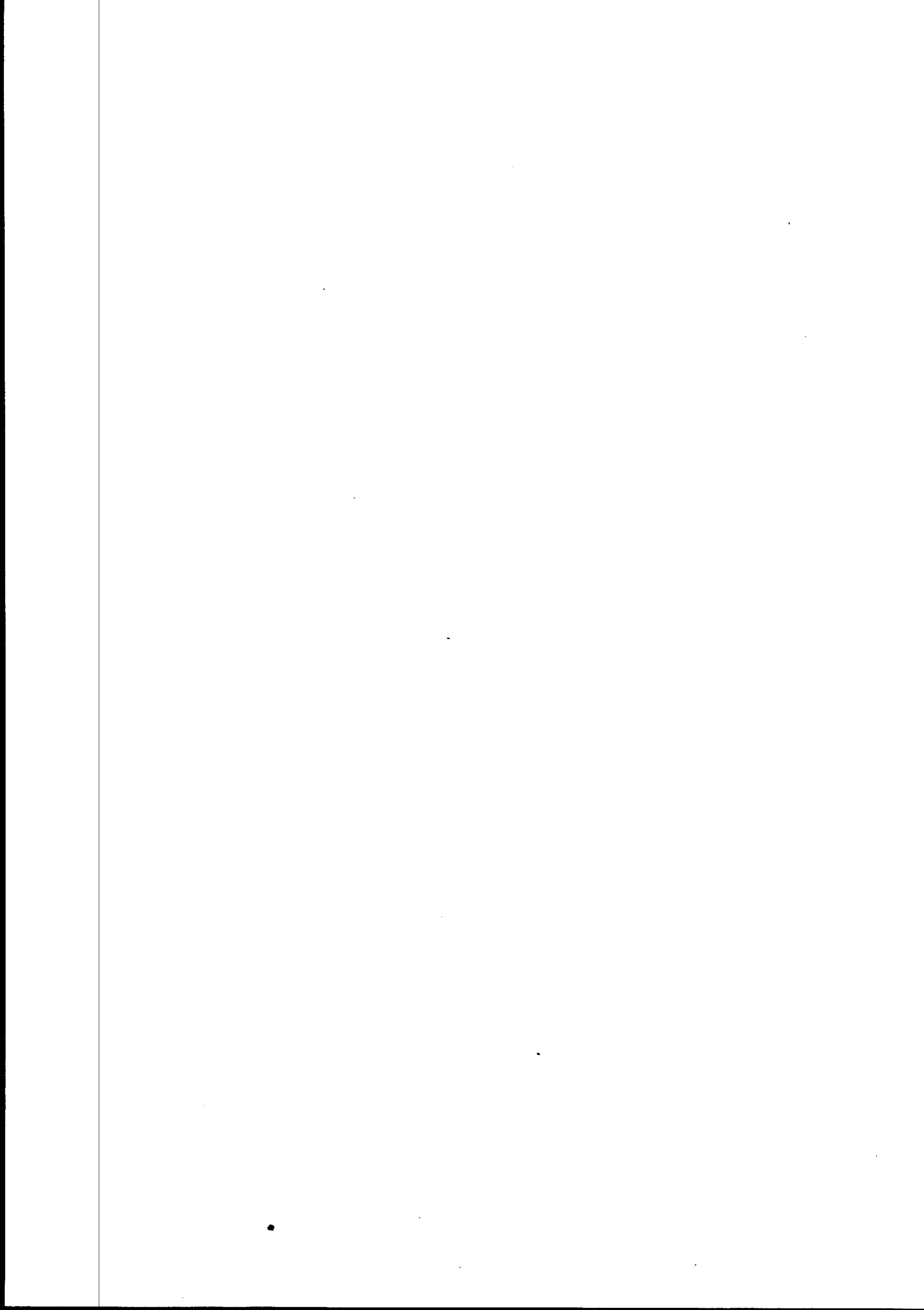
(주)락차 : 02-543-5415° 02-2260-3146° FAX 02-543-5485° 02-2263-7093° e-mail: limkz@dongguk.edu

- 갑인연행록(甲寅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10雍正12甲寅 1734
- 경오연행록(庚午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26乾隆15庚午 1750
- 경오유연일록(鏡泊遊燕日錄), 임백연(任百淵, 1802-1866), 경오유연일록(鏡泊遊燕日錄) 2册, 憲宗2道光16丙申 1836
-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미상(조선말),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1책?
- 북연기행(北燕紀行), 이노춘(李魯春, 1752?), 북연기행(北燕紀行) 한글본, 正祖7乾隆48癸卯 1783
- 북원록(北轅錄), 이상봉(李商鳳?), 북원록(北轅錄) 5册?
- 북유만록(北遊漫錄), 이호민(李好敏, 1762?), 간산북유록(簡山北遊錄), 純祖21道光26辛巳 1821
- 북행일기(北行日記), 나덕헌(羅德憲, 1573-1640), 장암집(莊巖集), 卷2, 仁祖14崇德1丙子 1636
- 사양재외집사옹록(四養齋外集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사양재외집사옹록(四養齋外集桑蓬錄) 6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사옹록(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사옹록(桑蓬錄) 2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록(隨槎錄), 한필교(韓弼敎, 1807-1878), 수사록(隨槎錄) 3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한필(隨槎閑筆), 권복인(權復仁, 純祖때), 수사한필(隨槎閑筆) 1册, 純祖22道光2壬午 1822
- 슈로도천록, 미상(??), 슈로도천록 사본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남이웅(南以雄, 1575-1648),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1册, 仁祖4天啓6丙寅 1626
- 심행록(瀟行錄), 윤홍금(尹弘禽, 1641-?), 심행록(瀟行錄) 1册, 肅宗24康熙37戊寅 1698
- 연사록(燕槎錄), 정원용(鄭元容, 1783-1873), 연사록(燕槎錄) 1册, 純祖31道光11辛卯 1831
- 연사수록(燕槎隨錄), 이삼은(李三隱, ?-?), 연사수록(燕槎隨錄) 1册(卷3-4)?

- 연사일기(燕棧日記), 정희영(鄭羲永, 哲宗 때), 연사일기(燕棧日記) 1册, 哲宗14同治2癸亥 1863
- 연사필기(燕棧筆記), 정○○(鄭○○, 朝鮮, 東亞大), 연사필기(燕棧筆記) 2册
- 연행록(燕行錄), 김노경(金魯敬, 1766-1840), 연행록(燕行錄), 16册, 純祖22道光2壬午 1822
- 연행록(燕行錄), 이정운(李鼎運, 1743-?), 연행록(燕行錄) 1册, 正祖8乾隆49甲辰 1784
- 조천록(朝天錄),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저헌유고(樗軒遺稿), 世祖5天順3己卯 1459
- 연행시(燕行詩), 조석명(趙錫命, 1674-1753), 묵소집(墨沼集) 卷1, 景宗2康熙61壬寅 1722
- 연행일기(燕行日記), 박제인(朴齊寅, 哲宗 때), 연행일기(燕行日記) 3册, 哲宗11咸豐1庚申 1860
- 연행일록(燕行日錄), 미상(??), 연행일록(燕行日錄) 1册, 純祖31道光11辛卯 1831
- 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孝宗8順治14丁酉 1657
- 연행잡기(燕行雜記),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연행잡기(燕行雜記) 2册, 英祖42乾隆31丙戌 1766
- 연행일록, 미상(??), 연행록(燕行錄) 1册
- 일암연기(一庵燕記), 이기지(李器之, 1690-1722), 일암연기(一庵燕記) 5册, 肅宗46康熙59庚子 1720
- 정유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卷3, 孝宗8順治14丁酉 1657
- 조천일기(朝天日記), 최기(崔沂, 1553-1616), 조천일기(朝天日記) 1册, 宣祖40萬曆35丁未 1607
- 조천행록(朝天行錄), 황진(黃進, 1542-1606), 서담집(西潭集), 宣祖20萬曆15丁亥 1587
- 조천록(朝天錄),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죽천유고(竹泉遺稿)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천행록,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천행록, 坤,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지정연기(芝汀燕記), 원재명(元在明, 1763-1817), 지정연기(芝汀燕記) 1册, 純祖4嘉慶9甲子 1804
-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이건명(李健命, 1663-1722),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1册, 肅宗24康熙37戊寅 1698
- 해사조천일록(海槎朝天日錄), 오윤겸(吳允謙, 1559-1636), 추탄유집(楸灘遺集), 光海14天啓2壬戌 1622(9, 37)

차례

연원일록(燕轅日錄)	四·五·六)	미상(未詳?)	96	111
연중문견(燕中聞見)	미상(未詳?)	96	127
연행록(燕行錄)	仁·義·禮·智·信)	미상(未詳?)	96	137





奎
481
9

96

1
—
—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圖書番號 7580
	一部冊數 6
	內別番號 4
서울대학교	

燕轅日錄卷之四

三月十三日晴和

皇上明日卯刻升中和殿看奏書畢因回駕

慈寧宮進書行禮現換毡冠絨領錦袍衣

十四日晴和

皇上明日辰刻升太和殿閱視冊寶畢至慈

寧宮行禮

十五日晴和

皇上寅刻升太和殿頒詔受賀。早報詣正陽門外關廟觀音廟燒香仍出雍雉城東門外至朝

陽閣卽關廟也在東城根下濠堦之內正殿是重樓而扁曰慈航普渡僧數人居之安聖帝塑像左右配位樓上安四十九手觀音全像樓閣壯麗制度精巧開窓而出欄頭則俯視城外極目軒豁前有一閣與慈航普渡相對而扁曰金甲赫巍正門內安一位金甲神手持金槍向正殿而立亦是極精極巧完如生活矣仍回身出廟門外行不幾步至龍王廟外門上橫書重修古蹟龍王禪林八字內扁曰慈雲甘露正殿安龍王塑像左右龕內亦安神像俱是全身極為壯麗殿之左廂有一

淨所老僧居之但徒穿一人而已看了一回已了
館裡喫飯訖又步出門外行至一處榭榭朱門半
掩門內有閣齊整遂入而仰瞻則亦一闕廟也扁
曰乾坤正氣右曰神靈默佑左曰威靈默佑照曰
東燭雖懷義只為心中有漢華容非報德皆因眼
底無曹殿中安聖像冕冠黃袍左右安一配位
遂焚香而退行未幾許路北又有一廟門上橫刻
泰山行宮門內左右有鍾鼓二樓庭除軒豁正殿
前門堅閉亦無扁額循殿東而北至後庭上亦
為寬濶殿之後門扁曰天仙照鑑殿內榻上南向

而安聖母碧霞元君金像七寶粧嚴左右配仙童
玉女各捧儀仗位置齊整棟宇穹崇金碧照輝丹
牘曜日因焚香而退至二重之殿向南扁曰乾坤
正氣內扁曰至大至剛殿內安關帝塑像袞冕
金容遂焚香叩頭而退周看了一回兒出廟外
行不上里許至一廟此是南藥王廟也外門扁曰
勅建藥王廟士女雲集各樣貨物羅列於廟門之
內乃是一場市也向南茅一殿扁曰普濟宮內扁
曰誠求必應又曰揚靈尺五殿內安尊像左右配
神列立極其壯麗此是藥王殿也後又一殿宏傑

奇麗金碧丹雘粲若錦繡幡幢寶蓋鮮然旖旎寶榻上奉安王皇上帝袞冕金身七寶粧嚴仙童仙女東西侍衛諸仙左右羅列威儀森嚴榻後左邊北壁下龕內安闕聖金像袞冕玉圭扁曰神威顯應右邊北壁下有二龕內各安金像不知是誰也而扁於高樑之上曰帝德先天又曰赤日丹心因焚香叩頭了幾回兒出了殿後又至一殿殿內安天仙聖母催生娘口左龕安三元君痘疹娘口王奶口又至一殿覆以黃琉璃瓦極穹隆奇怪難狀殿內安三尊金像前有數丈長的位牌正

中書天皇氏左邊位牌書地皇氏神農氏右邊位
牌書人皇氏黃帝軒轅氏急忙叩頭而退至左壁
下但五面位牌而茅一歧伯茅二雷公華院扁鵲
等五位之牌右壁下卓上亦安張仲景李東垣五
位二牌二上各書姓諱共是十大明醫榻後左右
北壁下小龕各安金神正殿外扁曰冕服開天殿
內左扁曰誠求依庇右扁曰惠濟無疆左廡扁曰
宣豫導蘇左曰永佑無疆右曰普濟羣生右廡扁
曰有求必應左曰惠我無疆右曰如同再造因叅
拜了一回着玩了一回少訖于樓下椅上適有一

兒貌甚清秀而能解文字問其姓名年記則答云
姓趙名德鈺年十四遂一面如舊相隨不捨處
指導告示明白又以數鍾香茶慇懃款接此是管
廟的門內之兒然以其十四小兒一見外國之人
而如此周旋者誠極可賞矣余執其手連稱厚意
因以數丸清心元為謝德鈺忙舉手當膏點了幾
個頭余再三囑以後會遂相別而出廟門行未里
許至一寺外門上橫書勅賜天慶禪寺因入寺門
至正殿口內穹崇丹青照輝榻上安關帝塑像
金面袞冕威儀森嚴榻前安配神二位左右安四

天王高可數丈，雄偉傑烈，令人心膽自寒，遂叩頭了榻前，退往後殿。則殿內扁曰：光明洞徹。外扁則為烟薰所煤，不能看出。榻上安三位佛，榻前安一尺許金佛，於銅榻之上。榻形圓長，上下乍殺如缸，而高四尺許。周匝榻身而安，母指大的小銅佛共七百十五像，皆跏趺而坐，佛體呈露於空，如活活的一般。雖是連榻渾鑄，然其精妙奇工，不可思議也。因辭了主僧，還出寺門。行未里許，路左有一院，院門雖闕而棟宇齊整，足可一玩矣。扁曰：金臺書院。甃石為臺，而階砌為五六級。臺下左邊有一角

門兩扇半開遂緩步而入庭除軒敞重有一門而與外門相對扁曰風化攸興其門左連綴有一堂堂內頓無位置但左壁上扁曰榜眼右壁上扁曰探花仍穿後門而入又有一堂俱是三楹左右各有一座廊廡整備極楚管院前導入其堂而坐於椅上四下一看則主壁上扁曰廣育郡才以四書為題細書其文於幃上掛於左右壁者為十二幅此是多士取試之堂也因周玩了一回兒出了院門行未幾步而路左有三門頗齊整扁曰古刹普賢禪林遂入門則門內寬濶而有一座殿閣扁

曰普渡蒼生循殿之左而入一小角門則對面又
有一閣左廡是學堂右廡是僧居有一猛犬咆哮
而跑至前如將噬之狀余立而不動徐呼主僧則
有一個少尼自右廡掀揭了門簾子而出啐的一
聲其犬再不做聲而退少尼遂進前合掌問訊顏
甚清秀舉止閑雅余亦合掌回禮少尼問道來此
做甚余曰將燒香叩頭而來少尼初頗冷落矣聞
燒香叩頭四字遂欣然開了殿門曰前來口口余
舉手而補費心口口仍入殿內榻上安普賢菩薩
金像粧嚴七寶左右諸神侍立威儀森嚴余向前

叩了四個頭兒繞榻周視則棟宇之宏傑窓櫺之
雕竒可謂窮極矣因出了殿門至重堂扁曰德配
天地榻上安一位尊神金碧渝暗龕門緊閉而已
仍回轉來至左廡開門入觀則年可八九或十歲
或十一二三的數十小兒開卷於案上踞坐於小
凳之上凝神讀之見我進去但一舉目而再不轉
睛其規矩可知也有一生年可四旬之外而靜坐
于椅上開孟子離婁之篇於桌上又將幾本書卷
于其傍情緻蕭洒矣余忙舉手問訊其人亦舉
手點頭還禮余怕其害耳旋辭旋出少尼在門外

因送至重門之外余舉手連稱不送。少尼然
哂曰幾有不送之理余以清心元重謝其厚意因
辭出三門之外行不上幾許又到一寺之前門上
扁曰古剎鐵山寺門內當中有一小龕扁曰推那
扶正龕門向內扁則向外一個小銅爐亦在外面
遂轉身從傍而進回首而看則龕中安一位神像
而亦向內面而立是所可訝也前殿扁曰博濟藝
生安金佛後殿扁曰灑力宏施安四十九手大金
佛左廡扁曰祖堂。內當中有一坐二丈長的圓
塔形如胡蘆之狀塔後桌上安大師位牌七面各

書其師之號祖堂之稱良有以也右廡扁曰禪堂
堂後一廡曰方丈乃僧會處也前殿之前面西南
隅以鐵鏈係一犬而鏈之末係于柱客至其犬猛
吠躍出而不能肆其毒者乃有鐵鏈故也不爾則
必慣噬來人矣其狠惡可知也因回轉身來由正
陽門大路而暮回館裏

十六日晴和

皇上明日用膳辦事台見後至南海

十七日晴和

崇文門呈進黃花魚

十八日晴而風

十九日乍陽乍陰而大風

食後詣隆福寺觀玩而回

二十日載陰載陽而大風刮地

二十一日晴而大風

禮部奏覆試日期 旨著於二十七日

二十二日乍陰乍陽而大風

皇上明日用鐔辦事召見後至奉先殿壽皇殿行
禮畢還宮更衣後出順貞門神武門西安門阜成
門至頤和園龍王廟等處拈香畢仍由舊路至南

海

二十三日晴而薰蒸

皇上明日用膳辦事召見後出福華門西安門阜成門至龍王廟等處拈香畢仍由舊路至南海

二十四日晴而薰蒸

二十五日昨同夜亦薰蒸而陰如大雨將至之狀
二十六日晴而大風

日候和暢無薰蒸之氣頓無雨澤之意開春以後雖有數次小雨一直杲早當此穀雨之後三農未免嗷口矣
天津般便見家書

二十七日大風刮地塵霾漲天日色昏濛矣

二十八日晴而風大起

二十九日昨同迫暮風止至三更候狂風大作至曉
少訖

打磨廠關廟記

廟在正陽門外橋東打磨廠內不甚壯麗正殿三楹扁曰萬世人極左右懸白視不見聽不聞神如在
在上裁者培傾者覆德可配天殿內安關帝金像左右四配位又有一殿扁曰純陽寶殿內扁曰元嗣梯航又曰慈光普照榻上安金像乃是孚佑

帝君也左右亦安侍衛仙衆廟宇雖不宏傑其精工巧侈不讓於他矣

三十日載陰載陽大風自早至申巳後始止

皇上卯初升中和殿看版旨著于四月十五

日在保和殿考試二差人負欽此上諭庶吉

士散館著于四月十八日在保和殿考試欽此

四月初一日既明雨下少頃止乍陽乍陰午後細雨

又乍飛

皇上寅刻詣太廟親行夏享大祭禮畢還宮

初二日晴和

朝食後出正陽門外由大路至天壇之北金魚池
不是清流乃汚池也池水深碧而濁如我國之芹
菴而其定界分區又如我朝禾菴其一區之池為
一斗落二斗落者至四五十區其中所養者皆金
魚而其水混濁不能看其游泳其掌管的家前列
着大水盆五六十坐皆盛水而其水亦濁盆中魚
或紅或黃或黑或黃黑相駁者不一其色但其形
可怪兩眼暴露上臉突起不似魚頭恰如鯖鯉之
頭大如蛙鼃之頭而尾則三叉而平鋪水面項邊
之起腰腹之起亦皆平鋪游泳於水中雖細亡看

未真個是一件怪東西也其大小魚之形多般是一樣而最異者黑色之魚也其黃者則金光粲然閃爍於水裡其最長者不過數寸紅者黑者稍長於金色者而長亦不過四寸許問其稍長紅色魚之價則答云五十兩銀子余不覺失笑拍手呵呵而言曰何謊話之如是狠多也其人又答云真個的話非謊話也余歎曰物亦怪異而人亦怪異也因周視了幾區池面不由舊路而轉由便路而行至一木器之鋪床榻椅凳文匣卓案等具或漆或花梨紅木之類而其製樣之精巧非以口舌言也

傍有十四五歲兒四人共刻十餘尺長的一大板木其氣頗香咀其木屑則其味辛香問其名則云樟木也其木如我國濟州厚朴之木色如古竹而乍淺且其性似鬆而且韌真美材也余點頭暗嗟曰兩廣閩浙之間只知有豫樟之木而不知其為何物也今日而後始目擊矣

初三日乍陽乍陰

初四日雨自丑正細雨始下連曉蕭々而下午後乍

訖乍來夜陰

初五日早少陽而陰

皇上明日卯初升中和殿看版畢還宮巳初
出乾清門景運門進熙和門出午門大清門正陽
門進天壇門入齋宮

初六日晴和至暮而陰夜亦陰

皇上巳初出宮余詣天成局觀光而回

皇上明日寅正上祭禮成後還齋宮更衣用膳畢
出壇門進正陽門大清門午門出熙和門西華門
進西苑門還南海

初七日晴和平朝皇上還宮

初八日早晴至午而陰未刻大風刮地塵埃漲天

午刻出館裡至大清門外四街向西行少許折而
北循宮牆西根而行度西安門一直向北而行轉
灣抹角至護國寺北距德勝門為數里南距玉河
關為七八里有三虹門極其雄壯俱關鎖門之東
數十步有一角門向南而開車馬駢闐男女挨擠
遂入門內乃一塊隙地又有一重三門庭除宏濶
四面幾至半箭之餘乃一所場墟也各樣貨物件
俱足茶果糕餅之肆左右櫛比周玩了一回由
重門西挾而入有一座殿閣極為宏傑殿前月台
高可一丈廣可數十餘步長亦如之庭除亦廣濶

與重門之外殆同東西翼閣廊廡連亘於後庭中
有一香爐高可丈餘其市肆之羅列亦如之而再
無緞綢矣殿前臺基上有一隊戲子設幔而唱歌
調衆女子簇擁着戲子各踞小橈而坐或粉白黛
綠綺羅綾錦者或淡掃蛾眉不施脂粉者或有頭
插七寶奇花者或有插野花者迨至五六十人而
無一字半句聚首相與之語但櫻唇脣_レ星眼齊
_レ而已毫無鄙野輕薄之態俱有沉默優如之色
舉皆豐盈粹美眼彩澄_レ如秋水之暎日真個是
一班花朵矣殿後又有一殿而月臺下左右各有

兩簷八面碑閣巍然特立臺上先景臺下布設亦如前殿凡如是者五重比於隆福寺殆為偉焉而但可惜者殿宇荒涼卅碧剝落且無僧居欲焚香參拜而不得焉因周玩了一回兒但見得女娘三
一五
一或買緞綢首飾簪朶者或買團扇器玩繡鞋者或買香茶菰子糕餅之屬坐於市撓之上坦然而喫者來
一往
一烘
一熱
一若
一錯觀則同伴幾乎相失矣又於筭二重殿庭除之東左廡之前圍匝了幾重人其中有吆喝之聲因往見則有兩人俱兩袒露體持五尺長的小桿三枝戟輪轉舞

美已得奇巧難狀衆人齊聲喝采余亦讚歎不已
因周視則只有男子而女子則雖孩提之童絕無
一人矣日已向晡而狂風忽大作掀天刮地日色
為之昏暗余恐雨下急忙出寺門催車而回雖下
了門簾子坐在裡面又著眼鏡而不能開眼僅還

館裏

初九日晴而風

初十日晴和

食後往普渡寺已在東安門內西南上高阜處西
北距景山不遠由東安門內城根向南而行渡橋

沿河而南數百步折而西。而北又折而西。始至寺門口。是三設而無扁額。門內廣濶四面各為七八十步。庭中安大銅爐。下有石臺。長為丈餘。左右松杉成行。清陰娑娑。一座丁字兒殿。閣巍然特立。覆以綠琉璃。又以黃瓦覆於屋脊。殿前月臺。以至石雕就。高可七八尺。由階級而上。廣可四五十步。長則亦如。而如凹字形。以其殿製如丁字。故也。扁曰慈濟殿。內北壁上扁曰覺海慈航。主壁榻上安天地人三皇黃金塑像。榻高幾至丈餘。其下一層榻上安一尊金佛。左右各安一配位神像。榻前

排列普無數的剪錦奇花製作精巧可愛左邊北壁下安四位金佛左右羅列熊帑豕羊鷲鶴禽獸之狀右邊北壁榻上安一尊金像其右又安稍小四位金像前列各樣假花亦皆奇巧門內左邊有三簷塔口上安無數小塔口下環立着十位神像皆以肩挑擔着塔根塔在神肩上浮于空中其精微奇巧可知矣遂叩頭四拜于榻前因着玩了一遍出了殿門循月臺而至殿後石砌之上俯視北牆之外則雖大廈崇屋其屋脊與殿後地平相等西北而望盡樓飛甍掩映於綠陰之間彩瓦金殿

玲瓏於斜陽之外真個是燕都之勝區帝王之別院自古盛稱景山者是也思欲一覽而路由慈甯宮故不得前去良可歎也仍佇立愴望回至殿前見東西各有一字長垣自南亘北各有四個角門兒門內各有正堂偏屋乃是僧居也由東階而下見一個角門半掩半開因信步而入面牆之內又有角門而兩個小犬兒跑出亂咆自裡面出了一個少年來年可十八九而貌甚閑雅因啐了一口犬兒也再不做聲其少年舉手向我問訊余亦舉手回禮了遂入裡面庭除列着幾盆石榴蘭蕙

麥門冬等草花頗為清奇因隨了少年入堂中自
西邊炕裡走出一個蒙古僧來年可六旬以外而
身著晃黃夾袖長袍頭戴表黃裡紅的笠兒與我
國鐵笠或相同而色異焉足穿粉底皂靴其裝
束不像個緇流慢的合掌問訊余亦回禮問其
姓名則曰吐克吉乃是蒙古僧來宦於朝而住持
此寺者也其少年即主僧之孫也因進香茶飲畢
少憩于椅上出清心元數九謝了其慇懃他亦稱
費心云云余再三舉手稱謝遂回館裡此寺名雖
普渡而皆云嘛哈噶喇寺故問諸蒙人而亦如是

矣

十一日晴薰

十二日昨同而風

十三日昨同

十四日昨同尤薰蒸

皇上明日卯正詣大高殿拈香

十五日陰而風

十六日晴薰而風

十七日晴薰而風

十八日載陽載陰

十九日曉細雨乍飛朝陰午風而薰

二十日晴熱柵欄店四十里宿

未後發程出崇文門東二便門至郊外楊柳如烟
芳草如織勝於花時而尤况兩麥發穗大慰田家
之望者乎自不覺心懷怡悅若徜徉乎蓬瀛之間
快活若翱翔乎雲霄之中回憶百餘日留館之事
完如一場蝴蝶之蘧二然矣因感物興嘆二了一
口遂催車前進亥時候僅至柵欄店宿于店裡
二十一日晴熱棗林庄七十里中火邦均五十里宿
平明起程不由通州城裡向東直下至白河乘艇

而渡行十六里過蕪郊堡夏店新店午到棗林庄
午餐因少憩于店裡午後復起程行六里過三河
縣又行五里至漉沱河渡小橋前進歸心如矢一
路風景無心省玩但策驢催行未後到邦均宿于
民家大底農形自皇城至三河縣皆占有年而自
三河以東極為凋殘至邦均復為茂盛則昨冬至
春雪不過履齒者數度而經春至夏雨不過一鋤
者一浥塵者數度而已其枯旱莫甚於此而以農
形言之則無異我國之雪積雨足之候北地土理
惡濕而好枯歟其理未可知也

二十二日早陰午風而雨未後晴和驚山店六十里
中火王田縣五十里宿

平明自邦均起程行十五里至徐家庄乃是一大
村庄而村之兩口皆有小城而有門上上有敵樓
亦一座重鎮也又行十里渡五里橋不遠薊州城
路向南而下至翠屏山古有路傍石壁刻水滸志
楊雄潘巧雲之像而今無存焉行至引流河口水
不為深廣遂過了橋催行而進已候到驚山店午
餐訖復驅車而行五里至楊子山口石層上完如
石榜也又行七里過宋家庄至小枯樹店風勢頗

酷黃埃散漫因慢行至大枯樹店小雨從風亂飛
從紗窓而透于車中衣裳殆濕因加鞭前行過彩
亭橋歷黃家庄未至八里堡風雨始止天色開霽
復緩行過西八里堡至王田縣由西門而入一直
向東而行出東城門外宿于姚姓家王田城東西
兩門皆有重城重門而東門則敵樓但存椽楹而
街中屢肆極目蕭條非復舊時容矣城東兩街之
口有一座廟堂因步行至門前門上扁曰古剎觀
音堂五字寺門向東而門常關焉傍有一旌乃節
孝之門而但刻甘貧節孝四個大字無他甚解不

知何代何婦之節孝也寺之北墻開一小門而在於街邊遂入寺門則乃外正門之內重門之外而重門亦闕焉因由南邊角門而入正殿向東而扁曰普賢願海傍又一扁曰咸登寶筏殿內安大士全身巖巖七寶左右壁下卓上安諸佛菩薩仍叩頭而退自龕後西門而出又有三楹小堂向東而開扁曰佛筏廣渡堂內安諸位小金佛正殿北翼閣即左廡而扁曰阿羅淨果殿內安彌勒佛左右各安幾位神像南翼閣即右廡而扁曰護國庇民殿內亦安幾位神像余因着完了一遍遂向管廟

的舉手稱費心。已辭出廟門而回。棧次
二十三日晴早涼午熱而風沙流河四十里中火豐
潤縣四十里宿

平明自玉田起程過龍池菴至十五里屯堡曠野
綿邈草色平蕪襟懷豁如自不勝快樂矣又行十
五里渡雨水橋此時風勢頗猛黃埃散漫前途迷
不見矣遂催車至沙流河堡穿城而出入于店裡
午餐訖復起行至還鄉河茫々大野入眼無際嗚
々寒波逝而復回々憶往事不覺長吁一口矣遂
驅車渡河至豐潤縣四里許有塔兀然特立遂下

車而至寺門外乃是觀音寺而即小刹也正殿扁
曰慈悲大士內扁曰慈航普渡榻上安大士玉顏
粧嚴七寶忙叩頭而退由榻後角門出後庭又有
一殿內安一尊金佛於蓮花臺上膝前有三位
小金佛蓮臺花葉之間皆安小金佛左右北壁下
各安數十餘位小金佛而殿內外俱無扁額正殿
之西有一塔高可十五六丈凡七簷而臺基為一
丈後門內殿之東有鍾樓因向管廟的舉手稱贊
心多了遂至城外店裡安歇鎮日馳驅之餘塵埃
滿面鬚髮俱黃洗了一回兒日尚申矣遂整衣而

出入城西門內周視一遍而出東門東西二門雖
是甕城舉皆崩頽幾無完處太平之餘武備之弛
惟如是也循城而東至玉皇廟二在城東路北高
阜處上了十數層石級而入廟門內左右有鍾鼓
樓向南一殿扁曰報我神靈殿內安玉皇全身
冕冠黃袍持笏兩仙童奉卺侍衛左右廂各安四
位配神二位仙官二位神將手持槍刀威儀森嚴
因叩頭而退至後殿榻上安一尊金神亦冕冠黃
袍持笏而但虬髯鬆二矣鑲眼睜二矣榻內左右
安數十位小金佛榻之左右北壁下各安數十餘

位小金佛又拜了幾拜遂回旅次

二十四日晴和而風榛子店五十里中火野鷄屯七
十里宿

平明起程過小鈴河牛欄山烟墩臺至亂石山怪
巖确石累々縱橫筵路甚險其山名之亂石良有
以也僅行數里至永平橋距灤州西北七里長可
數十餘步廣可十五六步而石理堅密其色青綠
完如剛鐵矣渡橋而行一箭之地至榛子店西門
外乃是灤州沙河縣所管城堡也附城而北有一
廟乃是關聖廟而廟門常閉焉問諸鄰舍則曰

禁不得開了余遂叩門請以叩頭拜謁之事管廟
的開門放入遂詣殿庭前有鍾樓向南正殿口內
扁曰日月同明榻上安 聖像冕冠金容九章彩
花錦袍左右配神各三位遂叩頭而退出廟門向
管廟的謝了一聲費心多因入城穿街而行出東
門外少憇于店裡午餐訖復起行沿路風光庶慰
客懷也過了幾多路至乾草河欲望薊門之烟樹
而風埃滿天迷而不見矣又行幾里至新店子亦
有東西兩城門亦是灤州沙河縣所管城堡而屋
肆與閭巷不下於榛子店矣復行十五里至沙河

驛西門外門上扁曰沙流河堡有敵樓遂出了東門外望野鷄屯而行路左有關帝廟又下車而入殿內外俱無扁額正殿安一聖像冕冠金容持笏五彩繡花錦袍榻後更有一層榻其上安聖像二小位一位青巾黃袍一位青巾綠袍俱重棗顏左右二侍童東西配神各二位又於供卓上安一小位聖像重棗顏青巾綠袍手持青龍刀坐下赤兗馬明明是獨行千里之時也正榻之右邊又有一榻安一尊神位粉面錦袍兩侍童因叩頭四拜而退向管廟的舉手經費心出了廟門

又驅車而到野鷄屯亦一城堡也有東西兩門市井櫛比民物殷富矣宿于民家○野鷄屯前後四
十里之間那有一塊鷄蛋大的石子兒但見得漫
已黃沙滿地堆積任風亂滾而已

二十五日少雨載陽載陰永平府四十里中火撫寧

縣七十里宿

黎明起行行了三十里至孤竹城乃夷齊廟也城
上扁曰賢人舊里入城少許東有一虹門如城樓
一樣門內對邊亦有一樣虹門兩門中間正北上
亦有一座大虹門向南而開門前左右亦豎二碑

長可數丈前面皆以八分書之東曰忠臣孝子西
曰到今稱聖東門之外以北則乃一塊大隙地而
昔年則彩樓畫閣重二疊二矣今則不有一屋但
餘頽垣舊址而已到此豈不傷心正門對面有一
麓足以為案而其下照正門向北而立一面牆二
高幾至二丈三面虹蜺皆以甃甃甃造正門上扁
曰清風可挹東門扁曰天地綱常西門扁曰古今
師範正門內極廣濶向南有重門乃三楹而中間
是缸左楹內豎兩碑右楹內立一碑重門之內亦
廣石碑重二而不能殫記矣正殿月臺石基長廣

俱為數十餘步殿內榻上安夾齊二位塑像粉面
冕冠彩花紅錦袍卓上列香香爐花瓶皆是全剛
之石文彩奇異品質光潤其在清節祀之卓上者
誠不愧矣遂拜了四拜仰瞻清範回想當年叩馬
之時不覺心楚鼻酸矣因暗嘆了一回出了殿後
又有一殿內扁曰揖遜堂二後當中有垣門出了
垣門循墻而西復折而北上了石梯數三十級又
折而東復上石梯七八級上了高臺之上二有三
楹即清風樓迥立千百尺斷崖之上下臨長江乃
灤河之上流也寒波嗚咽有如向人訴冤矣望見

江之北岸有一閣乃是孤竹堂也俯臨江岸亦可
一賞矣遂徘徊于樓北石欄之上放眼回眺眼掛
中天膏襟爽濶自入北以來未有見如此快活之
勝區也下有釣臺乃二師之釣魚處云入廟之時
雨始霏微矣到于今漸益蕭蕭然下矣雨中江色
亦供一玩因獨自棲遑轉身到樓前望一望向南
一眺東南上一麓陡起不高而秀不幽而雅無一
株之樹而但見得草色丰茸矣問諸主僧則曰首
陽山也因嘆了一口復走下樓來回至殿前由西
夾而出又有向南一殿乃供佛堂也遂參拜了退

至客堂則雨勢愈加而自廚房進簋設一盒粉菜
一器遂点了心遲回不發矣午候雨勢稍過此時
趕車的等皆驅車而先往江邊矣余與諸人徒步
而往此時雨訖而泥塵矣行了里許至河邊水淺
而船遲一食頃僅渡得岸遂驅車而行二十餘里
至永平府城西門外渡青龍河循城而南有五六
健兒各以鍬鍬掘坑取土對面山脚下有無數坎
坑問之則乃金礦而若多採之日則價錢至四十
吊裡外計以銀子幾至四兩五六錢假量每多如
此云自古及今民之趨利也如水注下若信此說

數千百年之間採之無盡禁之莫遏右北平一帶
地方想必不留一杯土矣誠可怪也少焉過了城
之西南角復轉而東循城而走行至村口轉灣處
見一石碑立于巷之東南轉曲之處碑根幾沒只
餘夷齊舊里四個字始知先師居于右北平之城
外東南之村巷也行了數箭之地至店裡午餐此
時天色晴霽日已正午而前站為七十里矣遂催
行前進至盧龍塞大野曠漠樹木翳翳處上綠陰
滿地膏懷爽若肱寒門矣行過了却落巔忽狂風
大起陰雲密佈雨隨而下了了一個時辰而始訖復

晴行至背陰堡見一山自北而南聳而又伏工而
又起雄傑峻崑殆幾百里至東南角上群峰競秀
山色明麗鍾英之氣若凝結焉這是古昌黎縣文
筆峰也在撫甯縣西南二十里外即韓文公舊里
也到此始覺山川靈秀之氣蘊毓於人馬行至盧
峰口渾是土谷路途嶮峻一連催行過了李家庄
到了撫甯縣不由城路循城而南宿于店裡
二十六日晴而風深河驛四十里中火八里堡六十
八里宿
既明自撫甯縣起程行八里過吳家嶺至上下白

石堡街巷齊整民家殷富穰以廛肆而樹林陰濃
山野清幽誠一大村庄矣又行幾里過了宋家庄
至榆關巷口東西各有里門間巷廛旅左右櫛比
東門外有大木廠木料堆積亦一大市鎮也又行
了多時至王家店雖不甚阜盛亦不蕭條矣午到
深河驛午餐訖復起行過鳳凰店大理營湯河堤
范家庄二十里堡窪俱是殷富而林木陰翳山水
縈迴民可以居矣又催行度藥家嶺渾無巖石之
帶确但土阜長谷而已仍過了紅花店渡深河橋
梁中斷河水不深遂驅車渡入山海關西門乃募

一重也一直向東而走至子城由甕城門而入子城門內城是二重而門是三重也又驅車而行至十字街出了十字虹蜺之門口上亦有敵樓門是四重也又向東而行至子城門內仰見兩簷門樓迥立半空而上簷內扁書天下第一關五個大字口畫如鐵之硬如玉之美如吾儕之肉眼不能如何讚羨矣遂由子城門而出甕城門外城是三重而門是六重也而十字街之裡外則屢肆開張人衆熱鬧而其餘城內則近於蕭條而殆不若往昔之繁華矣又行了里許由外城門而出甕城門之

外門是八重而城是四重也大抵此關之設險也
有如是之周密可謂萬里長城天付金湯之地而
其不在於險者誠可嘆也遂策驛前進五點鐘候
到八里堡宿于朱姓人家

二十七日晴而大風中前所二十七里宿

當日朝食後起程大風刮地塵沙眯目對面而幾
不相識矣過老軍屯亦一廬旅也渡雨水湖沙磧
之廣可至五里而中有一流溪溪若值潦水則其
水一望無際矣故名以雨水也到大石橋而村名
雖如是不知石橋在於何處也午到中前所留宿

于屢旅以步從與卜馬因病落後故不得已宿於
此店也不由城內繞曲城根而過南門至城東南
隅折而東不向東門復直東而行少許至店裡
二十八日晴熱如蒸滿井堡四十里中火中後所四
十六里宿

平明自中前所起行踰大小松嶺二嶺皆不峻險
但夾石一土阜陡起陵谷綿亘而已至高嶺驛民
家雖不稠密樹林陰翳地勢平茂頗有饒足之態
矣又行五里至頭封河水乾而但沙磧矣車馬難
進緩步而行工了多時僅過了砂磧祇望了平坦

忽見大小水磨之石滿地堆積極目層疊一望無
涯誰想歷盡沙磧而更逢水磨的石子耶始知造
化之變幻莫測也得過了王家店由間路疾馳至
前屯衛乃場市日也人衆擠捱而前路即四街頭
也更加一鞭直衝南街而出這是一區殷富之巷
也只見一簇人家約莫有四五百家而油頭粉面
之娥頭神玲瓏花朵身著錦繡袍襖孌々娉々的
立在各家門首賣弄嬌態轉瞬流睛相與巧笑凝
神觀者這是別地春色奈嘆曰誰料遠野僻巷生
得那恁般縹緲的許多美娘們也遂一直向南奔

馳過了前屯衛至滿井舖此是一個大村鎮矣午
餐訖復行過口魚河屯至葉家墳不是墳而乃一
座村里屢族矣又行過了雙堊臺沙河店一二三
臺子申量到中後所歇于店裡店之東數十步有
關帝廟向南而開扁曰關帝廟門內向北扁曰
此之謂大丈夫向南扁曰至聖至神門是三楹而
左右楹各有赤兔一疋牽馬一人左扁曰漢聖清
佛右扁曰聖神文武重門內扁曰世濟其美外門
內左右各有鍾鼓樓正殿亦三楹外正扁曰海晏
河清左扁曰千秋俎豆正殿內扁曰正氣千秋左

向南偏曰聖恩佑民右偏曰英靈保赤正榻上安聖帝金像冕冠黃袍忙拜伏于地行三拜九叩頭禮已畢周瞻了一回龕之東北壁上又有一扁曰聖德參天其下安一位神像右邊但無扁而亦安一尊神位俱是青巾青袍左右壁下配位各三位殿後又有一殿但內偏曰章昭雲漢左極中間又有一扁曰肇啓文明榻上安文昌帝君金像金冠錦袍侍童二人龕之東面北壁龕內安數十位小金佛西面北壁龕內安一神像金冠粉面黃袍在身侍童亦二間諸主僧始知孫武子遂即拜了帝

君前仍向孫武子拜過了遂謝了主管仍回店裡
二十九日清熱沙河所四十一里中火寧遠衛三十
里宿

平明自中後所離發渡六渡河橋過二三臺子至
東關驛雖有民家不過七八或五六而東關驛則
稍勝於二三臺子矣又行至三里橋上梁崩頽但
有兩邊石筭而橋則以木權造矣路傍列着無數
大塊石上匠五六人方整理治琢將為造橋云又
行七里至曲尺河不見一勺之水而但見黃沙重
重疊上茫無際涯矣過了望河店至烟臺河與曲

尺河一樣黃沙而有一股流水直穿沙磧向南而流矣午到沙河所午餐訖復起行二了七里過五里橋至七里坡地勢如覆簸而平曠似野非野而即山坡也一直如是者為十許里茫然的但數點遠山而已名為七里之坡者其信然矣又行至曹庄驛民家廬肆稍饒於前站矣又行六里至青墩臺二在高阜處形圓而且崔嵬足觀日出而惜乎日已過午矣無奈何只得一笑而過至寧遠衛不由城內安歇於城南店裡此時日尚未晚與馬頭步徑永寧寺溫井寺在城東五里許東距東頭臺

一里許曠野之中正殿西角門外庭除廣潤庭中
有溫泉湧出而向南一字長廊之中設湯池四處
每湯池前面渾是明窓而一角門或東或西而開
其內甃石為方池四面廣各七尺許深可四尺甃
石作隱溝而通流於中間一池之內自此又連於
三處池也余入中間池內闕門不許他人之闖入
獨自洗浴池中有塊盤石矣遂立在石上初則脚
底熾熱難堪矣少焉則稍止勝堪然而不能入手
於水中只以手拍沾水而洗其熱可知也洗了一
回汗和水而如流矣因拭乾了整衣而出外以扇

納涼後與主僧詣佛殿正門扁曰慈悲六道左扁
曰慈雲遍覆右扁曰慈潭慧水殿內扁曰大樂正
宗左扁曰普渡迷津向北內扁曰慈點靈泉榻上
安觀音全身遂叩頭禮拜而出殿右又有一殿扁
曰聖水活人殿內安一小神位亦拜了而退給主
僧五百文錢遂回至店裡日已昏矣
三十日陰已候雨灑即止未候晴熱連山驛三十里
中火杏山堡四十八里宿
平明起程由南城根而行至東南隅折而北由東
城根而行至東門外又折而東望東頭臺而行其

山形如山字而臺在北峰之上望之如在半天中
矣又行至乾柴嶺乃一座土阜也又行至長春橋
一名老和尚臺而無橋無臺古有臺橋而今則消
磨不存歟抑亦未可知也又過了五里河至連山
驛沿路非黃沙磧即黃泥之坂也車轍忽高忽低
或傾或仄雖牢坐而亂動如滾球東衝西撞誠難
堪耐矣午餐訖復催行前進行十餘里至卓羅山
卓羅店路北有一廟石臺廣濶三門宏傑門上扁
曰三義廟對面即四下平廣之地而周回粉牆如
方城之樣牆高不過一丈每面廣幾至一箭之地

墻內皆以石灰築就潔淨如白玉之鑿成焉北墻正中開一門與三門相對矣遂由左夾門入又有內扁曰亘古三人門內上面又有一扁曰姓異胞同主僧前導至正殿扁曰一盟從古內扁曰忠義昭彰向南又扁曰威武英靈後壁上又扁曰智仁勇其右又扁曰靈應如聖左扁曰乾坤正氣右扁曰聖神文武榻上安三尊金神正中昭烈皇帝乘白馬左關聖帝君乘赤兕右張桓侯乘烏騮全面金冠金袍金彩晃々然眩人眼目右邊配位亦是全面錦袍持畫桿戟左邊配位一位正門內東邊

跪着一妖前有一力士挿釘于妖頭以鐵椎打入流血淋漓慘不忍視矣左邊北壁上扁曰慈風未泯其下安藥王侍童二人東壁下立馬頭羅刹西壁下立牛頭羅刹右邊北壁下安后土神一位左右配神各一位前有一小神位遂於正殿行三拜九叩頭禮拜畢謝了主僧忙出廟門乘車而復向東而行至塔山所乃古之百戰之地也回憶前事不覺潛然出涕矣又行了多時至高橋堡巷口則地形不均而乍陷為昨夏潦水之所浸十室九空矣行過了數箭之地已勢稍高而左右屢肆櫛比

民家連亘殆至三四之里誠一大市鎮矣又行至十里河但見沙磧茫茫無涯中有一水溪溪而已又行至杏山堡乃昔日百戰之地然民家屢肆頻為阜盛這幾年蹂躪之餘民之安堵也誠是意外也因宿于民家

五月初一日晴和午後大風夔陽店四十一里中火石山站五十里宿

平明起程過官馬山至松山堡俱是百戰之地居民尚不安堵也松山乃是高山大嶺而乃一座土阜奔騰陡起綿亘幾里矣又行了多時至小凌河

河水不深遂驅車而渡至小凌河堡民家蕭條尚
未復完矣自此距雙陽店為五里而路上但黃沙
堆積曠野渺茫而足可為十餘里之遠矣僅過了
砦磧至雙陽店午餐訖復行至四同碑前有娘二
廟而今無存焉催車至大凌河堡左右屢肆之連
亘者幾至四五里亦一大市鎮也自此而大風漸
二刮地塵沙昏天迷地對面而殆不相識黃沙透
滿於車中矣雖著眼鏡無奈何只得以羅帕蒙面
而行至河邊水雖不深而濁波奔騰涵湧不無其
懼矣遂驅車而渡水不沒膝而最可畏者惟風勢

之太猛矣因催行前進至禿老婆店民家不甚稠
密而亦不殷足矣又行至三臺子始免砂磧之苦
而有石崩矣轉灣委曲行至高處東望巖壑之間之
山蒼翠積鬱插在半天之中靈秀之氣氤氳於峰
壑之間矣遂驅車下嶺至于石山站街巷之富盛
塲市之豐盈有倍於大凌河堡矣行過了二度十
字街始至旅次安歇軍牢先來便付家信申後雨
始下至夜不止

初二日晴熱而風閭陽驛四十里中火廣甯站四十
里宿

平明自石山離發過望山堡亦土岡陡起作一高
陵深壑而已又行過五臺子四臺三臺等子至二
臺子沿路旅店不甚富殷但免蕭條矣又行十里
至閭陽驛乃是一大屢旅稍勝於幾個臺子矣午
餐訖步行至街東三官廟門內有三座殿閣向南
宏傑而起東一殿扁曰威鎮山岳又曰恩被六合
內扁曰帝德廣運榻上安三尊全身像正中位冕
冠左右位寶冠殿是三楹每楹各安一位每位各
侍童二人左右壁下安配神各三位龕室左右聯
曰極定道宗天地水立極元為善長上中下同元

中一殿扁曰天理昭彰內扁曰感而遂通安七位
神像左右壁下安二配神西一殿安金神像一位
是財神也扁曰天府儲財左扁曰福緣善慶左右
侍童各一位矣遂謝了主僧催行而進過了二三
臺子至常興店廛旅頓櫛比矣又行五里至北鎮
堡乃一小城也由西門而入行數箭之地出了東
門城內不甚富麗頓安堵矣自城外分路往桃花
洞遂折而北一直向北而入者為二十餘里沿路
或有人家而多曠野沙磧矣趕車的彛初行也問
路於田夫牧童而行又折而西一直向西而行十

里許始至一寺乃空剝而關門焉遂回身釘立
知所向矣忽見山麓之下樹陰裡微露牆角屋簷
矣不勝其幸忙步而至山門下仰觀門扁曰雙隆
寺遂由夾門而入則寺僧三四人出來合掌問訊
余亦合掌回禮了同往佛堂扁曰悟徹菩提又曰
濟世慈航榻上安三位大金佛有兩個沙彌侍于
左右因禮拜而退至方丈問主僧是誰一僧答云
小僧也余曰敢問大師法號曰弘昇問有桃花洞
否答云有有沿路訪問之時皆云這鑿巫閭山下
有廣寧洞而不知有桃花洞云矣到此寺而始答

有桃花洞則北人皆稱廣寧洞而以其有桃花故
東人稱桃花洞也若昧此理而只尋着桃花洞則
誤矣弘昇又云此去桃花洞為二里也遂走出寺
來當先指路因跟着弘昇向西逶迤而上溪石清
奇石逕崎嶇芳草如茵綠陰滿地花木處處種植
桃杏梨檮滿枝結子有一梅樹大可一抱高可數
仞而梅子方釀酸弘昇摘一顆而進余搖手不許
再摘因一口嚼來牙頰俱甜酸矣又行一里花木
轉益叢茂有葡萄一架其架至十餘間北塞山峽
之中豈知有如許之勝區乎又從石磧步而上

上了一回兒復從石筵行不數步又有石棧如是而上者幾至五六百級石棧盡處有雙隆寺重修碑立在巖上乃光緒六年事也有一座粉牆朱門斜開于千仞絕壁之下弘昇立在門左合掌而讓我先入余亦舉手請偉師先入弘昇立住了脚固謝了余不得已先入過方丈至殿庭弘昇先入殿內鋪了拜席余與弘昇同為禮拜因仰瞻則榻上安三位金佛金光曜日榻上扁曰三寶如來左邊北壁下安一位金佛左右壁下各安九位阿羅漢佛正榻上左右各安着侍衛尊者殿右又有一門

弘昇請入透入其門則乃石窟之中安二位小神
像於石壁之下仰見奇巖重二疊二累二層二空
其下而但向前橫出繞殿後而東其中可容數百
人而佛堂在其中若下雨則巖上之水落于簷外
矣因拜過了佛前退入方丈之內則數僧向前問
訊請余以坐向南有月窓從窓而縱觀其下萬仞
南望廣甯之城而一望無涯大地布羅於眼底矣
不覺心清神怡如披雲上天矣日已迫暮不可久
留遂與弘昇轉身下未至弘昇方丈中少沙彌獻
茶二罷向弘昇再三補謝忙二乘車而疾馳行十

餘里至廣甯城外日已昏黑此去宿站為數十餘里不得已宿於店裡

初三日晴熱中安堡三十八里中火新店五十里宿黎明起程由廣甯官路行二十餘里始出關東大路乃朝陽鋪也此去廣甯站為三十里矣再上一鞭至于家坐亦一小村店矣復行五里至中安堡午餐訖遂起行過三里橋三里站到了羊腸河三里之補蓋謂與羊腸河相距三里也河水淺狹驅車而渡河渠不灣曲而羊腸之補大有異也河之東即羊腸河之屢旅也亦不蕭條矣又行十餘里

至小黑山這是一大市鎮也兩條街巷屢肆連絡
綿亘五里許矣又行至十里杠子亦村落之中也
又行幾里至土井子其名土井者不知何為也自
此土阜漸高驅車而上則乃一座石嶺也雖不險
峻車之升降誠難矣因驅車而至新店宿于廬裡
初四日早陰已而雨二道井三十里中火白旗堡五
十里宿

平明起程行二十餘里至神隱寺不得一玩催行
至二道井路北有關帝廟口前一雙石獅子其形
雄猛其制精巧矣遂由夾門而入殿庭廣潤有二

重殿閣茅一殿安 聖帝金像冕冠錦袍侍童二人左右配神各二位扁曰慧日慈雲東北隅設榻自北折而東安四位神像西北隅同左右壁下安配神二位右邊神榻上有小扁曰青囊壽世必是藥王也後一殿正中榻上層層安十餘位小金佛左邊榻上安三位娘 亡粧嚴七寶左右侍童二人右邊榻上亦安三位娘 亡左邊侍童一人抱兩孩子右邊侍童一人携一孫子立于榻前桌上這是送生催生之神也亦四拜而退辭了管廟的出了廟門行數十步即廚房也因午餐訖陰雲密布雷

聲裏烈趕車的忙將雨具覆于車上雨隨而下因
冒雨而行裏雷連亾不絕而但聞水聲激聒於車
轍之下矣過了靠山屯雨始止復催行到了半拉
門乃二道井也屢肆櫛比亦一市鎮而即場日也
魚肉麩菜等屬布滿於街中極其熱鬧而無他布
帛之屬矣又行過小白旗堡至白旗堡沿路半是
水鄉矣今日之小雨尚如此若值大霖雨則車路
倘不通矣豈不懼哉未時候又小雨即止而晴和
因宿于店裡

初五日晴而風和熱新民屯五十里中火神農店三

十七里宿

平明自白旗堡移葭行數十餘里至柳河溝河水
雖淺而廣可一箭之餘驅車而渡河之東西十餘
里俱是砂磧矣又行過了大小黃旗堡至新民屯
乃是文都會也廛肆櫛比行旅絡繹大是熱鬧民
家至萬餘戶云路之南有一寺扁曰保靈寺遂由
夾門而入正殿三楹扁曰莊嚴示相左扁曰止於
慈右扁曰慈雲廣覆舍龍是三簷蓮花臺上安金佛
東壁上扁曰好生天又曰苦海慈航左門內扁曰
普濟群生又曰慈恩普佑右壁上扁曰濟人之急

又曰慈航普渡右門內高曰慈悲濟世東西各配神二位因四拜而出殿之右又有一殿周以墻垣有一門扁曰願堂正殿扁曰水母仙宮左高曰渾周慈雲右高曰坎德靈長龕是三簷榻上安一尊金神左右各配神二位龕柱聯曰配德有蒼天福庇絕溟皆利涉新民仰元后澤敷大地盡恩慈余亦四拜而退小童前導入東翼閣中出東邊門乃一座廣庭有正門而常關這是別設一刹也向南一殿扁曰普救甘霖又曰利涉無阻左高曰奠厥攸居又前扁曰佛法神功右高曰震澤定又前

扁曰遠水安流正門外向北扁曰靈感瑤環又曰
慈航普渡向南又一扁曰慈光普照殿內扁曰安
流告稔又曰安流永靖榻左北邊扁曰正道蕩平
右邊北壁扁曰竭來咸佑左扁曰惠我粉榆又曰
顯德佑民右扁曰安潤永慶安一位神像寶冠綠
錦袍侍童二人左右配位二聯曰順軌安瀾資沃
土深厲淺揭奠陪都亦四拜而出給小童一百文
錢回至正門之前左右有兩簷鍾鼓樓極精巧矣
遂謝出寺門至店裡午餐訖復起程過五道河至
巨流河乃五道河之下流周流河之上流也遂驅

車而渡沿河行三四里至一處四下俱無人居而
崖邊樹林之中有七八楹一重小屋柴門不整斜
河而開門內有一婦頭插一朵茶蘼花身着青布
長袍脚穿弓鞋洗浣了衣裳鋪掛於籬笆枝頭向
陽而晒灣口弓鞋窄而又小立脚不穩臨風袅娜
如柳條之搖擺若借吳道子之妙手模畫出來可
以供屏間之一玩矣又沿河而行數里至周流河
口漸廣而水轉深遂乘艫而渡又沿河而行少里
許始捨傍崖之路行了十里許至孔家子亦稍饒
之廛旅也又行十餘里至神農店宿于民家

初六日晴熱薰蒸永安橋四十二里中火白塔堡五
十里宿

黎明自神農店起程行十餘里至老邊站乃一小
站而十餘里之間再無人家矣又行五里至磨刀
橋之兩邊石筭乃是舊制而橋梁則一無存焉
以木為之左右周以赤欄齊整可玩堅如石橋行
不數十步又有一橋其製法之相似矣又行五里
至大方身亦一廬旅也又行至雙家子比大方身
稍有勝焉又行五里至永安橋中火車站點心訖為
趕車的之所催忙之起行也不過五六十步民家

盡處有一石橋廣可十餘步長可數十步而周以石欄左右欄頭皆有大石獅一雙小獅一雙其製極精極巧完如活動矣又行八里至杜元橋稍少於永安而亦周以石欄其工亦不少矣又行過了塔橋至願堂寺此是大清立極之願堂而又有嘛哈噶喇寺極云壯麗而趕車的欲換車而脫去加鞭飛跑不得一玩惜乎其無緣矣因行至土城門外一里之許有廣慈寺二座牌樓極為精巧而寺院額地處方興工重修誠為巨役矣亦不能遊玩遂入土城門內左右廡肆簇擁至內城底而止極

為熱開從街上一直向東而行五里至內城西門
外城底亦一場市也哄々熱々人衆擠挨矣不由
城內循城而南至城東南隅又折而東至南門外
大街屢旅遂攘車而更為粧車於焉之間過了三
個時辰申量始起行忙々催車不拘道路之險夷
一直加鞭而走路途不平其苦實難堪矣申後始
至白塔鋪宿於店裡

初七日晴熱大風十里河四十里中火迎水寺五十
五里宿

黎明自白塔堡起程行了多時至沙河堡所過二

十里之地非沙磧即黃泥也若值大雨則實難行
程矣又行過古家子至長盛店二肆稍勝於所經
之站然亦未免蕭條過了板橋堡亦候至十里沙
堡路傍有關帝廟遂下車入廟門之右邊有
鍾樓向南一殿三楹扁曰氣塞蒼冥殿內扁曰浩
氣配天左楹扁曰名垂宇宙榻上安聖像冕冠錦
袍左右侍童二人左邊北壁下榻上安張桓侯左
右侍童二人右邊北壁下榻上安趙常山侯東西
壁下安配神二位先向聖榻下行三跪九叩頭桓
侯常山位各四拜因謝了管廟的復催行至十里

河堡午餐訖又起行十七里至烟臺河堡旅店為
昨夏霖雨之所侵頗為蕭條矣又行至萬寶橋渡
了烟臺河至亂泥堡自春迄夏雨澤極小乾泥萍
确塵土衝起而已復行至三道把過了石橋此時
風勢漸大塵沙迷空日色如黃昏時候因加鞭催
行而風沙尤極衝起對面而幾不相識驟乘之驢
亦吹鼻而不進趕車的告以買飯歇宿于店旅余
不聽益催攢而纔到迎水寺但見黃沙鋪滿於車
中而人之面髮巾帽衣裳渾是黃土完如泥塑之
人諸人相顧一場拍笑晚來風定遂歇于民家有

一少婦負甚清秀而不着華衣問其故則其夫為
昨年潦水之漂沒云余歎曰自古紅顏之薄命也
儘果然矣余之前日之行也此村一帶頗為饒富
矣今則民舍不過八九而前後埋之之道變成了
茫口無涯之沙磧古人之所云桑田碧海須臾改
者誠不誣矣自瀋陽以東至于王寶臺相去幾百
里間但見曠野漠口天連地角地接天涯渺茫無
涯矣

初八日晴熱王寶臺三十里中火狼子山四十里宿
平明起程行數里至太子河乃燕太子丹之夜逃

處也使行則乘艍而渡其餘皆乘車而渡又行數里至木廠舖循東城根而行里許遂折而東行過了阿彌庄高麗塚至王寶臺自阿彌庄至此數十里之間多般是水磨石子滿地堆積車轍左傾右仄前塌後騰誠難堪矣然還有個好處自此遼野盡而遼山蒼翠鬱鬱乎曠野之外令人頓覺襟懷爽豁矣午餐訖復起行至石門嶺山路極險車馬難進因漫漶而行至嶺上又折而下其上下之際車兒橫斜亂等坐車的如登傀儡場上舞了一場矣艱辛下了嶺來行不多時又至王祥嶺比石門

殆為殘麓矣。過嶺而東，下山勢控抱，地形稍寬。四五村落掩映於斜陽林木之間，可知其王孝子之舊居也。行了數里有湯河，乃小河也。自此而盡是水磨之石鋪滿而已。過了石路，又有一河名曰三流河。渡河則又是水磨石路。盡而又水過水而又石路如是者，凡十度而一直循河沿山而行。往往見山凹裡，或有四五人家，山麓之下，或有三四籬落，或有牧童四五輩，放馬於芳草之堤，驅豕於水注之際，或六七个小兒赤條條，渾脫衣裳，相與混清於水中者，其形容真是可愛不覺欣然，然頓忘

路途之艱楚矣又行至摩天巔不由巔上逶迤山脚而行又行過十里許至狼子山留宿于民家

初九日晴熱甜水站三十里中火連山關四十里宿黎明起程行了多時至小石巔乃是小巔而亂石堆積頗為險峻又行五里由青石巔之南小谷向東而行北有大山崔嵬迥立而其北即青石巔云矣此谷即山僻小路也雖不高峻亂石帶確路道嶮磴右難於昨日之程而透路者為二十里然比諸大巔頗為平夷也行三十餘里始抵甜水站午餐訖復起程行數里由會寧巔之間路而行峰巒

屹立洞壑深邃樹林陰翳石角嵯峨或高而低
而復高委曲漸高而漸險谷中渾是亂石車
轍等軋之聲轟轟若若如雷霆之震耳對面言語
不能相聞矣其上高之時則車兒之前轆朝天後
轆指地驂驢蹶而復起者數四其下嶺之時則幾
乎顛仆將若傾覆毛骨俱竦其亂軋之時則坐車
的人真個如繡毬之滾上滾下左縱右橫矣行過
了嶺頭至半山之下路北有一小廟遂下車而至
其門下扁曰五峰觀五峰者蓋取諸後山而名也
廟後有五峰競秀而特立不雜一土渾是石角足

可一玩也門內扁曰大丈夫殿庭稍廣右有廊廡
管廟的住焉殿前石臺下有數朶紅芍藥爛開花
香芬芳矣殿門扁曰與天地參殿內安三位神像
正中一位全身冕冠綠紗袍左右二位俱是彩花
衣而乃丹青也東西配神各一位遂四拜而退謝
了管廟的出廟門外復乘車而行始達平地由山
谷而行者為四十里矣山中之稍寬處則徃已見
四五村家散落於斷麓之下鷄犬之聲有時而出
其山之稍沃處則多般是起壑或種麥或種豆其
勤苦可知矣自此而多村庄然未免蕭條矣行了

里許有一水名曰石河沿河而東始出河渚當先
之車驅驢而渡至于水際後轉所載之物未免浸
濕在後一車又驅而入水數十步其驢頓小幾沒
溺遂僅得回出透路而行尋水淺處始渡而達于
連山關宿于民家青石巖下有一村名曰草河口
是一大村也多富屋而其墻垣如城郭有銃眼堞
口頗為礮守矣

初十日晴涼通遠堡五十里中火黃家庄三十五里
宿

當日平明起程至俞家巖是一山谷也巖以西渾

是白土巖以東渾是石壁而上巖之時不知其高
矣下巖之時則乃峻坂也雖欲停轍不可得矣車
兒如高峰轉石之勢亂跳而殆危險也過巖而下
乃水磨石塲而有一大川又行至高家巖比俞家
巖乃一小亂石之谷也又渡一大川至今水巖是
一土阜而亦是山巖也又行十里過草河橋至草
河乃一帶河水而渾是水磨之石也又過了一麓
有一巨河名和尚河也四無村落而前面是古和
尚庄云又行了幾里又有一河名石隅河也村名
亦石隅矣又行了幾里又渡一水至通遠堡即古

之鎮夷堡也。乃是大村也。街上搭了倉氏戲子之棚。戲子等在臺上鳴鑼擊鼓而聚集觀光聽戲之人。喧鬧擠挨而最多者即姑娘也。年可三五二七或二八與二十裡外之兒女輩。粉面油頭滿插花朶。着了新鮮的衣裳。穿了繡花之鞋兒。坐在車上或有相話者。或有買糕餅吃者。又有吃烟者。或上了戲臺。踞坐于欄沿上。笑嘻嘻相與指點者。多般是豐盈婉媚如武陵之桃花。秀美嬌艷如閨苑之瓊林。真個是玉門關外春色爛漫矣。日已正午而戲子們猶不扮演出來。輪流鑼鼓而已。余等不得

多時遂登程過了幾個村莊幾個河水沿河而行
至林家臺金鷄河邊沿路之河乃是金鷄之下流
而最匯而深焉但見一葉小艇係于河際任風蕩
漾正是野渡無人舟自橫矣遂尋了個淺灘驅車
而渡至犒項這是山谷也因出了項口即一廣野
而已山南有數三村家耕墾了幾百畝於沙磧之
上種植了糖秫豌豆之屬正是窮僻村也又行渡
了八渡河即全家河也遂催行至黃家庄亦一山
底村也宿于民舍通遠堡中火時王家炕上以大
繩掛一個數尺長的柳筭以洋紗畫帕覆于其上

以手一推其筭則如鞞韞樣的來。一少婦新粧濃艷坐在炕沿上做了針指余怪而徃前揭視則乃小孩兒開眼而笑相與胖白其形可愛余摩頂稱羨其少婦向余微笑余因問曰此是娘子之公子乎曰然娘子芳年幾何荅曰二十二歲余暗想道雖是村婦姿容恁般美麗眉眸這樣清秀若在京華不讓嬌艷之稱而况絕塞異域者乎人之英秀未可執一而言也

十一日晴和四臺子五十四里中火柵門五十一里宿

平明自黃家庄起程渡劉家河至大長嶺委曲峻
險車不能進間闕踰嶺而下至三家河一名甕北
河源出汾水嶺縈迴幾百里東入于海矣又行至
小長嶺與大長嶺無異而其高絕似不及矣然嶺
以西純是石角嶺以東乃堊土無石而即是平峻
之長谷也過了小長嶺至松站即古之鎮東堡也
一名薛劉站昔日薛仁貴劉仁元之駐軍處而沿
路不見松林至此始有大松林故名松站也又行
渡了一大河至麻姑嶺雖不高絕亦是亂石之陵
谷而前後近十餘里矣又渡了一大川至伯顏洞

乃元時伯顏駐軍處也山谷之內稍得平廣然非
大軍駐札之所也行過了伯顏洞又渡一大川至
四臺子乃一小村店也午餐訖復起行過三臺子
即乾子浦也至三义河北有一麓陡起逶迤而走
至河邊起頭特立其勢非常問諸趕車的則云魚
龍山也渡河而行鳳凰之山在東北之間攢峰屹
立竒巖斗起秀麗幽邃靈淑之氣盤鬱乎巖壑之
間峰巒之上真個是名山也山上古有丹穴而有
鳳凰焉唐太宗登此山欲尋丹穴反為盍蘇文之
所圍險些兒幾乎傷命云此山之勝與我道峰水

落爭為弟兄也豈知絕域有此名勝者我行過鳳
凰山至舊剛自此以後路上別無亂石但是黃泥
砂磧車兒始得快馬行過了安市城至柵門宿于
民舍自灣府饌物入來

十二日晴和溫井坪五十二里中火九連城四十四
里小歇灣府二十里宿

當日未明自柵門移發行了二十餘里至車踰嶂
項是一場平夷之地無高陵夾谷之險也又行數
里過魚龍堆至葱秀山川完如我國之葱秀膏懷
爽豁若至于家鄉矣又行過湯站柳田至湯池子

解送趕車的遂乘馬而行至愛河即三江也因驟
馬而渡行不里許至中江昔時則路途委曲相去
為十里矣昨夏潦水三江合流多少邱陵盡為屠
盪但茫茫砂磧而其直如髮故不數里也江水汪
洋風起浪括令人頓覺爽然遂乘艇而渡行了數
里至鴨綠江綠波溶溶不改舊時顏色矣因乘小
艇而渡至雪柳館頭楊柳枝弄風葉成陰
矣余嘆曰昔我來斯朔風凜白雪霏今我歸
斯楊柳依依麥穗歧遂上了樓上三使與灣尹
列序而坐諸妓簇擁侍立乃欲奏樂余無心留玩

遂下樓來驟馬而行由西門而入安歇于妓兒琴
心之家

遊小棘目錄

五

蕪湖日錄卷之五

月十三日晴熱留灣

舟後與從者數人登統軍亭。壓層城。倚斷崖。百尺危欄。迥出雲際。縹緲乎如在崇峯之巔。而三江練迥於檻外。群壑拱揖於簾前。野色連天。江遠樹可謂茫。大野入遼燕。而作古關。滾長江。從鞞鞞而裂地形矣。余回想昔日之事。壬辰不勝愴感。因吟一律。曰悲歌獨上統軍亭。壯志悠悠擊碎巖。羞箇淒。吹古壘。客槎泛。下蘆汀。三叉鴨水。分疆碧。數點遼山際。海青極目瘴烟迷。去路回。

頭南望淚雙零吟畢下了亭來繞城而行到蕪漁
亭這是一座樵樓而亦在斷崖飛堞之上迢遞乎
絕浮埃矣城下沙渚有幾個漂母與汲水人往來
不絕而小如學步之嬰兒亂如作埴之螞蟻余歎
曰信乎古人之所云宇宙百年人似蟻者也喏嗟
不已因歸登望宸樓俯瞰城中誠一關防大都會
也閭閻撲地千門萬戶東亘西延市井櫛比唐貨
洋物左峙右積若男若女來口徃口關口熱口其
人物之盛邑屋之美完有京洛之態矣因回到寓
所侍者進夕飯而食念頓無旅懷陡起只吃了一

甌清茶蹠口的走出軒子來佇立閑庭獨對明月
正要散悶驀然見四五妓兒乘着月色冉冉而來
問候畢皆曰尚公呀中夜不寐獨立悵何余假
意兒嘆了一口氣曰想你曹管的來訪而等不得
不耐煩要步月閑散心也諸娥連稱多得罪了仍
曰妾等雖晚來今既到此設有天大的事妾等當
擔了千斤擔矣願尚公打破煩惱紫障好口的散
悶也言罷更不打話一擁上來笑嘻嘻的左扶右護
擁入室內余任他提携欣然坐下諸娥亦分坐而
輪流歌唱不知夜之將終矣

十四日雨午後止留灣

啓程日字以十七日擇定而衣件等物諸般行具
不得完備因此上鎮日裡紛々擾々沒了半刻兒
閑工夫入夜後稍得整理和衣而乍倚旅枕琴心
自衙中歸來望見窓櫺裡燭光透亮回轉身來立
在階沿上琅然問曰這個時候剛々到了五更天
明燭不寐做甚麼余曰琴娥因甚今纔歸家快進
裡面來琴心開戶而入見余和衣而卧微笑曰尚
公呀這是甚時候不脫和衣更待甚麼的是庚申
日也余笑曰琴娥休笑我々不是待人的又不是

庚申日也忒已相思了余的老奶已恁的害了琴
心呵已大笑曰尚公忒說慌已已妾飽聞人說
得尚公昨冬下來時黃岡箕城安州宣川等地紅
粉滿座花柳成林兀的是澹已自如無一個所晒
之娥而亦無機微出於言面尚公便是鐵石腸肚
因此上膾炙於西州一帶尤况皤白同住之間乎
又朗笑了一回余亦笑曰余只得困惱不過和衣
兒要歇了一息便做了你之一場笑柄兒琴心曰
誰將尚公的話兒敢做了笑柄然而想起來方纔
尚公之言可好笑不好笑麼普天下害相思的儘

多矣多管是青年貌美的未聞有害相思的老奶奶這不是好笑麼余曰想當初問我時候你之話頭真個好笑故余沒意見順着口說出來便為你纏得緊之的難解脫琴心謝曰豈敢纏了因命侍童進茶曰願尚公滿飲此茶以代悶酒也余飲而問曰我聞得有馳馬之娥云果然耶琴心沉思半晌乃曰果有一人退居村里者為九個年頭故罕有知者也余曰其名云何且與你相善否琴心曰此娥名蘭蕙年二十三與妾情頗稠密然拔察已久不管於官府雖以威脅之亦無奈何矣余曰琴

娥你不懂得了我的性子麼。斷的不見其技不肯于休你勿推辭為我一圖琴心曰此女若一出頭群議奔騰莫之能禦也。到此地頭雖有智者無以善其後者也。惟望尚公恕之余曰非你而誰能圖也。明日往說此娥相與打着轎子從間道來至百一院余當騎了一匹駿馬與心腹一人先往苦待矣。萬望善圖琴心沒奈何只得勉強應允因歸卧房去了余亦就睡。

十五日晴熱留灣

平朝琴心打扮得齊整搖擺而出問候而坐余命

左右催了朝膳與之喫完謂琴心曰夜來之托得
不志乎琴心曰尚公勿憂妾早起來想一想擺下
了一套神鬼莫測的妙筭來管教他雖有衝天之
翅難逃我調虎的圈套也余忙問曰計將安出琴
心曰但憑三寸不爛之舌殺得他做了皮包兒尚
公不必盤問余曰這又奇了何妨一說琴心搖頭
曰神機不可預洩恐走漏了風聲被他破綻余曰
諾你真個是吾之智囊也快些走遭一遭琴心打
了轎子向南門去了余因吩咐從者携着一具點
心盒兒騎着一匹慣走的追風駒加鞭而行出西

門外不移時到了百一院這是鍊武之所也。比試諸般武技百中取一故名焉。那院子雖在平原，頻崔嵬軒豁可供一玩。余看了一回，佇立欄頭，等不得，不耐心煩，漫口的將雙手兒叉于肚後，呆口的望着天涯雲際。纔到午牌時候，有一隻軟轎自東南遙遙而來，到了滴水簷前，掀揭了簾子，走出兩個美人來。當先的是琴心，在後的想必蘭蕙。余心下大喜，忙忙的往下一看，但見他生得妖嬈傾人國，窈窕動人心。半含笑處櫻桃綻，緩步行時蘭麝噴。真個是九天玄女從天降，月裡姮娥出廣寒。余

看猶未了早到面前拜禮曰遠薊風霜貴體
萬康幸莫大焉余謝曰不得躬進恁般坐邀方切
翫翫成垂海量不憚不嫌的賜此光顧得接芳容
這是三生之幸大慰渴望之懷也蘭蕙歛衽對曰
妾本章臺之柳才疎性頑退蟄村巷無聞於世者
已有多矣伏蒙不棄仰瞻清儀想妾之聲價自
此高矣余曰蕙娘呀切莫要捏虛做有的話兒想
起來高上的聲價恐怕還低了幾分也蘭蕙曰怎
麼低了余曰吾亦才疎而學淺性迂而志拙無心
於榮途棲身於窮巷慕的是忠臣烈士之剛毅不

屈憐的是才子佳人之懷抱不遇因此上閉門歛
踪焚香兀坐只將簞食瓢飲于口自適與世相違
為人所棄真個是怪口劣口的一個窮漢也豈不
減少了蕙娘之名頭耶蘭蕙忽愀然易色將玉手
猛打了欄頭曰苦哉口口尚公之言也直透了我
的心曲兒今春妾夫自京回來盛稱尚公曰不憎
於勢而阿附不染於色而循私處人公平臨事明
斷有人賂以重賂而欲曲訴無辜者尚公嚴辭截
之反治其罪牢囚獄中將欲照律邑村震驚無一
敢抵者被訟者恐復有累息乞乃止妾亦血心熱

賜的恨不得押翅兒飛到尚公之前拜了一拜今
聞尚公之言信乎果然矣妾夫亦戀慕尚公者久
而且又纏倒於琴心說長論短的一樁巧語花言
順隨他來到也若非尚公之名聲無以致此且非
琴心之能辯亦無奈何妾之此行出於傾心愛慕
之樁管甚麼他人之是與非也余見其辭氣慷慨
忙執手曰你是女中烈俠我亦庶無愧於為你的
爹也我認你為女你認我為爹罷蘭蕙微露玉梗
笑容可掬連聲呼爹曰恨不早做了我的爹也
琴心亦笑嘻嘻走將來拍手笑曰今日之會皆琴

心之功也。快將功勞簿來寫了。第一頭。余曰：你是下燕的。隨何論天的。秦宓：吾當記功於第一頭。蘭蕙謂琴心曰：閑話休講。這是爹之要。看我小技。而有此舉也。快取這件東西來。琴心使侍者向轎中。拿出一個袱包兒。放在席上。蘭蕙立起身來。整一整雲鬟。拂一拂湘裙。又將裙帶紐兒緊一緊。固好了。順溜兒打開包兒。次芽兒裝出來。但見他頭扎紺碧吳綾繡花帕。身著大紅蜀羅狹袖袍。一尺柳腰。圍繞藍綃帶。三寸金蓮。穿上烏嘴靴。裝束得停當。玉手提起兩口繡鷹刀。揮了一揮。向余微

笑曰這不是女子分內事忒為一位爹亡出醜於
教場之上若有二位爹亡幾乎沒了個身子因大
笑不止余亦笑曰我兒莫說矜誇的話兒我亦知
你之忒愛我也蘭蕙曰這是要我的爹亡一笑也
豈敢有矜誇之理乎爹亡呀請仔細一看兒之貌
樣真好麼不好麼余曰你是看裙英雄傳粉將軍
真個是我的好個女兒也越看越好了蘭蕙琅然
笑曰爹亡恁般歡喜了兒心真個好了一頭說一
頭走飛身上馬兜一兜韉轡扣一扣金鈴嬌聲一
呼拍馬舞刀耀武揚威而出使了許多法兒來上

衝下突左遮右攔鳳點頭而護前鶯轉身而掩後
盤旋如神龍之戲珠奔迅若猛虎之出洞颼口的
風生於彩袖晃口的光閃於戰袍一霎時弄得虛
飄口的如萬點柳絮滾上滾下但掩映於空曠之間
不覺眼花撩亂余與琴心不住口的讚嘆不已使
完了因兜轉馬頭回到樓下口的馬上樓卸下戎裝
將團扇兒搖口的借涼其嬌艷之色嫵娜之態倍了
幾分越口的可人憐但見他氣息乍喘恰似初飛
的乳燕蓮步懶移殆同醉舞的西施雲髮鬢髮於
蟬鬢彷彿如弄風的嫩柳金釵橫鞞於玉肩依稀

若睡起的太真紅暈嬌生於蓮頰便是映日之妝
丹香汗微透於月額真個氾露之芙蓉余不勝竒
愛忙取手綾拭其汗而撫之曰此地靈秀之氣獨
鍾於你耶何若是絕類離群遺世獨立也蘭蕙正
襟曰不嫌露醜敢逞小技猥蒙過獎自顧忸怩豈
敢承當余曰我兒誠希世竒才也以余的鈍辭端
難形喻也蘭蕙連稱不敢因請曰兒家距此不遠
願爹一暫賜一顧余曰與你卽兒素昧一面何可
往也蘭蕙笑曰古人云四海之內如同屋家相逢
何必論親疎且做卽的愛慕爹一特烹一甌清茶

便要一敬也願多亡萬勿遲疑快些命駕以慰我
夫婦一丘誠心也言訖兩娥一同起身打轎先行
臨行又再三叮嚀余見其出於衷曲知不可推遂
乘馬緩轡而行不上數里早到門首但見樹林陰
濃禽聲上下洞壑深秀礪流湲湲萋萋芳草滿地
如茵一對柴門向南斜開因其左右而遍植黃桑
白楊之木以為藩籬雜以簇簇薔薇之蔓補其隙
漏完如墻堵門內左右花木鬱密僅通一徑行了
半箭之地始有重門翼以粉墻因下馬步入庭陰
廣潤四面種奇花異草正中有五楹高閣扁曰普

和堂徑其軒暢自裡面有一位俊俏少年走出來
下階揖讓余遂陞堂舉目一看堂中擺列着數張
花梨椅兒簷前高懸着一隻琉璃燈兒架上橫着
嶧山之桐床頭放着秦西之鍾又於洒金紅漆的
一坐卓兒上安排着文房古玩得齊正整正把玉
龍如意押在古銅瓶中將金鍊書鎮安在薛濤牋
上四壁廂掛着桂照畫篋蒲案上堆着詩書墳典
焚龍涎沈檀於棋檯爐中其氣藹々然盤旋於空
氤氳芬撲之香清洒幽雅之緻儘無愧於蘭蕙之
室矣蘭蕙琴心自後檻出來笑曰有勞爹正多矣

爹口請裡面坐受郎的一拜余只得坐下那少年
重整衣衫向余拜謝曰生本布衣生在邊陲自知
才劣不合中用退伏田野惟琴書以自娛猥蒙大
人眷愛之深不以卑鄙特賜枉屈蓬蓽生輝感悚
交極無以為謝也余見其風采軒昂氣宇踈浪忙
欠身謝曰咱亦遺世之人願君不須過禮咱何以
承當也只因蘭兒之慷慨有志不管好歹一味趕
來這不是正經的咱豈得無愧於心耶原來此人
姓柳名河源年三十與蘭蕙多事六歲排行第三
世居龍灣家頗豐裕而性氣豪爽心懷洒落好讀

書而曉音律慕大義而愛清閑與蘭蕙氣味相投
心肝相照愛重如結髮矣當下柳生連稱不打緊
微笑而對曰大人呀有甚害理出此愧於心之教
身大人是樂善好義制強扶弱而中心樂怡不拘
小節的一位好個男兒也生之夫婦仰而慕之如
阿爹阿孃自知冒瀆而坐屈尊駕願大人勿以罪
也穩口的舒了高懷正言問一個丫鬟奉一甌清
茶而進余因接了一嘗其色嫩而清其味香而冽
真個是可於口者也余問曰美哉這茶是名甚麼
柳生曰這是雲林茶乃東坡之所最愛者也余曰

諾蘭蕙起而向余曰爹二呀請後院一造柳生亦
起身先行余與兩娥跟他而行佳木葱籠芳筵委
曲窈然而深邃澹然而幽雅但見綠陰滿地婆娑
而已因穿了一區松林過了幾回灣角至一芳草
崖下上有幸夷翠屏一字兒擺得齊整兩扇竹扉
半掩半開下有十數叢櫻桃時方待熟蘭蕙跑向
前去揀其濃熟者摘取一掬轉身奉余曰爹二嘗
此新先的味也余曰多謝你了你之費心忒多然
無奈節候之尚早未知家裡薦于廟也不敢先嘗
靠負美意望須饒了我罷蘭蕙点二頭兒曰誠是

矣。因入翠屏門內，只見對面翠壁蒼崖之
下有亭翼然臨于數曲清流之上，扁曰小閤。苑左
右列植珍果異卉，更有石榴花八九盆，正值爛開，
如錦剪繡裁的一般兒，粲然照輝。一雙皓鶴露衣
玄裳，戛然長鳴掠余而前也。余暗自讚羨，道：「誰想
此地有這般兒的勝區也。」正嘆賞之間，早到亭下，
有八九級石階，遂褰衣而上，凭几而坐。鬱葱二芳
佳氣濃，朝日晻曖，二芳晴嵐弄晚風，千仞古壁蒼
翠乎簷外，真個元豐之張園，十尋碧梧陰翳於庭
除，正是天寶之掖院。余謂柳生曰：「恁般清閑之福，

君之夫婦獨與穩享儘地上仙矣其與我之奔走
於是非之場馳逐於欲海之波不可同日而語也
柳生但遜謝而蘭蕙微哂而對曰荒陬小區何足
道哉願爹已不消說了言猶未了一陣異香隨風
遠聞如蘭如麝妙不可言余頓驚訝向風一聞忽
一位女子艷粧盛飾手持羅傘遮護日光輕移蓮
步冉冉而來生得面如寶玉唇若塗朱眉帶春山
眼橫秋水臉如蓮花鬢似蟬翼潔皎已兮點塵不
留嬌嫩已兮纖芥不累這不是天台雲裡種可正
是瀛洲蓬島人余看了又看越看越奇忙向蘭蕙

而要問是誰那女子早上亭子來與蘭兒夫婦叙
了畧干話因向余一拜道了個萬福原來此女名
繡花年二十一_二本係教坊退而從良者已為八九個
年頭而與蘭蕙才貌相稱志氣相合故暗地遣人
相邀者也余遂舉手而謝曰久聞芳名會晤無期
今日幸得好個風兒終接花容恍惚如莊園蝴蝶
之翅上然矣繡花正襟對曰妾自客獵飽聞大人
聲華於蕙娘之口遮要以蒼蠅之微附於翼驥之
尾者久矣今幸得拜於大人膝前如登荊州之門
情願冒忝於蘭桂之行將要薰陶於清誨之下言

罷起身再拜叫一聲爹。其婉美之色溫柔之態越上的添了幾分。余不覺喜從心生。笑逐眼開。滿口應承曰善哉善哉。吾今日驀然有天大的無量福力不費些工夫得了仙娥般的一雙女兒來。我如何當得多謝造化。了琴心忍不住鼓掌大笑而出曰今日造化低了造化低了。余曰何謂造化低了。琴心曰若非當初琴心之籌畫從那條路而遇着繡娘但得一片橘皮喫。莫便忘了洞庭湖令將頭切之人擠在一邊全沒瞅採。這不是妾之造化低了。伊誰之造化低了。余曰琴兒呀切莫要這般

焦燥係之一樁事業如尖銳的筆兒揮灑囊中自然穎脫而出其末立見何苦自訟如此吾預於功勞簿上滿工的記著許多功績也凱還之日當有重賞琴心笑曰尚公真神人也預知未來事而能記功於先耶言訖左右皆笑繡花將玉手向琴心有窩上輕上打了幾下曰你之這般滑油的嘴兒且謾開停了些險些兒我的腰兒幾乎折矣琴心以雙手捫一捫繡花之柳腰兒笑曰我想折了幾分還有些堅好了余曰你之舌鋒儘沒遮攔你若生得男子漢於戰國之時必佩了六國之印矣琴

心曰妾若生於那時節并佩七國之印矣豈獨六國也哉蘭蕙將團扇撲其口而笑曰你休容多嘴於爹亡之前快唱了絕妙曲兒以贖亂嚷之罪琴心曰諾蘭蕙顧个鬟曰快些喚來那鬟應命而去余不知其喚來者為甚麼矣少焉一派兒童携着在鼓簫笛絃琴等具而來柳生命坐於欄外吩咐个鬟一面擺上宴來一面點上茶來細斟於玉盃蘭繡兩娥代酒獻壽歌而侑之因起舞這是瑤池獻蟠桃的非比尋常之舞也于時諸童各逞其才五音迭作庭鶴和鳴互相飛舞余連聲讚曰奇

哉妙哉儘不誣戲蟠桃也兩娥舞了一面各就坐
丫鬟將六張椅兒周圍安排了八仙桌畔次芽兒
擺列着珍羞美饌殆非貪卒之需也因相對繞桌
而坐漫上的用完了命掇饌而進茶罷余向柳
生稱謝曰今日之會有勞賢郎多矣柳生連稱不
敢曰豈敢上上畧設不腆方自懂上更承此教右
切憫上余見其容色恬如言辭懇惻歡上然喜不
自勝右手執柳生之手左手執蘭蕙之手怡然笑
曰君之夫婦是天生下的不偏不倚兒一對好迷
也何如是才貌之相稱也蘭蕙笑曰爹上休要歸

華那有不偏不敬兒天生下的夫婦麼爹曰正是
要學俗態也余曰這不是歸華的便是渾俗和光
也柳生嘆曰細看來大人之率性律已無非是渾
俗和光也庸碌小輩豈不欽敬余曰君亦歸華也
便回顧繡花而問曰我的兒你的郎兒必與柳郎
一同馳名矣其然乎繡花但微笑不對柳生笑曰
繡姐何不言而只管笑吾當代你說個明白因向
余言曰他郎的姓吳名貞默年二十五與繡花同
住者已過了八載春秋而其玉貌英風文章才華
獨步一鄉且兩口情兒如膠投漆只願要生則共

榻死則同穴豈肯與生之夫婦同聲僅驅者哉故
笑而不言也言罷大笑余與蘭琴兩娥亦拍手而
笑繡花亦琅然一笑嬌妖之態更加幾分如奇花
之初開乳鶯之巧囀余不覺欣然撫其背而執
其手曰吾的兩個女兒真個是描難得畫難得的
一雙奇貨其做郎的怎不綢繆若反是非則這
是沒了個風流的又是沒了些人情的吳郎之同
榻共穴豈為異也哉因謂柳生曰繡兒夫婦事理
固然也君休笑他當自揣度君亦是困於香閨而
不能解脫者也繡花呵口大笑曰出乎爾者反乎

爾者此之謂也。爹之之言正如銓衡之平，絲毫不差。諺云：不知其過者善言人。過他的夫婦是有名的。班頭反誣我，以貧戀者。這不是好笑麼？蘭蕙笑曰：「關雎樂而不淫，哀而不傷。吾之夫婦是不淫不傷者也。」繡花曰：「吳郎是一個卻缺轉世的，復何論？」梁鴻孟光但恨有事於龜城，不得一拜於吾爹也。琴心將舌兒掉了一掉，曰：「繡蘭兩姐好沒分曉，不管日已仄西，只管爭些口角麼？快些動起樂來。」諸童應聲一齊兒彈的彈，吹的吹，打的打，八音迭奏。於是三娥調了喉音，并唱一曲。余驚問曰：「這是關

東別曲也天涯海角寥々隔絕聲氣不相聞矣何
由而能學來者柳生曰數年前有關東一個豪士
來寓於生家而洞曉音律故學得此曲也余再三
讚嘆已而曲終又繼唱諸般曲兒聲清韻奇能過
行雲而琴心但隨聲而已歌闌兩娥起整著衣裳
雙々舞到來真個舞得好虛飄々瑞雪映空聲颯
々冷風拂面這一霎時弄得滿亭裡薰熱氣都掃
去了不留一些兒淨々的換做了一座清涼世界
矣余但呆々而坐把頭兒點了又點將手兒拍了
又拍眼不轉睛的凝視兩娥舞完了卸下了粧束

轉身就坐千態萬艷相映相射越想越奇越省越
好余失聲嘆曰大塊磅礴舍包真一靈英精粹之
氣獨萃於龍濟而篤生此人歟造物者或有私而
偏於兩娥者歟不意兒明珠寶璧雙二比隣而生
玉環飛燕兩二并世而出也兩人連稱不敢下鬟
又進茶而點燈余因起身曰日已昏矣城門將闕
沒奈何只得告別柳生曰夕飯已備願大人勿忙
些遲了一步兒余曰豈敢再勞賢主吾決不敢應
承了柳生未及對繡花進前來把余之袖曰爹
怕甚麼門限使從者一吩咐於守門者足矣管甚

麼城門之闕與不闕耶兒亦設一饌以備夜饌也
願爹曰再留尊步一些時兒蘭蕙又來挽余手而
坐曰爹曰在女郎門上盤桓幾時有何害理反恁
般打攪端曰是不打理的事請爹曰舒心坐一坐
余感其慇懃撫而笑曰我兒呀你是至誠種我當
聽你曰且謾些柳生一面吩咐從者使之下令於
南門守者一面命曰繫進夕飯來琴心連聲大啼
曰沒了個女兒的便難做過點繡花將星眼一睸
曰胡說除非爹曰更有甚人怎能向此雖有百千
個女兒的難道他到得此地也余曰兩語俱是不

打緊也停了些喫了現成的飯甚好因命丫鬟將
夕飯擺設于八仙桌兒上圍繞而坐下箸畢再飲
一甌茶逍遙於亭上是夜雲陰班駁月光有時穿
漏大風從東南驟起景色不佳蘭蕙曰爹已請外
軒去了遂一同進外軒未使左右將琉璃羊角珠
毬等各樣燈兒掛著得傳當一齊點起燭來光輝
照耀如同白晝柳生於案上取下絲桐按在膝上
調絃而彈下指之法精妙如神三娥輪流唱歌各
盡其才歌聲繞樑簫鼓喧天不知夜之將闌矣只
見一個女童自內而出向繡花耳朶畔說了幾句

話鋪花但點頭那女童轉身回去了火寫左右擺
上夜饅來江海之味山野之品無不畢陳熱騰
湯矣之羞香噴之餌糖之糕余驚曰鋪兒呀你忒
差矣吾有何福能而有此厚腴耶鋪花曰這是些
少孝養之具乃是做女的份內事也管甚麼福能
不福能余曰雖一粒之菽一勺之水亦足為養必
須食前方丈可謂孝歟鋪花曰願爹不必更題
受我一拜因敬香茶一盞拜而壽之蘭蕙亦獻茶
為壽并唱崗陵之詞而侑之余一連吃了兩鍾茶
分些桌畔相與喫完命撤去而點茶各淨了手因

吩咐諸童俱各回去訖蘭蕙謂繡花曰琴心是個
同志的再無妨礙之人令我與你試了一技要悅
爹口未知繡娘意下如何繡花但含笑點頭應諾
蘭蕙欣然顧謂琴心曰你只將歪兒打了中靈
山而吓些兒少商之音遂與繡花各持兩口繡鸞
刀跳下庭去舞得神出鬼沒的本事來這一回非
同小可起初來如流星落地亂絮彌天漸看來如
萬度銀蛇爭鬪空際千尺素練縈迴庭中氣凌
毛髮豎起風颯上宿鳥驚飛捱不過燭影亂舞捺
不住湘簾掀揭余不覺喪了氣奪了神只得睜口

呆口穩做了木偶泥塑怎認得誰蘭誰繡那曉得
是真是夢而已使完了八九元功之數放下雙刀
走上軒子來分坐于余之左右曰兒等敢以碌
劣之技冒忝尊眼萬望爹之休要見怪余始得
收拾了些精神謾之的答曰我的兩兒真個是天
有意而成之生下了一對奇貨也我今日以後始
知泰山之高滄海之深也因讚歎不已兩娥嘖眉
曰爹之何出此過濫之言要置兒等於何地也余
歎曰吾舌強口鈍恨不得盡情的一讚還稱過濫
耶兩娥又稱不敢徐謂琴心曰咱們不管好歹

了個一丘慕義的誠兒一味兒做了今日之會然
怕的是府尹忌的是使价戎之慎之如馬蹄刀木
瓢裡切菜漸得水洩不漏倘或漏洩恐後來為累
不淺琴心大笑曰吾口雖小可以重則重不可以
比諸尋常之口也豈待叮嚀而後已哉然而諉云
晝言聞鳥夜言聞鼠雖自謂暮夜無知的話兒尚
猶昭載於史冊何況今日之事乎假使難掩設有
暢露這尤不打緊的事怕甚麼府尹忌甚麼使行
耶那時節吾當再出妙策計兒管教他無奈何矣
放了些空慮美母容多心柳生稱善曰琴娘之言

正合吾意古語云今朝有酒今朝醉莫管門前是
與非正謂此也管的是不打緊怕甚的余正容曰
只為咱一個不死的拙漢有累於他日者是可忍
也咱不三思以有此誤嘆奈之何柳生連忙對曰
這是蘭之空笑鋪之忒慮大人莫閒管放心罷那
有他慮余未及荅蘭蕙笑曰這是琴兒之嘴忒油
滑恐有多嘴故戒其如飛沒了他意爹口不必多
慮琴心鼓掌而前曰現今難得者琴心千金之口
也豈特比於季布之一諾乎他們倘有辭窮便將
琴心做了前驅吾雖不較爭豈無有憾於心乎余

曰非智且勇焉誰當前驅這是琴兒之一樁勝事
及要埋慝蘭蕙呵上大笑曰爹上之言如醍醐灌
頂五心俱爽矣琴心笑曰五心之爽不爽休題鷄
亂呼而天將曙大家散了罷余白話柳生日何可
如是願大人暫此就睡明朝還次未為不可余曰
不可上何可再得打攪柳生與蘭縡等再三挽
住余執意不從因起身曰再明啓程時吾誓一造
當告別矣言訖遂分袂而下得堦末三人隨即下
堦送至重門之外余之坐騎昨暮已為柳生之暗
地打發去了備下了一乘煖轎矣余與琴心別了

三人打了轎子行至南門之外東方既白城門已開遂催行回至寓所細雨始霏而下矣

十六日雨終日注下夜同留灣

自既明細雨霽而來至平朝漸霽注下只得使從者整頓行李準備停當獨倚旅窓細想昨日之事便似酩子裡做了南柯之夢殆非真境矣因暗嘆不已遂寫下了三箇萃札結了方勝開了箱兒取出檀摺扇薛濤笺四色朝珠香五色花笺壽字腰帶幾件東西分作兩包封好了命侍者齎送于蘭繡兩家而已回來呈上三人之書拆開視之語

畧而意盡一字已無非是傾肝吐膽余撫膝嘆曰
異哉此人也恁般至誠種再難得其儔矣因反復
玩味不忍釋手琴心自內走出來向余問訊畢笑
曰尚公得無困憊耶何不就睡反來看書麼妾好
睡了一頓方纔梳粧也余曰你必困惱矣琴心曰
已睡過了一個時辰怎麼再困余曰你用饅麼對
曰姑未也余使左右催進朝饅來相與喫完了叙
出蘭繡之事正在咻囔有一丫頭自內而出以其
母命召琴心入去了兩尤暴注而濟吏來告曰梧
木浦水漲溢不得渡橋而觀今雨勢亦難速霽故

符次日字退定於十九日也余愕然曰為雨所滯
又為淹留世事之不如意者恒八九者儘不虛也
因推窓凭几瞻望雲天獨自消魂忽兩女冒雨打
傘而來乃軟玉妍香也年皆十五而面如芙蓉眸
若秋水眉如遠山腰似細柳更蕙姿性溫柔歌舞
趨群余甚奇愛呼為我女而此女亦稱我為爹者
也一見其至萬種愁緒盡向雲裡去了一抹和氣
忽從眼角來了急忙執手而言曰我兒來何晚耶
二娥笑曰兩裡景色倍加清新爹上何不一賞獨
坐吁鬱向也余笑曰你言誠是矣然行期退了些

幾日我非木石豈無思鄉之懷耶軟王連呼爹
而唾于膝上琅然笑曰天呀
願使此雨限數
月不霽也余曰何謂也吾不解你話軟王又笑曰
雨若晴霽則爹
必起程故願雨之不霽也余換
其背曰你之情私雖至切而然其於我步月不寐
何妍香又呼爹
而前曰爹
只知道家鄉反踈
了我兩兒也我等既忝爹
膝下則亦皆有離闈
難捨之情願天使雨限一年不霽也余曰你言差
矣王程有限豈有滯留一年之理又有一年不霽
之理乎假使幾月不霽則必當冒雨行程矣其苦

更何如哉軟王曰閑話休題當以好箇曲兒聊慰
爹之懷可也遂與妍香并唱江湖之詞已完又
唱處士之歌已喉清奇聲徹雲霄余連聲稱奇曰
奇哉吾兒之唱也當獨步於灣府矣兩娥又唱春
眠之曲韻益清和令人不覺怡然開懷矣已而進
夕飯與兩娥喫完繼又張燈雨尤注下而彩鳳真
紅又冒雨而至兩娥亦不歸或歌或舞不知夜之
將闌矣

十七日雨夜同留灣

昨雨連曉而來盡日不止只得不發兀坐納悶午

牌時候彩鳳與真紅相携而來此亦如軟王之呼
我為爹者也皆在於副房而每日一來或朝暮俱
來必慰懷而去其情誼可尚矣彩鳳年十七雖無
娉婷之態還有豪爽之氣善戲謔而好言笑真紅
年十六體態豐艷容止安閑儘可愛也彩鳳笑嘻
嘻走將來問候畢使真紅擊缶因起舞嬋妍如丹
鳳朝陽踰躑如野鶴盤旋余曰此何舞也彩鳳曰
爹二縱能洞曉得音樂至於此舞想難曉得余曰
委實不曉得彩鳳笑曰這不是瑤池蟠桃舞飛燕
掌上舞又不是江南採蓮舞楊妃霓裳舞更不是

村野巫覡婆娑舞公孫大娘渾脫舞這叫做彩鳳
悅親舞乃世間之所罕有也爹曰呀真好麼不好
麼余笑曰舞之好歹休題你的顏樣真個可笑言
猶未了琴心自後堂走出來以手打其背曰此舞
我獨自曉得了彩鳳曰你怎麼曉得琴心又以脚
尖兒蹴其股曰這是狂女病風舞吾怎麼不曉得
彩鳳且舞且叱曰賤丫頭沒了個分曉只憑着滑
油嘴要壓倒了俺老娘麼恰似蜻蜓撼太舉動不
動秋毫之末矣你有多大手段敢來太歲上動土
扶來和我試了一試琴心笑且罵曰吾乃堂上正

正花錦般的一軀芳身那可輕易比試了如狂如癡的佻舞也你可正睛看了我稀世的舞也因謂真紅曰你但以角宮之聲迭打缶來吾當試舞遂整一整衣裳舞了一回兒起初來如鶯穿柳幕蝶弄花房却後來如龍翻滄海席躍山林余連聲稱竒曰這是甚麼舞此兒之稱稀世者信乎其然也琴心舞完了墜千余縵余忙問曰舞名云何從何學得妾實難解也琴心對曰這是宣廟祖還駕時軍中之樂也叫做得勝奏凱舞今春有一老翁自稱九月山人來寓妾家數旬教以此舞故灣府

諸妓中惟妾獨知再無學得也。正言間，彩鳳跑過來，如席攫兔的一般兒，將琴心挽過來，摟在懷中，交了一口猥了香腮，連叩其背曰：「我的心肝，我若做了男子，漢那虛度今宵一刻，直千金因緊。」抱住原來彩鳳是個嬰，烈的琴心是個嬌，嫩的，雖用手兒推了幾推，又將身子翻了幾翻，如何擋得他過？那能敵得他住，只得穩穩的，任他摩弄，由他，偎襯，但叫了連聲，哎喲，亂罵了幾句。王八余幾乎腰折，坐不穩，住真紅，省不過，將歪策兒向彩鳳頭上連打了幾下，笑且叱曰：「亡女亡。」

女這是甚麼額樣不管傍人之恥笑敢在爹面前恁般撒潑彩鳳哈大笑道這是悅親之戲小丫頭全不理會還來打我你看來爹喜麼不喜麼言罷轉過臉來又把琴娥親了數口琴心不耐煩亂嚷亂叫曰王八女快快撒手快快問殺我悶殺我也彩鳳尤緊樓住曰我的心肝你怎麼埋怨我假使你為富豪之所逼辭不得伴了一個虔陋漢偎玉倚紅闌了一夜你沒奈何只得忍着氣暗叫苦這時節你想了今日之戲如隔霄壤恨不得再造一會矣又親了幾個嘴方纔撒

了手琴心又罵了幾句向余笑曰願尚公猛打那
潑女治其狂妄之罪彩鳳瞅了一瞅曰小丫頭再
要吃我的手改麼言訖又要動手慌得個琴心怕
其又纏叫一聲哎呀急忙挺身來坐余膝上曰狂
女又來了快打狂女而救我一救余撫而笑曰惟
我在怕他怎的這是彩兒之出於旣親也你看我
老臉劫莫厭苦也琴心將雙蛾一鎖做了恨態曰
屈殺我屈殺我也余驚問曰怎叫屈殺琴心嘆了
一口氣又作色曰若再有一彩鳳定然濟妓無有
了遺也余愕然曰你說那里話琴心曰尚公但率

惹於彩鳳之稱女呼爹好和歹不做採一味兒攬
掇他無半句兒刺了他只除了一個彩鳳更有他
半個影兒正是忒知道潑口罵口一彩鳳那顧得
清口冷口孤琴心余將琴心雲鬢摩了又摩掃了
又掃曰我兒你口如懸河真沒遮攔你休惱怒聽
我道來余是清淨法身無內外骨中那掛一絲頭
天雖高而露不偏私地亦大而春無高下余何獨
厚於鳳而薄於琴耶芙蓉生在秋江上不向東風
慙未開你休埋怨我快做了我的女兒罷只為你
一霎時變了臉來險些兒將我軟肚子幾乎磨消

了琴心含嬌含笑樓在懷中叫一聲爹曰方纔
說的是假做的請爹曰莫認真舒心懷勿煩惱余
不勝憐愛抱而撫其背曰我的女孩誠難得曰
曰彩鳳笑不住謂真紅曰我的爹曰迷於狐狸精
軟做了一包麩帚琴心將舌兒吃了又吃曰沒正
經的云女狐狸不狐狸且休題那有做女的稱爹
曰謂麩帚者耶彩鳳大笑曰你好呆裡撒奸綿
裡做針弄得我爹曰軟做了一堆反罵我沒正經
你非狐狸而何琴心纔要啓口真紅叱曰你等好
沒道理爹曰務程隔日我等正要心焦腸忙還有

閑工夫只爭口氣麼休要爭快來擊在我唱一曲
俚歌慰了爹亡離懷也言訖提過在來擲在彩鳳
之前因唱山有花一闋繼以水有注一闋始其平
和也怡悅如春歸東園萬花爭妍婉媿如鶴舞青
空雲影霰蘼及其亢厲也鏗鏘如鐵馬之亂鳴琳
琅如玻璃之爭碎亟其終也如露下林梢滴滴銅
壺左右莫不聳肩余擊節嘆賞曰奇哉異哉吾兒
之唱也曾聞於南來之人再無一人能解者於今
忽有之這是嶺南古詞世所罕知吾兒從那裡學
來真紅對曰兒幼時學得於嶺南老客熟兒是好

靜不好動的如驥之遇伯樂而鳴雖閱歷幾度
使行欠小了一個知心的曾無對人一唱也今爹
二彈盡內外虛心相待兒曹猥蒙咸愛感悚未并
不容于心因此上敢試荒陋之詞要我爹二一笑
也余嘆曰賢哉你言也你之恁的安性這般志槩
那有不遇之理乎真紅但唯二不語彩鳳只得與
琴心并唱農歌一套歌猶未闌左右張燈繼進夕
飯而諸娥齊來遂相與喫完了又茶罷諸娥互相
頑耍了一回且歌且舞至曉而散

十八日晴留灣

昨雨至曉止日色晴霽左右又將行李整頓得齊齊再無可點檢者余還無聊只得呼茶連飲忽見一個小童口稱柳府侍兒呈上一札余接開視之乃柳生書也大畧只送一乘軟轎毋帶一個親隨請立地暫屈云云余暗想道這是不去亦難去亦難也却怎生是好若要去時管的打攪不淺於心何安還不去時縱然靠負美意却得乾淨遂寫謝書一度付與小童云云接在手中因問道老爺那時命駕否余曰吾身子有些不平似難赴會小童微已含笑自懷中又探出一封書來雙手呈上曰

娘子預度老爺之新行囑咐小童再三叮囑余又
坼開視之乃是蘭蕙之書而辭意款曲情思懇惻
無一字不出乎裏腸矣余感嘆曰這個至誠種我
如何賴得過我若不去則便是俗子鄙野之態不
是好漢個儻之意我何拘焉遂起身下堦坐于轎
中下了門簾驕夫擡了如飛的跑了早到了柳府
夫妻兩口兒階階相迎陞堂坐定兩人齊聲問候
畢侍童進茶已罷只見繡花自角門裡笑嘻嘻已走
出來施禮坐下因歛衽曰兒們姊妹明當送了幾
程忒已拜餞而無奈裙釵之有礙於耳目萬不獲

已敢昧死而坐屈尊駕雖是反常打理的事亦出
於一時之權也萬望爹○海量寬恕罷余笑曰我
兒說那里話你們是傳粉着裙的那有一程二程
相送之理乎我是挺○器○男子漢那做叨○絮
二女孩綢你休將嫩語花言粧俗態快些兒瑤琴
鳳管散羈愁繡花笑曰這是真個訴衷腸如何粧
俗態當以三尺枯梧一套新曲替爹○散悶蘭蕙
亦笑曰我只管理絲桐你好的唱了曲子來余
滿心歡喜連稱善○蘭蕙將瑤琴橫在膝上調絃
而按譜彈之繡花把檀板拿在手中開喉而依律

歌之聲和韻協越清越奇恰似環珮琳琅風馬耳
璫又如龍吟滄海鳳鳴朝陽聽者莫不怡然如
在春風大雅之中余咨嗟良久曰造物之成也偏
私者儘不可知也已而曲終左右進茶繼又擺上
宴來湯麪蒸糕膾炙果菜之屬不是我國之製却
是中華之羞此諸向日大是迥異真個是珍羞百
味般般美異果嘉肴色色新余驚曰何若是費心
之多耶早知恁般想當初不如不來之為快活也
柳生笑曰大人要學瓊屑的話頭麼何乃諄
然不憚煩耶余亦笑曰我正是朴屑的一

個慳漢管甚麼瑣口屑口那曉得裏口烈口一味
兒只做了賁口實口繡花琅然笑曰爹口說的都
是謊那有賁口實口之理乎余曰你莫這等講我
生來不會說謊繡花曰爹口有云早知恁般四個
字這不是謊那是謊余愕然曰這是胡說繡花曰
自古道無酌不請賓今日孩兒們正要告別爹口
而設此一席矣故爹口之謝却柳郎之書者良由
以也而兒們亦仰揣爹口之意故蘭姐之書從後
呈上者即此意也這席之設昭口然如照掌物而
爹口說甚麼早知恁般想當初不如不來請爹口

再想一想這不是謊伊誰之謊余不及答蘭蕙呵
曰大笑曰繡姐之於爹二真個是沒黯也余亦笑
曰你們是懸河之口如我老實之人怎能抵得過
我委實偃旗了柳生忙向蘭蕙而正色曰大人雖
然或愛你們怎敢恁的多嘴休要放肆須要小心
余笑曰那有放肆這是笑話望恕二罷繡花滿臉
堆花斟茶而前曰願爹二萬壽無疆因再拜為壽
蘭蕙又獻茶為壽曰願爹二百世永昌柳生亦拜
而祝之余整容欠身曰賢郎休得過禮我是個不
才不德的越分之福難得消受柳生鞠躬謝曰這

是咱們情理的事於今大人反稱越分何也小生
是熱血腔子不是要譽的願大人無容多謙余嘆
曰慙是何言也我感賢郎之虛心相照兩娥之至
心相愛蘊於中而發於辭者也那有些矯謙之理
乎蘭蕙笑曰我聞君子不稱德不譽人爹二何德
之深而譽之甚也柳生曰大人是誠信君子吾們
只管一納頭欽敬也便當了蘭蕙更不打話笑嘻嘻
二將一碗湯進於前曰這雖軟燒而頗些清美請
爹二嘗了一嘗余接過來試吃些兒其味甘辛清
香非比於大陵河之軟燒湯也余笑曰有趕車者

初至大陵河買吃了軟燒湯愛喫不已逗遛幾天
盤纏罄竭先賣其驢次賣其車而空手回去者此
湯之美倍勝於大陵而吾亦沒了個錢鈔矣將賣
甚麼東西而償此乎諸人皆笑曰吾們不是討價
的願爹亡勿憂空囊雖盤桓了幾個年頭吾們情
願不辭余笑曰你們將以這些湯欲牢籠我子繡
花笑曰兒們小不得牢籠爹亡而爹亡沒了些情
兒只顧冷落了我們亡亡是軟肚子不像爹亡之
恁般剛亡恁腸已成寸結矣余曰我兒莫說這樣
話吾亦軟腸的不是冷落人依你們說雖欲盤桓

了幾個年頭無奈王程原有限那堪清夜起彷徨
因嘆了一口氣繡花愀然沮喪曰嗟乎人生幾何
比若水中之漚雖曰七十人皆是乎幸而得壽除
病瘦喪死憂患其中開口而笑者一月之間不過
四五日矣不能悅其志意養其命壽勞力勞形傷
心傷氣只得出沒於苦海風波之間不能脫離於
業火炎熱之中吁嗟悲夫此生之艱苦自如是也
加之以離合之無定聚散之無常忽焉而離忽焉
而合倏然而聚倏然而散如太虛之浮雲無而有
已而無恍惚莫測人於其間不為斷腸消魂者能

有幾個乎這正是歡娛不可極別離又相隨者也
明朝即別離之場而再無承顏之日從此音容相
隔於天涯海角夢魂空馳於曉月關山想到此地
越己的寸心冰冷矣這便怎麼是好言罷王容慘
淡珠淚溼瀾蘭蕙亦不勝傷感但以玉手托了花
腮脉脉無言而秋波乍動於雙星矣余不覺酸楚
起來一般兒呆己的望着諸人但長吁數聲左右
莫不生感景色蕭條柳生亦慨然良久乃嚙啜而
笑曰離合聚散萬物之理人事之常故唐之陳玄
奘不離胞中其父為賊所害沒於江水繞出母腹

棄諸江上故名曰江流然卒得父子俱生一門團
圓木蘭是一個女子而揆着男粧代父從軍這是
永訣然結識竇公主線娘於行陳之間幸得同歸
於羅成而父女團聚宋仁宗皇帝即位數十餘年
母子不能相識矣包龍圖始得認辨而設了個假
冥府請御駕於森羅殿中子母相認俞淨意先生
失其幼子者為幾年矣後至京師偶爾相逢這正
是踏盡鐵鞋無覓處得來全不費工夫也當其散
場宣期有這個時候也磨盡了多少苦惱之障終
得補其心懷由此觀之殆造物之所為非人力之

所致也。古語云：有志者事竟成。我們豈無如許之時乎？若使大人或一年半載之後，再作此行，那時節好工的迎候而來，放開懷抱，大家重歡矣。怎不想他日之歡，而只做了今日之愁耶？這叫做「楚囚之悲」，徒增無益。便是對景當歡，那顧得明天之哀，不哀苦不苦哉！言訖，取了絲桐，按在膝上，彈一彈一個曲兒，未聲韻，彰婉高，漸益和悅，恰似南薰殿上解吾民之愠，芳靖節堂中悅親戚之情。懷余建工稱善曰：美哉賢節之手法也！雖師曠執策無以過也。兩娥亦喜從眉生笑，逐眼開蓮臉，生曰：俄

纏於煩惱魔障九回軟腸險化做灰燼矣因使左右進茶各吃了一甌整一整衣裳調喉而歌其聲美妙越聽越奇余欣然撫掌而笑曰今而後纔得脫煩惱業障爽然若翱翔身白雲鄉矣已而歌數闋有一個丫鬟自外而入向繡花低說了幾句話繡花只將頭兒點了又點那個鬟向外飛跑去了少焉那個頭又進來將卓兒拭淨了一回兒只見衆丫鬟們或奉碗碟或擎盒兒或持匙箸紛二擺在桌上珍羞舖滿臭香撲鼻余心裡暗忖道這又何說待欲語時必為他們之所纏矣不如噤口

之妙因含笑不語蘭蕙早揣了我意柔聲告曰爹
二含笑不語敢問何為也余曰要學天公蘭蕙曰
怎麼學天余曰這是天公之無語故也蘭蕙輟然
笑曰有人於此設了個社會少長咸集乃盛設酒
肉誓之曰有能不語一箇時辰者待以上賓另供
一卓皆曰諾遂銜口而闐寂無聲不踰幾刻有一
個不耐煩的忽攘臂而起大聲吆喝曰縱然諸佛
盡涅槃現今那無出世佛我是新出世的佛爺快
進齋供來諸人皆大笑稱快獨有一人不言不動
那出世的向前問曰你甚麼不言你要為上賓而

另討一卓耶其人答曰吾要學佛子曰學佛怎的
曰不語故也那出世的拍手大笑曰這不是言是
誰之言其人忙答曰吾忘却了亡亡今日爹亡
之要學天公比諸學佛將如何我竊料爹亡怕兒
們之多嘴必假學天公也言訖左右皆笑余亦大
笑曰我是口舌的你是喋亡的吾如何當得過你
言是矣也罷亡亡大家又笑了一回却就倚上繞
卓坐定兩兒將醍醐湯盃亡的斟於玉盃進於前
雙亡拜壽但見他蓮臉生春柳眉生花百般嬌
千般嫵娜越現得縹緲余不覺心暢神怡萬慮俱

空因失聲嘆曰吾今日始悟得空字繡花曰經云
六塵心識本來空悟得空時成正覺爹曰怎的悟
得空余曰吾受你們的多二孝敬業火自消萬慮
俱空這不是悟得空耶繡花笑曰爹二呀這不是
悟了空反着了迷也余曰怎見得繡花又笑曰兒
聞得人說空者六根皆清萬緣俱寂能入於無生
無死之地謂之空今爹二愛着兒們迷於歡娛而
萬慮掃如依倚若空二者也這非着迷而何也余
笑曰吾正要借此好個機會萬慮俱空之會庶幾入定於
空矣却為吾兒之打罷關頭早得空門緊閉渺無

津涯吾之功行尚未圓滿而然歟抑亦緣薄而大
運未到將有所待者而然歟中心團圓彷彿乎懷
着鬼胎矣蘭蕙笑謂繡花曰你怎麼打破了甚麼
關頭致使爹已迷失般若之路難證菩提之果你
我雖是姊妹之間却不代爹而理恁你耶繡花曰
非也不是這等說爹已錯入於假空之門便忘了
正覺之源故猛撞了五更鍾兒除却了六塵魔頭
正是一鍾醒破昏迷障片語證明真實相也我是
凌雲渡頭接引尊者蘭姐你莫想埋恁我杖與我
一盃賀酒蘭蕙曰然如吟我不曉就裡之細白

地理愿殺指路高僧我當替爹賀你一盃蓮蒲斟
紅露迤與補花_二欣然接過來呷了一口向余
微_二含笑曰這非蘭姐之所賀便是爹_二的所賜
故不敢推辭猥吃一滴望爹_二寬恕罷余見他兩
個品賦特異志氣豪爽心窺明達慧頭開悟骨襟
若無所掛碍淡_二乎如秋水之盈_二且言辭雖涉
諧謔而自有條理不失根因其微妙之機每見於
造次之間大有所覺者也縱然傅粉着裙女孩兒
勝他讀書學禮男子漢因暗_二的嘆羨不已謂柳
生曰兩娥是天生下的奇異種我每對他如接高

士怕有見失自然得點檢了些柳生未及對兩娥齊聲同應曰爹已又來了兒們却不是甚麼天生下的又不是甚麼奇異種的便是爹的一隻掌上珠也言罷兩娥皆大笑余曰善哉已真個是吾之一隻轉不刺的掌上珠也柳生亦笑曰他們敢恃大人之錯愛沒頭沒臉的亂嚷亂講不像個少的們欽敬之道願大人打他一頓毋容再肆繡花笑曰如今叔已攬掇爹已要打我們已爹已着愛的設有不是惱了爹已罪固當答我們連叫了幾聲爹已爹已的嗔恚早已冰釋未槌之前

爹心先痛不忍加手於我們矣叔曰縱欲倚爹逞強其可得乎因蒲面堆笑雙曰向余叫一聲爹曰曰爹曰要打了我們麼我們正如嫩萼未經風雨撼柔枝難捩雪霜摧者也且今日尤是諸佛受齋日萬望爹曰饒了罷余不勝忻愛哈曰笑曰你們是天上落下來的一對掌珠吾不忍釋手將要佩于帶而愛護未暇那有一些兒閑工夫敢起了嗔恚之心這是柳節之欲難為你們而做了一個笑柄也你休煩惱快吃了現成的珍羞繡花曰叔曰雖百方難為了我們其於爹曰之錯愛不聽何柳

生曰你們之舌鋒好似梨花槍頭真沒遮攔余曰
賢郎亦饒他罷柳生亦大笑因更衣而坐大家共
吃了一回兒遂淨手吃茶罷日已向酉余悵然
起身曰明日當暫借一畧或來別矣聖勿起懷
諸人知其無奈只得相隨下階送于重門之外余
遂催轎而飛回寓所琴心自內而出問曰爹已往
那里而未平余曰蘭繡兩兒數日不見而鄙吝之
萌鬱陶於中不管好歹只得走一遭來了琴心歎
曰爹已之溺愛他們者一至于此想我們不如爹
已之用心遠矣余曰你們之於我可謂誠之至矣

心之極矣故吾之所戀戀不能自己者也琴心曰
兒豈能如是乎他兩個是烘烘熱熱的他能從耳
目之所好窮心志之所樂不費些工夫奉歡爹
以逞其仰慕之懷者也兒獨不然只得幾年家役
二於教坊之間鎮日裡汲二於營產之路莫能解
脫而沒有一些兒孝敬於爹二其獨無愧於心乎
因嗒嗒不已余知其意執手撫之曰我兒呀你性
兒溫存心兒柔善而且氣槩不苟舉止端雅這正
是樹德之基種福之田也切莫嗒恁尤宜修省平
生直要恁般做去倘有神人自祐吉星來照矣復

何患乎前頭之不彰耶琴心謝曰爹之之言誠極
感佩然兒之所以吁嗟者不是羨人之富愠人之
盛但恨眼底之冷落不想他日之歡譔爹之倘易
地而思必有倍蓰於兒心也余歎曰悃悃哉你言
也你肺腑吾已洞徹矣你莫煩惱閑散心罷為
爹的有何愛憎做女的有甚猜嫌形分而為父女
心合而為一理更有何一些之疑耶吾當替你令
晚特設一個別席矣因吩咐左右使之備辦琴心
跪在膝前以首頓地曰爹之真個要闕殺我耶兒
雖不敏面厚而不敢承當也余笑曰我兒呀既做

父女何嫌何疑而出了個面辱之說乎君以你為
穎慧之兒矣何其愚蠢之甚耶我兒呀當再想一想
想做爹的要聽這等的話麼琴心連稱不敏因含
笑不語已而張燈夕飯繼進余與琴心用饅果諸
妓遂陸續而來領史紅裙蒲堂正是飄輕裾拽長
袖粉白黛綠者列屋而間居如寵而負恃爭妍而
取憐者也惟香春彩鳳等十數娥乃呼我為爹的
各圍坐于余傍歡_二喜_二的齊聲問曰爹_二又作
冬行麼余曰不可逆想者世事也余亦不知余的
事也軟玉笑而前曰爹_二呀倘不作冬行兒們當

涕泣于旻天矣余驚曰吾不解你們話軟王曰怨慕也余曰這是大舜耕於歷山而涕泣也今有甚麼可方而然歟吾委宗難解軟王笑曰爹亡不念我們之情悃只顧行役之勞苦必不肯復圖此行這時節可憐呀空使我們日登聖宸樓北向長號聲亡叫了沒愛情的爹亡矣這不是怨慕而何也余笑曰你們乃敢自比於大舜而比我於瞽叟耶軟王嬌笑一聲連呼爹亡坐在膝上曰豈敢如是請爹亡莫深究因抱在懷中不做口的呼爹其嬌容可掬艷彩射人余不勝奇愛以手梳其雲髻曰

棗核大能小孩子狠利害會說話這般古話你如何解得來軟玉笑曰聞得人說棗之最大者莫如交梨火棗那火棗之大不過於我小口的拳頭况其核乎兒雖纖口的矮口的三尺身軀據爹說來反不如棗乎余以兩手輕口的抱起舉了又舉曰比諸棗核畧重了些兒還有多少大哩左右皆笑軟玉亦笑曰比諸虫臂鼠肝反不勝耶余撫其背曰奇哉你言也你是天生奇才真個是我的兒也正言間同行李進士使人請邀余謂諸娥曰你們當少坐吾便往而直回因起身至其寓所則與其

所丐妓真香設一酌要為相餞也余只吃了幾個果子而李進士乃飲小輒醉者也為真香之所逼已為酩酊矣真香因唱別離之曲余戲吟一絕曰
一朶名花分外香臨風嫵娜惹春光樽前莫唱別離曲扶醉行人枉斷腸因謂真香曰你將攝精抽神的手段休得逞強權且按住使李上舍無憾上京也真香笑曰小女天性愚頑不曉得甚麼攝精抽神的法兒望相公休得取笑余曰怎麼不曉得夜已深早些穩睡罷真香笑而不答送余至滴水簷前余急止之曰香娥呀母容多心扶些歸房真

香口稱不敢轉身向房裡去了余遜忙步而回諸
娥起迎曰那邊可有甚麼緊要的事情麼余曰非
也這是要別真香故也香春哈曰大笑曰他誠歎
哉要別真香何關爹曰他兩個如鸞似鳳的相對
穩享乃是正經的便靜中取鬧為甚請賓余曰這
是出於同鄉故誼也何謂歎也左右將樂器擺在
當中諸娥各分管而歌唱吹彈俄而月出於海雲
東畔綠烟滅盡清輝照耀久雨之餘心神爽快余
仰天而賀曰蒼天照我心由賜此令夕也軟玉會
意笑進來坐於膝上而叫一聲爹曰天不從我

而反從爹二何其不均也彩鳳忙問曰這是甚麼
說軟玉曰爹二急於上京數日之雨殆同九年之
水我曾對爹說限幾個月不霽矣如今天氣恁般
晴快明日好二的啓程故爹二所以謝天謝地也
這不是天道之不均耶彩鳳笑曰爹二要晴乾你
們願下雨天欲從爹則你們之不願也欲從你們
則爹二之所苦也其不亦難乎天乎二二何以為
天二亦無奈何也若有齊天大聖之定身法兒釘
住了爹的馬蹄庶乎幾矣只除了此法更無他好
個方兒余笑曰不忒定身法連解身法兒也我都

已會得雖有齊天的大聖委的沒有施處彩鳳失聲曰這又使不得便怎麼是好琴心吐的一聲曰你們講的都是空筭再莫想說出這般話來只禱了爹亡之再作此行也余曰你言是也因吩咐催進夜饌來擺在卓上水陸畢陳矣余謂諸娥曰這席面是琴兒之要為壽而設也你們亦照琴兒一切為壽也諸娥皆曰當遵命矣彩鳳笑曰爹亡要飲酒麼余曰非也然則何以為壽余曰不飲者不為壽乎真紅以手連打彩鳳之肩曰這丫頭真個戩也楚王之設醴酒這是申生之不飲故也以醴

代酒可也。以茶代酒可也。據你說來，必有酒而後始可為壽乎？倘為禁酒時候，若值了爹娘的壽誕，拘於酒而不為壽乎？彩鳳無以荅，但憮然強笑曰：吾近日害了怔忡之症矣，又添了健忘之症。葫蘆提如在醕子裡昏，然難醒矣。琴心笑曰：這潑女真個語塞也。懸河之舌安在？如是粧攢耶？彩鳳大聲曰：百戰百勝，非善之善者也。古來英雄嘗有一敗之時，而况傳粉着裙之彩鳳乎？你莫笑我，扶些獻壽罷。琴心又笑曰：這廝雖欲強辯，未免糊塗也。因斟香茶再拜而進，曰：伏願爹、壽考康寧百

福鼎臻彩鳳亦拜而獻茶曰非酒亦非茶仙人掌上露打破真玄竅各登白玉樓祝罷軟玉繼而進茶曰泰山之高芳眉壽如之滄海之深芳擬福如之松柏之茂芳家道如之蘭桂之芳芳子孫如之爹芳仁仁如金玉之美芳娘芳仁仁如琴瑟之調芳左右無不稱善你亦讚美不已真紅笑曰何苦恁般說出許多話來我只說一句便罷因擎進一盃再拜祝曰願爹仁仁九如仁仁余曰善兩個字裡藏著許多話真個奇了又奇諸娥輪流歌而壽之余仁仁接過來只叫了仁一口壽畢大家圍繞而坐

相與喫完因出庭除道遙於明月之下玉露無聲
纖雲不動此夜霽色忒忒十分清新諸娥豪興陡
起如風之蕩而水之鳴焉一齊拍手并唱襄陽歌
衆聲清越馨徹雲霄矣餘興未了而此夜苦短群
鷄亂呼東天將曙諸娥紛々告歸

水垢陳目録六

藤縣日錄卷之六

五月廿九日晴和雨串館三十里中火龍川良策館

五十里宿

已後始自灣府起程諸娥相與步出街頭揮淚告別余以好言相慰遂策馬而至柳生庄上繡花亦在焉三人不勝悵感但含淚無語余亦眦口良久乃曰離合有數豈可力致勿以聚而為歡勿以散而為悲古之至人不悲不歡悲歡者人之六賊也母為六賊之所誤有傷秦然也柳生曰太人之言是也徒自傷心有何所益因吟附左右曰快口的

擺設來余驚曰擺設甚麼柳生對曰大人莫開管
傳了些一步兒余未及答早已擺上宴來余頓首
曰賢郎又差矣我斷難承當了蘭蕙愀然曰爹
何苦如此而孤了兒們的一后丹心也余曰我兒
呀放心罷那有些孤負遂與之畧吃了些兒因分
執蘭繡之手而不忍相釋頃嚔而咨嗟者數四只
見兩娥哽咽不能成語一帶秋水盈眸雙眶而
已余無奈心猿亂跳按捺不住失聲長嘆曰嗟乎
別離之苦也何若之極也古語云世間萬般哀苦
事不若生離與死別正此之謂也然到今思之生

離不如死別死者已矣無常也無常者理之常也
比諸生離反不勝耶繡花嗚咽曰正如爹之之言
生離不如死別生離者一在海角一在天涯兩下
裡捨不得這相思或於花朝月夕或於風晨雨夜
對景傷情觸物興感海涸石爛而不于休歲久年
深而無倒斲如山之高如地之厚茫洋無涯者生
離也蒼頡如何做出這個別離二字長為後世腐
心之瘡痍耶蘭蕙垂淚而吟一絕曰此地重歡難
再期關山阻絕正堪悲鯉庭已矣音容邈曉月紗
窗獨倚遲吟罷因掩面而泣余於此時如萬刃鑿

心仰天一吁而吟曰遼陽歸鶴那無期休向宸樓
望宸樓也動感悲目送征雲身阻立黃鸝啼罷日遲
繡花纔吟曰承歡鶴髮更難期千載空餘夢我悲
欲試霓裳斜一轉香肩愁壓故遲已吟罷又嗚已
咽已柳生亦賡吟曰今世幸逢鍾子期迤巡還惹
別離悲蒼空若照余心曲却使金烏晷刻遲吟畢
亦長吁一氣余暗想道若不將慧劍截斷了煩惱
業障這苦惱如何捨得遂將盥手的銅盆兒覆在
卓上猛撞了一下其聲哄已曉已兩娥訝然問曰
爹已呀這便怎麼余曰你們怎不記得還來問我

你曾對我說撞了五更鍾兒打破煩惱關頭這不
是五更鍾麼兩娥是天生穎慧的猛然省悟曰兒
們便忘了〇〇使爹〇受了一場苦惱障矣因
雙〇斟茶壽之曰願我爹〇退〇關山還旆萬康
寧〇雪候早拂征鞭余曰諾我當重圖今冬也遂
拂衣而起此時此情儘普天下之奇苦奇難處也
柳生只得拜而不語兩娥不拜而相隨至里門之
外拜於地下曰唯〇蒼天早遂此懷余執其手而
連補好在〇〇懶〇的騎了馬萬種春愁壓繡鞍
尚馬嘶風驕不進余再三回顧三人而叮嚀着重

逢二字望京進發正是一鞭殘照裡四圍山色中
矣余纔別了三人加鞭而行至梧木浦北望金石
之山涵碧於雲際鴨綠之水渺茫於野外景色十
分清奇頓滌行旅之懷也又行五里至樂門嶺透
迤峻急儘一大長嶺矣又行二十餘里至石橋河
上水溶上深可丈餘而構木為橋長可七八十步
橋之兩頭地面皆為水之衝破其廣可十餘步而
水不沒膝從者皆負於越川人而渡余驟馬登橋
至橋盡處又下水而渡始至彼岸又行數里渡一
文川未量抵所串館午餐訖復起程而行一路山

色雖因霽後倍加秀麗而但開春以來雨澤欠小
兩麥未免黃枯而始得沾濡於數日之需然嗚呼
晚矣不可救也一直策馬疾馳暮到良策館次于
聽流堂館底山脚下即一帶溪流也其聲如風之
怒號如雷之轟烈真個是聽流之堂也宣川妓娥
彩鳳即上使之所丐者才色雙美即獨步於宣川
一府而且於昨冬下來時偕往灣府相與周旋者
也前站而來先謁於余余嘗重其義而愛其才今
見其至如蓬家人含笑相迎叙了積年之懷因吟
附左右別設一饌慇懃款待彩鳳亦喜已歡已歛

枉謝曰妾猥蒙相公之殊遇復感大義之炳烈無
日不語及於相公矣今幸尊駕萬安東歸妾心忻
踴如久旱得靈爽豁若披雲見日不知說出怎麼
樣的話兒余曰你忒恁般委曲誠是感極已已彩
鳳謝曰豈敢已已余笑而咏曰俄於龍濟綏別一
鳳今於良策又遇一鳳芳已已其儀煌已已翱翔
千仞其將何之一止西一棲李枝李上使友之樂
之不可終極彩鳳笑曰相公亦會得談諧乎妾今
日而後始見相公之有些踈蕩也因歌已已而余亦
笑曰鳳娥勿得笑我快向洞房說長論短的告訴

了相思一遍彩鳳笑曰不是口口我沒有相思了
因起身去了余亦困憊而就睡

二十日乍陰乍陽氣候清涼鐵山車輦館三十里中
火宣川五十里宿

平明自鐵山移發行五里許渡一大川又行五六
十步又渡一川過子午嶺至西林遂策馬入城出
東門行十餘里到車輦館午餐訖復起程行十五
里過東林道路漸益平坦日候亦為清爽若以中
朝之輕車加鞭疾馳一日可行三百餘里矣過了
幾個山角渡了幾灣溪澗未量至宣川次于東軒

之東廂府妓山紅等齊來問候余忙執山紅之手而喜曰你是赤心多情的已於彩鳳口中間得你之問訊於我始知你費心之多而恨不得霎時會面也今纔握手喜溢於中不知如何之為好也山紅滿面堆笑而對曰相公乃誠信君子小女等仰之如赤子之事父母未嘗朝暮而忘於懷者越自暮春以至今日也想起來相公之用心必不如小女矣言罷大笑余亦笑曰你言是也余每披霜帶月飡風飲露馳驅於遼燕之野掛碍於身家之累未暇於自給何遑於他乎故我真個是不如你也

火馬左右進饌遂與山紅等吃完了茶罷彩鳳又
至分坐歌唱已而日暮張燈夕飯繼進又與共喫
了些兒命掇去而淨了手夜設項莊之舞此雖慣
看之戲然每當諸娥之粧出活口的真境來越看
越奇雖游夏之辯不敢贊一辭矣至夜深而罷

二十一日晴而薰熱郭山五十里中火定州三十里
宿

平明起來朝饌畢纔別了彩紅兩娥始得起程行
了多時至郭山界田野大闊麥穗秀長秧苗丰茸
而灌溉俱足無不移秧自北京邦均以來至于我

邦宣川之界共數千餘里之地一直枯旱三農嗷
嗷矣至於此方始見大有之漸自心欣口如在羲
昊之世矣郭山候吏在我馬首行指路傍一畝而
告曰此畝不怕水旱不畏豐凶一升落出一石者
也余曰豈有是理其吏對曰豈敢誣告余曰果若
你言誠天下之良田也正行之間望見直北上一
山聳立於雲際峯巒秀麗林壑尤美鬱然而深邃
者是凌雲山城也其名果不誣矣又行十餘里至
郭山郡午餐訖復起行自此三十里之間共有十
三峙路雖坦夷仰而上俯而下口而復上口而復

下其升降之際頗涉艱苦矣行過了諸時申後始
抵定州府已使即下來時平山侔韓台聖根也晴
昔辛未之後韓台統軍於昂足山城余以叅謀佐
戎於沁都相為刎頸之交也因握手叙懷以盡平
生之歡焉

二十二日晴而薰蒸嘉山五十里中火安州六十里
宿

平明自定州移發行數里渡五龍浦橋又行數十
餘里過月川橋至納清亭下馬歇於店裡此時
渾身俱痛百骸如搗有時乎身熱如火轉眄間背

栗如水頭暈神迷但昏憤難振然不得掩留遂硬
着心強着力忍痛乘馬飽盡無限艱楚僅抵嘉山
郡卧于下處因昏亡不省本倅亦着驚煎藥而送
左右勸進昏不知覺至申後纔得開眼醒悟扶而
強起始服藥少焉又進米飲僅飲了一鉢許然不
能動彈焉遂棄馬乘輪而行至五里程日已昏黑
因燃炬而行至博川津頭雖坐轎中前倒後沛茫
不知覺如是而又行渡小江又渡清川江至安州
北門外鷄聲四起曉色蒼茫矣下隸等因大呼開
門守門者應聲而出并三盤問然後開門遂入城

內行不多時到了下處扶而出轎僅入房中官吏
進米飲余纔飲少許又進茶連飲數鍾因為就睡
天色已明矣

二十三日乍陰乍陽甫川六十里宿

強病扶起飲了一鍾米飲已量登程不知道路風
物之如何但昏聩坐在轎中如木偶而行申後至
甫川府卧于下處監色亦進米飲此時肚裡告飢
因飲了一碗至夜而飲淡薑茶一鍾因昏睡不省
矣

二十四日乍陽乍陰順安五十里中火平壤五十里

宿

平明又強病而起飲半碗米飯一鍾清茶無奈何
只得乘轎卒抵順安本俸使家人問病冊室亦出
來問病余謝其厚眷但吃了米飯一盞遂移龕中
後至箕子墓下遂進了紅箭門外下轎步行上
了丁字閣前脚步荒亂東歪西倒左右扶持雖不
至顛沛其於聖靈之前自有惻惶之心遂抖擻精
神趨至長明燈下向墓四拜而退追憶往古不勝
愴感遂吟一絕曰興亡千載水東流往事悠悠已搔
白頭遺化八條今在否曉風殘月使人愁此時丁

字閣及香室齋宮一新重建敷工匠興土木紛
鬧。烘。熱。因周視了一回下了山未八七星
門由小巷出大街至練光亭憩于下處亦吃米飯
而卧日已昏黑左右掌燈昨午下來時相識之妓
頻多聞余回來齊來問候花言嬌語寔慰了病懷
半晌復告退夜深復有一妹使小童掌燈前導而
來笑嘻嘻開戶入室叫一聲爺。走近前來拜了
一拜再叫一聲爺。安寧回來余忙起坐而視乃
丹桂也不覺喜從心生笑逐眼開執其手撫其背
而連稱美。丹桂見我氣色之佳。因驚問

曰爺亡有何微恙而然耶何如是氣喘聲微眼倦
開而身懶動乎余因叙了前末丹桂頰眉而嘆曰
兒苦於各處之招呼閉門辭病故不知爺亡之欠
寧矣到了夜深無人今才來謁為女之情理顧何
在伏望爺亡特容寬恕余笑曰我的兒誠慣於外
歸矣你由何而知余之有崇也丹桂遂跪于膝前
叙了一回兒閑話因唱了襄陽歌關山戎馬春眠
曲漁父辭以慰病懷至鷄鳴而告歸

二十五日載陽載陰留平壤

平明強病扶起洗浴畢打扮着新衣手擎着檀香

肩輿而往七星門內西廟至山崗下上了轎徒步
而至外三門畫棟雕樑迥立于幾層石臺之上極
其壯麗遂由夾門而入西有一字翼廊東有一座
廳舍甚是軒豁向南而又有中三門亦聳立于七
八級石臺之上丹青耀日三門左右各有一夾門
遂上了石梯由右邊夾門而入管廟的持鑰而至
開了正殿後門如京城南廟之制因奉香而至榻
前拈了香行三跪九叩頭而退榻之東邊北壁下
有一龕安三位塑像中安照烈皇帝左安聖帝右
安桓侯東壁下龕內安武侯塑像榻之西邊北壁

下龕內安玉泉大師正榻前安四配位余遂各行
禮畢出了殿門周視左右廊廡但見得丹雘照耀
金碧交輝為西路上茅一壯麗而此諸景華則似
勝於南廟稍減於東廟然內外三門石臺之層疊
高聳齋室與典祀廳之軒豁宏暢有勝於兩廟矣
余少憇于外軒與典祀的叙了一回話因辭出三
門典祀的送于門外余遂催轎而回日晷已為十
點鐘候左右進朝飯白粥豆飯并進而豆飯極為
軟熟青芹香芥相雜而為苴茹味極清冽又有麩
菰菜雜以正肉畧干而細切如絲其味尤極淡香

關西一路誠希奇之需也余愛其香美捨粥而始
將飯數匙和於水而食又將菜蔬喫了幾個箸兒
適妓娥金仙來坐余因推床而使食之因謂金仙
曰余欲觀浮碧樓而無可意之伴侶汝其伴我乎
金仙對曰唯遵命矣余又曰獨汝一人頗為沒趣
然丹桂則稱病不出其餘房妓再無可意之人汝
能薦一個佳娥否金仙對曰萃姬最合於尊意而
見今閑在於家裡也余即使典禮之吏召之少焉
一妓右手打洋紗傘左手持太極扇兒冉冉而來
復有一童捧著衣裳袱兒跟來正是萃姬也但梳

粧而不施脂粉然體態嬌工肥膚澤工一雙星眸
如秋水之澄清八字蛾螳似春山之翠微兩頰工
芙蓉之暎晚霞丹唇若櫻桃之泛朝雨十指玉筍
纖工可愛三寸金蓮窄工可奇丰茸如花之解語
倚梳如玉之有香真個是一世嬌艷也余暗嘆曰
江山英秀之氣獨品於此人歟何如是出乎其類
拔乎其萃乎不久而西州之羅盡入於此女之手
矣因問曰芳年幾何對曰十六歲余且欲余之遊
而勞汝之行誠極不安也華姬微笑曰早知貴體
之欠和當先來問候豈待召命而來謁乎罪悚罪

悚余笑而執其手膩滑如凝脂皎潔如美玉余讚
嘆不已因謂曰可與偕往浮碧樓乎萃姬笑曰唯
命是從矣余率從者數人徒步而出大同門典吏
前導兩娥左右相扶至江邊一隻座艍上設屏幃
鋪陳極其齊整上用白心青邊的布帳遮了陽氣
遂上了艍艍而坐萃姬在右金仙在左數個兒童
在屏後伺候一雙蹄笛手與從者等乘小艇在前
吹雙鎖吶而竹其聲清越餘音攸揚正是江城五
月落梅花也余使兩娥并唱白鳩尾江大同江上
飛長松落上清流壁上翠之曲使棹夫輕搖櫓而

湖上至白雲灘王流屏之叫懸崖疊嶂層巒削壁
竒而又竒秀而又秀余不覺塵心洗滌如遊蓬瀛
之間矣此時三使與巡相會于練光亭將設宴而
觀妓樂忽聞江上篳篥之聲與諸妓齊向江裡觀
看莫不健羨城底居民水渚漂母舉皆看玩余笑
謂兩姬曰今日吾與汝俱作地上仙矣兩姬亦欣
然而笑曰人間清閒之福相公今日獨占矣余又
笑曰水底有天般在其上吾與汝不但地上仙亦
做了天上仙矣兩姬亦拍手笑曰誠然矣少焉過
了白雲灘王流屏至綾羅島清流壁下景色轉益

清竒巖石更加秀麗真個是錦繡江山活畫世界
矣余笑謂萃姬曰此地之秀芳卿之美相與表裡
而互為竒偶矣萃姬頰眉曰相公何出此言以恣
年少兒輩之心乎小女乃蒲柳野質猥蒙盛眷冒
泰清遊這是今生之竒遇豈敢以螢火之光比諸
太陽之輝乎幸望相公勿以虛捏無而踈待小女
也余曰豈有踈待之理乎金仙從傍對曰相公之
言如水月鏡花只是歸華則此非踈待而何余未
及答萃姬繼而言曰金仙之言誠是也幸勿虛譽
粧擯而不我選棄也余點頭而笑兩妓因促席而

坐又唱了諸般歌曲聲韻清雅琳瑯如鶯轉柳幕
鳳鳴丹山水渚浣紉之女捨杵而昭帳石筵歸寺
之僧住杖而徬徨江上浮鷗戾戾驚起巖邊踈松
冷々奏笙華姬因起舞金仙亦對舞彩袖蹁躑湘
裙飄颻正是嫵娜如舞掌上之飛燕輕盈若步香
塵之綠珠于斯時也心清神怡萬慮掃如恍惚若
在巫山之陽爽豁如入廣寒之宮余暗自嗟嘆曰
人生至樂無過於此而余今獨占其樂誠為過分
矣又向兩姬而笑曰白香山詩櫻桃樊素口楊柳
小蠻腰者正謂汝二人也已而艇到浮碧樓下遂

下舡步行兩妓在前從者在後忽有一天在村家
門首亂吠余笑曰此犬見妓而吠非平壤犬也有
一村婦從傍應聲曰豈有吠理見妓歡喜而笑也
非吠也余顧謂從者曰此婦之語豈非生香耶村
婦猶尚如此况慣於風流者乎箕城一滯誠為海
東茅一風流鄉也遂上了石梯由剪錦門而入城
中揔攝僧迎候於門內矣行十餘步又上了數十
級石梯登浮碧樓二壓層城三壓層嶂俯臨江渚
可謂百尺危樓迥半空矣余不覺困憊禿檻少憩
盪床吏進鱸遂與二娥共卓余則但吃了花菜一

美三季雙戶二如貝口以以麥餅皮菜厚之層夜
者等各有午餐亦是冷麵也因級床進茶罷出
了欄頭放睛四眺教丹之峯在其北乙密之臺在
其西永明寺在其下綾羅島在其東高樓泛已然
如浮碧矣再向粉堞之下而望則大野東頭點已
山即三子粉箕來朝於教丹峰者也長城一面落
上水即二水縈迴中分於綾羅島者也可謂第一
江山而余年已邁矣可惜哉此江山不可復識矣
因仰天長吁浩嘆不已華旌走近前來忙把袖而
言曰對景不樂而反為傷心何也余又歎曰余弱

冠曾過此地豈料三十餘載重到此地耶人生如
韭露水漚吾年邁多病奄迫柔榆豈復望三度來
此乎言訖又嘆了一口氣萃姬亦愀然曰相公休
出此斷腸之語愁殺了一樁勝會豈不聞惜春兒
女淚盈升之句乎兒女輩比如園中花為_口能幾
時夜來風雨聲零落在淤泥可憐兒嬌滴_口妍嫩
_口的蒲枝花朵磨盪于疾風驟雨之中東飄西零
委滾於糞土亂淤之間為行旅車馬之所踐踏無
餘正所謂花鈿委地無人收者也想到此地九回
軟腸化作灰燼比諸韭露水漚更何如哉因慨然

易色余心如寒灰雙執其手而嘆曰嘻悲夫百年可使人口壽憂樂中分未百年況人間七十古來稀者乎嫩菜濃花一經風雨樹頭樹底欲覓殘紅其可得耶吁嗟哉人生固如是也是時金仙在城堞上摘櫻桃忙跑到前來右手將櫻桃塞在華姬口中左手輕叩了余臂而言曰相公只知道人生須臾而不曉得個中妙理余曰甚麼妙理不曉得金仙呵二笑曰相公能曉得人生得意須盡歡莫使金樽空對月之詩麼余曰豈不曉得金仙曰既曉得何不盡歡而反作兒女區二屑二之態欲

效楚囚哀亡苦亡之悲乎相公不是丈夫乃是兒
女子也余以手將金仙之背輕亡叩頭幾下曰豁
達哉你言也你年少體小而何如是豁達耶華姬
亦笑金仙啓檀口轉歌喉唱十載經營屋數椽錦
江之上月峰前之曲其始也聲韻亢急而高漸而
清揚商聲之中乍叶宮聲亢而高亡而清亡而帶
緩這叫做商宮齊備此是絕唱也余連聲稱奇曰
奇哉奇哉誠今世之希音也華姬繼唱白鳩辭金
仙又唱黃鸝詞一闋華姬拔了金釵叩了欄頭唱
處士歌聲韻益清如高山流水風打疎松能過行

雲矣余吟一律曰斜陽已照繡林間千里歸帆獨
去閑數點青峰高自在雙飛白鶴翔難攀激湍波
浪翻風曜古壁烟霞接地殷音顏赤黑色更向綾
羅島上望一聲漁笛動江關此時日已向西遂下
了樓來至永明寺參拜了佛前至棋檗窟周視一
遍這是東明王之一入不返之處也遂別了主僧
揔撰因出了城門最恨者扶病強作氣力不加不
得上牧丹峰乙密臺也復下了船來使笛艇在前
依舊溯上欲返棹于錦繡島之東流至上溜頭水
淺而艇難進沒奈何只得回棹復至浮碧樓下夕

陽在山彩樓粉堞倒在水中金仙拔了金釵叩了
船舷唱鎮國名山萬丈峰青天削出金芙蓉巨壁
屹立北祖三甬竒巖斗起南案蚕頭之歌乃篇樂
也聲韻更竒余不覺竦然而聽又行至清流壁下
適有十餘僧徒在江中洗浴皆善於泅水潛身於
水中但首出水面相與頑耍往來游泳聞歌聲之
清越皆回首在水中聽焉誠一可觀也余不覺失
笑兩姬皆笑仍過了清流壁至玉流屏下白雲灘
邊正是夕陽回棹白雲灣也只見江沿石機上坐
著數伴浣紗女娘年可二八面龐如花纖手持杵

輕舉緩下相呼相謔言笑琅々百媚俱生余向女
娘而笑曰此非苧羅村若耶溪何西子之多乎女
娘們含笑不答偷眼流眄忽低着蛾眉整着鴉鬟
故作羞涉之態余即吟曰二八兒娘能解羞含嬌
含態故低頭羅幃莫惜瑤臺夢異草竒花揔是漚
吟罷華姬笑曰相公無乃有意於此女乎余曰否
因豪興之藪順口而吟華兒幸勿怪訝華姬曰那
有怪訝之理乃敢戲謔而然也兩姬因浪吟了秋
風感別曲其聲清而幽哀而悲江水為之嗚咽聲
婦聞之感泣余曰何出此哀怨之詞提出來傷感

之懷耶兩姬齊應曰明日即啓程之期也當其開
關之時那有開工夫唱別離之曲耶是以預唱一
闋以叙濶別之懷也余唯上不樂萃姬微笑而因
唱洛陽城裡芳春花時節草木群生之物皆有以
自樂此亦篇樂也余欣然撫其背曰你如吾之心
肝不謀而自同也萃姬但含笑而手拍舷舷更轉
喉音其聲益暢餘韻益清蕩漾怡悅婉美和緩聽
者自然聳肩聞者不覺欣踴余嘆曰劉和詩云座
上若有一點紅斗筲之器成千鍾座上若無油木
梳烹龍炮鳳總成虛者果信然矣此兩娥儘今世

之。一点紅油木梳也。轉瞬之間，已抵大同門外。仰觀練光亭，盡棟飛甍，迤立百尺危堞之上。層巒疊嶂，俯壓萬頃綠波之濱。正是萬戶樓臺，天半起四時歌吹，月中還者。此之謂也。余嘆曰：男兒在世，雖周覽八路，不作此江之一遊，即枉生此世。虛度光陰矣。遂與兩姬下了艇，入于大同門。未至下處，巡使別送午餐，極其豐腴。且充清美。余與兩姬同為下箸，而一壁廂使從者，各來上房。諸妓亦已齊來。爭食。余問曰：俄者歌舞筵席，必有盛饌矣。汝等與叅。楚之娥，得無肚裡之飢餒乎？諸妓對曰：雖有一

卓丰日裡歌舞之餘口燥咽乾手麻脚亂又添頭
暈未遑舉箸而老况多口者乎余笑曰然三使臣
之大宴樂反不如吾三人之清遊也諸妓皆曰相
公之言誠是也雖是大宴豈比於相公清閑之遊
乎小女們恨不能陪往也相公何偏愛金華兩姬
而薄於小女們乎余曰此非厚於金華而薄於你
們也吾扶病強作若與衆偕往則吾之氣力不及
不能酬接故也幸勿見訝諸妓曰雖是相公患候
之未瘥而然他的兩個甚為孤單弄~~得~~有伺
煩劇乎此非厭薄而何也余笑曰豈有厭薄之理

乎皆由於扶病之故也。再勿掛懷。諸妓拍手笑曰：相公厭薄諸兒而無辭可掩，但稱扶病。相公患佞，不是別症，乃是厭妓之症也。言罷，左右皆笑。余亦笑曰：儉們口角，可謂滑油嘴矣。吾乃言鈍語訥，難防汝懸河口也。罷罷，諸妓撫掌笑曰：相公為兩個妖狐之所惑，尚在懵懂之中，而不能醒悟，反責以滑油嘴懸河口乎？余未及答，華姪但微笑而謂諸妓曰：路上邂逅，謂之緣也。吾乃有緣者，汝皆無緣者。有緣千里來相會，無緣對面不相逢，是也。不曉此理，反比我於狐耶？相公乃正直君子，狐狸

豈敢鎮日放肆於其前乎吾其不狐也明矣因呵
口而笑金仙結曰華姬之言誠是也你們真個是
狐狸之精豈敢同叅於正人君子之席耶你們連
桑孽畜之速急登般若之般若學我正口口之道
只見華姬容辭自若舉止閑雅言正理順不強辯
而自明才德兼備金仙過於敏捷言語伶俐慧能以
半句斥語壓倒諸人這是才勝德也諸妓語塞相
顧相笑曰吾等既不叅於浮碧之遊當於此地盡
歡而散以慰悵懷可也使左右將樂器而束諸娥
各分掌而歌唱吹彈鬧了一場已而侍者点燈繼

進夕飯與諸娥共喫。完進茶。罷吃烟。又開了
一回兒。因分坐于左右。又各執其技。琴。瑟。金
仙。執檀板。素英吹笙。寶貝擊缶。丹桂叩瑟。其餘輪
流唱歌。余病裡不無困乏。但偃卧而聽。誠三公之
不復也。至十二點鐘。候進夜饌。喫完。黃鷄唱曉。諸
娥告歸。

二十六日早陰。巳後雨始下。午後沛乎。至夜而止。中
和五十里。中火黃州五十里。宿
黎明而起。整頓行李。諸妓齊來告別。丹桂隨至江
邊。連稱爺。保重。安寧。余再三執其手。不忍相捨。

舟子催行丹桂沒奈何只得拜于船頭因叮囑太平善在開船而行過了白雲灘下流至南崖下了船過赤濟橋由長林而行江岸崩落長林零星比昔光景極為蕭條因催轎而行已候至中和信使進來飲余連日強作之餘不無漆症但吃了米飲一鍾此時細雨霏々遂冒雨而移轎行三十餘里肚裡空而氣力乏矣因少憩于店裡吃了飯水數口復起行申後至黃州不由南門由西門而入至下處左右進米飲遂吃一碗因不能自振然此州即替馬之所也大同驛輩告歸而辭退金郊驛吏

新來而問候余問馬政之如何驛吏對曰今春遞
等後新官精明馬政頗為優如也余喜曰余之最
憂者金郊之馬故矣今既優如云為官者當如是
可也吾亦盡心秣弊若有侵漁作梗者你即告我
吾當重緝以杜驛弊也驛吏輦叩謝而退至夜而
又吃了米飲因就睡

二十七日陰鳳山四十里宿

平明喚驛吏擇其優而替馬因蘇行踰洞仙嶺至
新南門憇于店裡從者先行已備了米飲矣余吃
了半碗又登程行了多時至洞仙嶺拜了神堂暗

祝通三房一行無事到京遂上了轎下了巖來此時一行之車卜三十餘輛齊過此巖其趨下于高絕之時則其吼喘艱苦之狀人之所不忍見也昔日則連抱之松四下叢立僅通一路虎豹成群及人出沒矣今日纔有幾株疎松幾根雜木四面呈露無異童濯余嘆曰此巖之一派松林森天陰翳為西路第一險厄之處數十年之間胡為乎至於此極也遂催行前進一點鐘候始抵鳳山郡官吏問候而進來飲余問能賁白粥否對曰當另勅為之矣余因吃了粥飲倚枕呻吟有兩妓來謁使使之

近前坐而唱梅花辭繼以小春香歌其聲韻不甚
清奇亦足以暢叙幽情矣左右進白粥兩妓告退
余挽留而吩咐待者持來原支供夕飯床使兩妓
食之喫罷点上燭來因與兩妓閑話問其契活頗
辛酸矣兩妓遂相與并唱雜歌至夜深而歸

二十八日清熱鈎水三十里中火出文瑞興四十里

宿

平明自鳳山郡起程行三十里至鈎水站日氣極
熱汗出如淋憇于下處催進米飲鈎水即文化之
出站支應而其冗百慢忽難狀其遠近探吏初不

來謁於余也。召其三公兄，則已為逃避。云余大怒，使從者四下亂搜，而不得，遂招致洞中，三任使之。捉拿食頃後，始獲色吏而來，跪于庭前，而數其罪。色吏但稱死罪而已。余叱左右打了十數個棍兒，因大喝道：「汝之邑倅不知待賓之禮，不勅下吏以捱過為能事，是可忍也！其為故可知也！定化生靈，豈不可憐！歸語汝倅，再不作此等伎倆，倘不改悔，復蹈前習，少有苦虐於民間，則吾當稟達天側，另行措處矣！」慎之！也。色吏服罪，謝罪而出。余因催行前進，暮抵瑞興，至下處，官吏進來，飲余於此。

時肚裡頗餒遂吃了一碗因勉強而起進可身車
本倅即上使之查伯也而年又最高上使極其致
敬焉本倅向余問訊余告以身恙之未瘥本倅聞
而驚曰在家有病誠難堪耐况驅馳於道路乎因
吩咐監床另加申飭該色輩諾々連聲而退適妓
兒翡翠來謁乃下來時上使所眄而原來退居閤
巷者也不施丹渥淡粧而已余笑曰昔我來斯因
事務之稠疊但聞翡翠之名而忙未知其為誰今
見汝面最為眼熟始知汝是翡翠也衣方綠方綠
衣黃裳々々非汝之所著然上着翠月羅衫下着

嫩綠湘裙翠芳綠芳真個是翡翠也左右皆笑翡翠亦笑余又曰春宵一刻直千金汝勿嫌夜短好好的當夕也翡翠但含笑不語余遂回下房日已昏黑侍者點上燭來因進夕飯又進白粥菜羹湯炙之類煎炒熬之屬分外香美無不嘉口儘知本倅之費心也喫完了因倚案而獨自無聊矣忽府妓蓮花掌燈冉冉而來余喜曰難得哉愛卿也誠我的心肝也知我之寂寞恁的慇懃相訪豈非不謀而相同耶蓮花笑曰妾知相公患儂之未瘥欲為破寂而特來也余曰善哉二二罕得你的費

心也見徐之來我病已是幾分好了聞徐之言吾
病委實十分好了蓮花環正笑曰相公病候好了
妾心亦好了因唱數曲平調侍者適進茶蓮花曰
相公不吃酒當以茶代酒矣唱藥山東臺繼又唱
將進酒其聲清怨如塞鴻之南飛其音淒惋如杜
鵑之夜啼一霎時悲風生於几案之間左右無不
動容余愀然正襟曰何如是清切哀怨之甚也余
於教坊中聞此曲多矣未聞如許之切今聞此調
正是昭君出塞時胡笳十八拍之餘音也我東之
所罕知者汝從何而學得乎蓮花曰這不是學得

者也。偶因感物生情而成腔也。妾亦不知其調之如何耳。余曰：然此乃無中生有，自然唱出成腔者也。非所學得者也。蓮花復轉喉而浪誦七月之篇，其聲清和婉美，和氣藹然於坐間矣。已而又吟赤壁賦，韻益清奇。余嘆賞曰：奇哉美哉！海西英秀之氣，獨品賦於你也。蓮花連稱不敢，又誦秋聲賦。這是凡流之所未能者也。余再加稱賞，聳然而聽，至渥然丹者為枯木，黝然黑者為星。余不覺拍案而嘆曰：嗟乎！浮生誠如是也。蓮花曰：相公又何悲傷也？余曰：何為不傷？渥然丹者為枯木，黝然

黑者為星工者正是男子漢之槌膏而哭者也余
非鐵人石腸豈無傷感之慄耶蓮花曰妾乃蒲柳
野質素無學識僅誦其文而不解其義矣今聞相
公之言妾心頓悟而茅塞始開一遍想起來幾字
腸欲斷而愧欲銷矣余撫其背曰奇哉你也是般
顏慧言下頓悟能知個中之趣豈不是裙釵英雄
粉黛豪傑耶蓮花謝曰避土愚蒙幸免蠢工瞽工
之責足矣豈敢當盛譽而貽笑於傍乎余見其
言辭謙恭容止閑雅心深奇之執其手而始問年
庚則曰十七問其父則最有根因也余暗嘆曰木

有根水有源者正謂此也左右進夜饌余但舉箸而使蓮花食之食畢進茶夜已爛而鷄亂啼矣蓮花似欲辭歸而不忍告別踟躕遲迴者數四余亦愛其清秀而不染於塵類慧而不掛於累雖無相昵亦難相捨因慨然嘆曰逢者別之始別者逢之終也人於送旅之間觸處生愁苦海之中無時不波也蓮花亦愀然曰相公患候尚此未復終日之羞不過數鍾體粥而且日馳八九十里或百有餘里止於邑州之站則百務纏緲無有相公之指揮雖以御一行可謂食小事煩也若非相公之剛毅

其誰能為耶相公外柔內剛以和接物不為表襮而又不便不黨雖群居不倚獨立不懼如竹之參天松之凌霄風霜摧折而挺立無改有順於理而無違者愛護如珍悖於理而有忤者憎惡如讎此乃妾之所能聞於先未之人者也故敢以蒼蠅之微欲付驥馱之尾矣今相公病候頻重管的不時可而日瘥也妾雖係於官娃然品性暗昧不喜臨門獻笑又不好迎送新舊而但所羨者惟紅拂之故事怎的捱不過一時之私有累於千金貴體乎此是妾之所舍意而未遂者也願相公自重自惜

勿以泰山之重視於鴻毛之輕也余連聲嘆曰至
哉你言也屏私以不辱明理而不苟真個是女中
烈俠也你信知吾稟性之挺正不屈則亦知吾之
不戀於色也余若貪於色則關西一路美女成林
相與同處者為幾日而一無所眄豈無嬌艷而然
耶這是無心於色而心不動也你若知我止於貪
色則是不知我者也今余之所戀正難捨者或愛
你之明達解理耳不愛你之花顏月態矣古人所
云賢正易色者此也蓮花歛粧曰豈敢正正因愧
然不樂但稱千萬珍重正正余亦酸楚起來不忍

分手蓮花頰眉曰前路尚遠惟望相公自保自惜
更加調護勿以妾為念也妾與相公雖無枕席之
歡然情意相透心肝相照惟如膠漆非三生之夙
緣怎能句此這個是邯鄲枕上一場蝴蝶之栩栩
也想到此地妾之幾回軟腸不化為水必銷為灰
矣古詞有云休向月樓獨倚欄酒入愁腸化作想
思淚門欄疊々重々山遮不斷愁來路者正畫出
妾之心腸也更望相公勿為遐棄必以冬行為期
也余點頭而暗想道我曾於京鄉之間閱歷多矣
未嘗見持操之這般清高言辭之恁的慧詰也話

不終夕而能透我的心肝曉我的性吐膽相投
傾心相倚委的是難割難捨這便怎樣是好想起
來我只做了有心的薄倖人矣因長嘆數聲默然
不語但撫其手而不忍相別蓮花脉脉良久忽失
聲嘆曰妾記得古人詩窗外三更細雨時兩人心
事兩人知新情未恰天將曉更把羅衫問後期者
真個是暴露心曲語乞意盡更無以資一辭這是
絕唱也較諸今夜光景誠口不差然自古痴心女
子空指望負心漢子撈水月探鏡花而歸盡柔腸
者多矣妾亦痴心指望者也細想來豈不傷感於

夢寐之間乎言訖一陣秋波橫於雙星奈不勝愛
憐將手拍拭其淚曰我非負心漢也你勿過傷因
長嘆一聲曰苦哉苦哉別離之苦也以秦皇之雄
不能燒別離二字以霸王之力不能碎別離二字
尚在世間磨消了幾個好漢余雖鐵性漢子其於
磨消何浪陶沙筭五闕云西風聚散水中漚令我
與你俱如水中之漚聚散於西風也兩下里這想
思太平車如何載得起委實難捱蓮花嗚咽曰大
同江別離詩云大同江水何時盡別淚年二添絲
波又曰天生江水西流去不為人情東倒波新柳

詩云絲口難係別離情把不住的這別離如何係
得長恨歌云春風桃李花開夜秋雨梧桐葉落時
長信怨云坐羨宮樹寒鴉色猶帶昭陽日影來香
山又云耿耿星河欲曙天這個時候這想思怎能
消得想一想相公去後妾如沒頭鴉無處告訴了
裏腸獨自顛倒費神思越口的愁對着征雲一納
頭憔悴死可憐呀誰將一盃酒奠我孤魂言訖珠
淚滴於花腮余雖拄着腔子對此如何不淚垂因
仰天一吁血湧上來嘔了數口這是宿症小有不
平往口如是蓮花着慌面如寒灰余曰無傷也是

乃舊症慎勿過驚放心罷遂將濕水嗽了幾口并
將香茶訖了一鍾因倚枕而卧此時天色已明從
者束裝官吏進饌余強飲了米飲數口使蓮花食
之蓮花亦不能喫飯亦訖米飲而已余歉歉白劉
禹錫云髮髻梳頭宮樣粧春風一曲杜韋娘司空
見慣渾閑事斷盡江南刺史腸劉與我正相符也
吾腸必寸斷矣說猶未了左右連告了日色已晏
余沒奈何只得起身上轎謂蓮花曰我與你如
靈犀一点暗然相通區區乘腸不必再提萬望保
重蓮花雙光裡秋水盈匕不能成語凝立良久但

稱千萬珍重再未重逢八個字余亦傷感總稱重
逢二字蓮花未及對轎夫起行余遂掀簾回顧曰
立地分手亦是別場也十里相送亦一別場也惟
望善保以待重會蓮花似釘住了一般兒凝立不
動掩面涕泣而已余再欲開言而轎夫如飛疾走
已為轉灣抹角不能再顧矣

二十九日載陽載陰而熱葱秀五十里中火平山三
十里宿

當日平明綏別蓮花催行前進午後至葱秀即信
川出站而各樣等節非此文化而語也余謂該吏

身曰崔某左右可矣其人今見汝們安排着傳當
準備着齊整可知汝官家之善任事矣該吏輩鞠
躬貼腰但稱不敢而已午餐訖復起行暮抵平山
府乃空官也遂歇于小東軒左右進米飯二畢掌
燈繼進茶啖與夕飯皆不舉箸而賜下隸等凭几
獨坐兀然想起了蓮花之嬌聲嫩語叮嚀如聞芳
姿麗質依倚若靚按不住心猿跳圈意馬放韉余
驚怪叵測獨自捫心曰我沒了分毫之邪自知無
愧彼獨不捨欲效絲蘿之纏於蒼松此是斷不可
得已然這是一箇別樣奇種粗解文字頗曉義理

性情又傷心數亦多便要忙裡偷閑閑中取靜非
是小可的那里等閑着他不是送暖偷寒而掂斤
播兩綿裡做針又不是巧言令色而惹草粘花朵
裡撒奸他端的是傾心相投如薜蘿之倩女同舟
共濟如搖霜之雲英這般顛不刺的可喜娘恁般
可意兒的志誠種這些時他漫做了乾夫婦到如
今我便成了惡因緣這便怎麼是好他赤緊的情
思溫存的心窩斷難負荷不想呵其實強別離詩
有云平生不惹閑花草春去秋來總是愁正謂此
也因暗嗟而吟清平樂一闋曰

別來春半觸目愁腸斷砌下落梅如雪亂
身還滿鴈來音信無憑路遠歸夢難成
離恨却如春草更行更遠還生又吟采桑子曰
亭前春逐紅英盡舞態徘徊細雨霏微不放雙眉
時暫開綵窓冷靜芳音斷香印成灰可奈情懷欲
睡朦朧入夢來又吟浪淘沙一闕曰
簾外雨濛濛春意闌珊羅衾不耐五更寒不知身
是客一晌貪歡獨自暮凭欄無限江山別時容易
見時難流水落花春去也天上人間又吟憶江南
曰平生願二作樂中第得近玉人纖手子砑羅

裙上放嬌聲便死也為榮又吟花非花曰

花非花霧非霧夜半春天明去來如春夢不多時
去似朝雲無覓處又吟章臺柳曰

章臺柳
二二
往日依
二今在否
縱使長條似舊
垂也應攀折他人手
吟畢劃然長嘯推窗徘徊忽
聞砧聲自牆外西角
隨風飛來如金鐵之聲
余忽想起
擣練子
吟曰

深院靜小屋空
斷續寒砧
斷續風無奈
夜長人不寐
數聲和月到
簾籠又曰

雲鬢亂晚粧殘
帶恨眉兒
遠宙攢斜
托香腮
春筍

嫩為誰和淚倚欄干再三吟罷又朗譚應天長一

闋曰

一鈎初月臨粧鏡蟬鬢鳳釵慵不整重簾靜層樓
迥惆悵落花風不定柳堤芳草經夢斷轆轤金井
昨夜更闌酒醒春愁過却病又吟望遠行曰

碧砌花光昭眼明朱扉長日鎮長扃餘寒欲去夢
難成爐香烟自亭二遼陽月抹陵砧不傳消息但
傳情黃金臺下忽然驚征人歸日二毛生吟了一
回又悄然佇立再想出憶江南二闋曰
一重山兩重山遠上天高烟水寒相思楓葉丹菊

花開菊花殘塞鴈高飛人未還一簾風月閑

雲一縞玉一梭澹_二杉兒薄_二羅輕顰雙黛螺

秋風多雨如和簾外芭蕉三兩窠夜長人奈何又

繼吟喜鶯遷一闋曰

曉月墜宿雲微無語枕頻倚夢回芳草思依_二天

遠鴈聲稀啼鶯散餘花亂寂寞畫堂深院后紅休

掃儘從伊留待舞人歸又吟院郎歸一闋曰

東風吹水日銜山春來長閑落花狼籍酒闌珊笙

歌醉夢間春睡覺晚粧殘無人整翠鬢留連光景

惜朱顏黃昏獨倚闌吟了又吟不勝惆悵因尋思

半晌恍然自傷曰余乃天生是敢委實斬釘截鐵
的一個硬漢子為甚軟兀刺無回互不能感去了
這蔡障沒意兒忒慮空筭按不住心猿意馬撩撥
得腸忙志忒忒懶嘗不過眼對着雲天曉夜不
睡漫吟相思斷篇我今沒了宋王之愁相如之渴
又不是泣麟悲鳳的怎做了楚囚之悲枉作痴獸
之漢乎因回身坐在枕上朗吟錦堂春一闋曰
昨夜風兼雨簾幃幘颯秋聲燭殘滴滴頻敲枕起
坐不能平世事漫隨流水算來一夢浮生醉鄉
路穩宜頻到此外不堪行吟罷笑曰余乃斷飲者

也何云醉鄉路穩宜頻到此外不堪行
梁余當改醉鄉為茶鄉因呼侍者進香茶吃了一甌又唱漁父詞二闋消了閑愁曰

浪花有意千里雪桃花無言一隊春
一壘酒一竿身快活如儂有幾人
一權春風一葉舟一輪繭一輕釣花蒲渚酒蒲甌萬頃波中得自由吟罷又飲了一甌茶膏曠稍寬因為就睡

六月初一日晴熱金川三十里中火青石鎮三十五里秣馬松都四十五里宿
黎明自平山起行渡濟板橋至金川海州出站吏

等俱迎謁因進午餐余只吃了米飲復起程渡金
川前江未候至青石鎮少訖于店裡開城監色進
米飲已畢因不能自振因卧而少憩半晌後方自
起身復催行至松京西門外紅日已掛西山矣城
門在山麓之上僻且險焉轎夫奮力而上過了門
循城底而行路益陡絕轉了幾灣至高峻處俯瞰
滿城千門萬戶星羅碁布屢肆撲地人烟輳集真
個是一天都會也更望見麗宮舊址蒲月古臺荒
草平蕪荆榛叢茂蒼茫於夕陽之外回想前朝之
事如睹目下矣因感古而吟憶江南數闋曰

江南好風景舊曾諳日出江波紅勝花春來江水
綠如藍能不憶江南江南憶最憶是杭州山寺
月中尋桂子郡亭枕上看潮頭何日更重遊
江南憶其次憶吳宮吳酒一盃春竹葉吳娃雙舞
醉芙蓉早晚得相逢又吟調笑今日
胡馬_二遠放燕支山下跑沙跑雪獨嘶東望西
望路迷_二路迷路邊草無窮日暮河漢_二曉
掛秋城漫_二愁人起望相思塞北江南別離_二別
離別河漢雖同路絕吟罷復轉而南望見三角之
山聳立雲際嵯峨秀麗鍾英之氣積鬱乎烟雲渺

藹之間令人不覺膏肓爽豁五心歡悅故踏京師
矣因催行暮至下處官吏進饌綵吃至未飯數鐘
凭几而聽事松京乃迴還替馬之所也馬故太煩
未免一場哄鬧頗涉困苦而非吾所管然欲防奸
而杜弊不得已叅關焉

初二日乍陰乍陽薰熱長湍四十里中火坡州四十
里宿

平明自開城離蕪午後到長湍余餐訖復起程日
氣蒸熱其在轎中如坐烘爐之中申量到臨津催
艇而渡水色紺碧波勢蕩漾江岸陡起石壁屹立

景色洒落庶足以暢懷矣遂下了船入臨湍門少
憩于江岸柳陰之間是時夕陽在山樹影散亂沙
鳥飛鳴清風拂面頓忘行役之苦復催行前進行
了二十里至坡州歇于下處官吏進饌只吃了米
飯又不喫夕飯因挑燈獨坐回憶疇昔之事傷感
之懷紆莞乎中矣因朗吟李青蓮長相思一闋曰
長相思在長安絡繹秋啼金井闌微霜淒淒二簾色
寒孤燈不明思欲絕卷帷望月空長歎美人如畫
隔雲端上有青冥之長天下有緜水無波瀾天長
路遠魂飛苦夢不到關山難長相思摧心肝吟罷

兀自淒然呆兀的半晌無語自嘆曰余忒愛慕其
志氣之高潔而然也人不知余之心曲必笑我以
貪美色的軟心腸矣遂喚侍者進茶飲了兩鍾心
緒稍寬因就睡

初三日昨同高陽四十里宿

當日食後自坡州登程行三十里至惠陰嶺日熱
如蒸誠難行路矣自該邑發民夫等待于嶺下遂
替轎夫而踰嶺尊貴民夫復行十里至高陽亦空
官也歇于內東軒吃白粥京師數益未見叙了滿
歲寒暄穩談消夜

初四日載陽載陰京城四十里入來

當日平明起程催行而進已量至弘濟院人馬喧嚷親朋之相訪者頗多然余難於強作畧叙別來因催轎而行至弘濟川家兒與隣家兩少年拜於途傍遂住轎而問各宅平否對以太平復起行至老姑堂主張采弘家前采弘適在門首不勝喜幸迎入外堂此時肚裡頗飢采弘知余病狀遂煮米飲一器而進余吃完精神頓爽因謝其厚意復起行踰道集埠至道前門外六曹廟官設佛帳欲延詔而會車馬駢闐人衆擁擠遂捨大路而取小路

由城底而行入教義門午候至家中內外宗戚聚會相歡焉



宣統七年七月進賀無謝恩陳奏使函使瀛昌君沉副使尹以濟書狀韓恭宗
 聖訓曰日朝設于螺山店之教里許有城甚完朔末富家姓宋人
 有屋居之及有人入閤則繕器械擁大砲以待虜其傷其衆不
 能入其城于虜歲貢白金云

二十七日曉發渡八里橋朝飯于十八里堡到東嶽廟在郟城外殿
 宇闔繡環以崇廊塑列衆像詭特不可狀庭下植碑不記其
 數石工甚偉如香燈爐燭之具刀戟旌旄之屬各備具靡不
 新巧由殿以蔽重門複閣愈益觀邃宏侈最後道流居之城中
 士女亦相率定者率皆奔避歲時上元諸節益甚男女裝束

多事戰前古邑等易服少慈自朝陽門入到土河館清源
一人及大道官等來待自此牢鎖拘禁後同囚繫云是日
四百里址京古幽州之域舜分冀州置之周禮職方所謂冀曰
冀州其山曰醫冑巫閭者也石晉割以獻遠建為總京宋宣和間
遣將郭藥師以其地降後沒于金紹興間金亮徙都之元
太祖克遼初為大興府後改名大都大明洪武初為北平府
太宗靖亂後建為北平而定都焉考之明史都城內外可十五
里城有九門南曰正陽東南曰崇文東曰朝陽東北曰東直北
曰安定西曰宣武德勝又在安定宣武之間西曰平則西南曰

西直周圍廣大闔壁高厚削立累丈亭數十萬置一雉形
勢壯固殆難盡述至於人徒之衆坊里之稠宮室寺觀之偉
麗市廛財貨之充物猶是雄都氣像矣

九月十四日留館安南進貢使臣入來安南於癸丑以後以貢路阻
梗未有使价往來今者南方始定故以今年二月起程自福建
地方乘舟泊通州江蓋水陸約八千里云

○鳳凰城以後至于北京沿途所遇諸人率皆鄙吝無文無禮
與向者彼中事多事有難詳知而察聞皇帝雖無虐政暴舉
荒淫賦性蠻遊無節姑以近事言之夏間幸瀋之時不曰

治正路馳馬射獵上下山坂及到遼東太子河設打魚之戲皇
帝身著柁水袴襪戴小帽入水叉魚應手輒獲大臣明珠及
諸王以下皆令執弓露體塗足喪失威儀近處軍民許其聚
觀不使拘呵且稱皇帝能砲善射每嘗遊獵勇前嘗數發
必命中云可見其自輕無度之宗矣其在藩也從其所帶
妃嬪且遶藩中清女三人日與遊戲各設帳幕不知皇帝在處
自藩將適兀剌地方藩陽鎮將安珠胡固諫不止皇帝意甚
不悅其自兀剌還也則謂珠湖忠直賞賚頗優還宮之後又
欲觀魚於永平灤河因往撫寧看花草山景致而不果行八

月間又率諸嬪行幸西山留駐累日仍往海子一帶遊獵九月
又從兩太后及諸妃觀海子又往西山在都城四十里地景翹
殊勝宮觀寺院在焉海子距都城與西山同周圍築墻方各
四十里中有大池列置館宇廣畜禽獸二所俱為宴遊畋獵之
地云又將以十月從兩太后往遵化府謁順治陵皇帝則仍往喜
峯口外親獵具有親行五臺山在太原鴈門地之意稍有知識者皆以為憂
皇帝胞弟三王屢進直言仍言於皇太后曰皇帝輕棄宗廟
日事遊獵奈社稷何且面責明珠曰君阿諛苟容導導主上以
非禮使身親又急而大臣自執其咎自古安有此等宰相乎皇

帝聞之惡其言切使之出視外地王曰若不與明珠偕行者必
不可終不行國中人心多屬於王云皇帝雖在宮中未嘗寧
處汲、荒樂又於闕牆之外鑿池注水周回甚廣豈分得南方
巧匠聚石造山殫極技巧離宮錯置畫艦簇集每與妃嬪
從宴自遼東觀魚遊獵之後謂其魚雉最美別送御羞留往
遼東獵雉拉魚車載以運其行幸之處芻糧雞豚之屬皆調用
於民間折銀償價而宰為其下乾沒民所得統三分之一大臣
以下宰皆媚佞未嘗直諫自南方平定以來君臣上下益以
驕逸稱述功德貢飾樂章如九嶷鳳鳴之慶一乳三男之祥

題券相繼而彗星之出則未有其憂之者也城闕門樓之毀圮渝
故者方皆修葺耳朱價為之平高太和殿又將重建今遣差宦於
一省地方取得松杉諸材土木之擾始矣群下貪瀆之習尤甚公
求貨賂喪共廉恥明時遺老之存者皆言崇禎皇帝身無
失德而臣下貪穢食生民怨苦馴致禍亂此皇帝雖甚荒淫
亦無毒虐之政而其臣之嗜利無厭殆與明末無異其能長
保其國乎云矣若其疆域之憂則吳世璠敗死之後南方雖云
平定今年五月間吳之盛之隆等封鎖押送之際行到貴州山
賊數千從山突出殺傷官兵將之盛及其家口截搶入山不知

下落泗川人馬良稱以馬寶族弟自誓為寶報仇為吳家快
復雲南於九月初一日從大川率兵四五萬直抵保寧府江津
縣攻克城池搶掠鄉村人民四散官兵退縮奪取鐵鎖橋堵截
雲貴大路可見吳家餘黨尚未盡勦多有保據山谷攻掠州縣
者故調發軍兵更迭鎮守矣鄭錦據有海島侵軼內地沿海
地方布散密示五月間為福建都督發覺布散之人仍行集
示七月間鄭錦遣其臣興明伯趙天爵總督趙得勝等統
領四萬餘衆大鯨四百餘隻過蒜嶺由大平山侵犯重門地界
又遣右虎衛將軍許耀總兵何佑吳淑王進寶等率領五萬

餘衆大艘三百餘裝載大砲火器從分水江直侵廈門該地
方、行勦討云鄭錦前後所遣兵幾至十萬侵掠不已督
府飛報連月踵至可知其憂虞之大而第察彼中人情以鄭
錦為自守之賊雖特加侵擾不以為慮其所甚畏者要夷耳西
夷部衆既盛士馬精健被若生心猖獗則決非清人所敵
故厚加賂遺金繒粟米歲不知其幾百萬彼或稍加悖辭
或請與皇帝會獵則清人每遣大臣厚其賂以調餌之彼既
貪其賂遺而靖遠侯張勇清之宿將也累年鎮守中陝夷
人服其威信故姑不蠢動矣近來夷中情形頗異於張家

口外搭立窩鋪張房放牧牛馬沿山遍野侵至邊界迆逐不
動每日操鍊兵馬皆新製旗號又照清人滿兵八旗黃白紅
藍顏色式樣清人大以為憂皇帝密旨遣一等護衛麻兒
言向遼東西土一帶十三家騷獫子令各家遣發都統一員
領兵一千名約期俱會喜峯口即赴張家口駐鎮防邊皇帝
親獵喜峯口外云而閑外甲軍大半調發齋齋糧卓有同軍興如山海瀋陽等
諸將皆親率軍兵以赴會稱以打圍而沿路人民以為皇帝難出獵前此未嘗有
此舉云疑亦以獵為名聚兵喜峯口且遣正黃旗貝勒鎮國公內大臣
會諸家獫子為防鎮張家口之計矣一等護衛共隨帶四十餘人前往山陝甘肅寧夏一帶邊關察
夷放牧窩張等情形動靜併着堵塞添防等項又命該將

軍張勇申飭各邊口營將嚴加防守勿致疎虞亦可見其疲於

奔命矣或云正統皇帝壯符之時有胡婦子二人至其子孫部落雄威漸

視之云且按明史正統皇帝幸虜日也先進其妹及二女帝以好辭却之未聞

其有子也設有之則帝於及位之後豈以其血統置在腥膻乎且云北京南門有

永昌如先順治皇帝等号而李自成僭位之後号永昌報皇帝立於南方

号弘光順治又為清人之号皇極必為西夷之識云此等雖惟誕不可信可見

人情尚有所聞故並錄之其守禦之備則諸處甲軍皆屬八旗正黃等三

旗為皇帝親兵餘五旗使諸王領之鞏毅軍兵外關外諸衛藩

陽甲軍之數最多其餘則如山海寧遠廣寧等衛所置甲軍

多少雖不同大抵皆不及藩陽甲軍一月之廩給銀二兩米三

斛一年為銀二十四兩米三十六斛云矣

皇明時自湯站以後

至于北京烟臺城堡星布甚置為犄角羅網之勢今則幾盡
頽毀或祇有遺基崇禎嘗修治山海關素稱重地城堞外面雖似
壯學而內由望海亭十里之間大半壞塌亭側有明將軍
廟舊屋間架甚廣崩陷殆盡角山寺近處則外面亦圯夷
可越推以此處則長城一帶虛練可知至於沿海舟楫往來
關內者率由望海亭外詳視若平地非矢石所及一葦葉風
浪可登岸關門國防陸之所非備海之處矣蓋明朝以東垣
為要防守之備靡不用極而清人主華之說則瀋陽以後
東垣一帶皆其舊日部族率皆服從無外顧之憂故關外鎮

僅任其廢隳而獨藩陽城最為壯固粉堞崢嶸有若新築
其定守備亦皆完整 國家歲幣太半輸此且漢人有罪
者率令移押於寧固塔近處其意蓋在於後圖遠慮也
其治民之政則外方知府以下皆以漢官為之統治漢人民年
十五以上率出身役銀二錢五十以後免田百畝收銀三錢
其他州縣供應皆責於漢人清人及我國人入居者則並
無身役其所耕之地悉免徭賦沿路諸站所居之人則稱
以站丁身役田賦亦皆復免專責徃來公差供應及官
物輸運差一人為千總以掌其事大小差命徃來之時

糶餼等子。縱收合里中，以給而不過米斗肉斤而已。非若
我國縣官，爲饋支待之規，故雖使今日過州縣，杳然不知
矣。其人民謠俗，則舉皆嗜利重貨，絕無純慤之風。甲軍
愈益，驕悍侵黷，一行負役，無所不至。如隨身之物，輒相求
乞，若不與，則詈辱不已。公行攘奪，如牙譚麻貝及大通官
等例，結之外種，需索於使臣，酬應不暇。使臣若出宿，則
家則主人，每以房錢多，小遮櫃，喧嘩必稱其欲，而後已。甚或
蔽井阻汲，限地妨芻，強要高價，以售其有。其中稍識文字
者，稱以秀才，話未及終，輒乞面幣，無一人有翰墨儒雅之

態中率文物淪陷已久習安異俗恬無愧恥亦已悲矣其俗最好尊佛事鬼雖教家之村必置廟設像孤孀之家亦架壁禮神人鬼互居僧俗雜處人死則初葬之際廣設齋會緇徒填室佛樂盈路而其葬率_在田野或聚沙成墳或設架塗灰纍_々相連無以識認甚至露置其柩於路傍或墻側或冢石其上年久腐朽者若將催壓所見可惡此等俗習蓋自明朝已然豈非伊川被髮之漸乎其山川形勢則東_入站_之地峯巒環合類多帶石有斬絕之崖峻極之巔對木蒙密道路危阻其多大川瀧濤猛急

中伏巨石渡涉之際若履鋒刃水潦乍至人馬不通其
險隘如此而境上荒僻久成閑壤形勝之地及為禽獸之
宅矣自遼東以後至于關外大漠寥廓黃沙浩漫惟以
醫巫一帶為西土界限終日之行不值一阜雖有川瀆
其流淺隘如遼東之太子河瀋陽之渾河廣寧之遼河
大小凌河關內之灤河通州江等最稱大水而上流淺灘寒
棠則濟秋後濤落皆可以橋關內如永平地界撫寧等處
山水雖佳亦非險阻之地及至北京則又是曠然巨陸矣
已未八月進賀無謝恩使使朗原君侃副使吳斗寅書狀李華鎮

八月二十一日到松站宿于察院次通官金龍立至北京護行次同日
偕發是日有雇居人崔光遠者來見乃平壤居人崔厚先
之子也厚先曾於丁卯年並其妻被虜入清光遠生於壬申
即被虜後所生而能為我東言語賜之坐問北京消息則渠
於五月纔從北京來槩聞岳州九江等地皆已收復三桂則還
入四川而其死生猶未的知云云又言瀋陽新守將奏罷牛庄
站抄出富戶或三十戶或二十戶待明年春則曰瀋將慮江邊海邊之踈虞欲設新堡守之至於啓
請蒙允後親巡各站抄出富戶或三十戶或二十戶待明年春

移守於設堡處云、又問以設堡之故至罷牛庄舊站者何
意荅曰牛庄近海不罷則恐踈於防海之策故罷之江邊則自
鳳城以社至靈古塔十餘所設堡云而海邊則時未知設堡與
否云、又有朴姓人來見自言本國連川居朴敏生之子而丙子
被虜入清居於遼東得胡女為妻生一子曾為甲軍癸丑年赴
南征之後至今不歸頃得其書方在長沙云、罷牛站設新
堡之說亦與崔說同在鳳城時衙驛等只言取路瀋陽不
及四能舊站之意始於此兩人得聞其際矣

二十二日宿于通遼堡察院是日首驛安日新逢者自瀋來

清人得聞七月二十八日北京城內外地震城崩家顛人多壓死
至於通州三河等地無一室得全處云定州被虜人之子
任命吉自蓋州出來宿所來見亦言地震之變前古所無
朝野皆危懼云又言上年秋移址海獫子於瀋陽其數多
至萬餘自朝廷別為存撫造家舍以處其妻孥給銀錢以
資其衣食抄作甲軍屬於瀋將其俗以魚皮為衣袴故
稱曰魚皮獫子性甚悍獷少弗所欲輒至殺人瀋人皆苦之
云有遼東甘泉鋪人趙雲程阿彌庄人黃朝相兩人亦於
宿所相見俱解文字者也吳三桂之成敗死生書以問之則

亦以書答曰三桂人皆謂已死岳州等地既已收復而惟雲南四川
猶為吳兵所據云云

二十七日渡混河入瀋陽城宿于清宰相故家瀋陽新將沿路人
皆不知其姓名到瀋陽後始聞其姓為安而名則猶不明知蓋清
人在職者文書間只書姓字故雖在宰列者人不知其名云既
聞此人本以漢人之子未滿三歲胡女養育與真犍無異曾守
靈古塔頗有才略前瀋將得罪罷歸後代守瀋陽總察關
東清皇甚寵異之先斬後啓者前後非一屬部人無不畏
之設堡守邊實出於此將之籌畫今方往巡關外未及回來

云云。當日聞瀋陽周殘莫甚。今來見之。則城內外閭閻人物。極盛。路左右旗亭。物貨甚繁。清人之稱以盛京者。其以此夫。九月初一日。宿白旗堡。閻舍。是日黃旗堡朝飯。特瀋陽鎮守安將軍。巡自山海關外。回來。歇馬于隣舍。其子年十一歲者。隨衆胡來觀。自言能騎射。試以已才。果已成熟。古詩所謂胡兒十歲能騎馬。非虛語也。食後。安將過門而去。所率不過百餘騎。服色與騎卒同。但其馬裝飾以繁纓。以此知其為將帥矣。

初三日。宿于新廣寧。閻舍首驛。安日新。遇瀋人之自北京來。

者得聞地震時燕京城平則門安正門盡為頽毀闕舍大半
頽圮自通州至邦均店一百五十里之間許多闕家盡為
盡燼歷死之人亦不可勝數清皇大加恐懼方避殿露處以
鎮定民心為務至於甲軍月料比前優給云云

初九日留宿山海關朝飯後城將依前例宴饗食先設卓于於
座前以蒸羊羊體盛大磁器置於卓上又以酪酥燒酒連勸三
盃而罷宴饗前城將居首席引臣等同行立負役則立於
後行皆北向行三跪九叩之禮宴廳則明倫堂也其傍有聖
廟學生單方守齋云宴罷後瀋陽車運方物城將率衛驛

親監交付皆解封裹一、點檢日暮後方畢不得已仍留
焉是夜首譯安日新於一僧人處得清皇地震後所頒詔
文蓋其詔以自責為名而責已則小責人則多誠可笑其書
已於別單書進今姑闕錄焉

十七日到玉河館渡江時見商舡無數來泊舡制與我國
不同皆以采色畫於頭尾其妻孥亦皆率來蓬窓之下或有
刺繡女人過涉時有傍近舡數隻問其本土則一則自揚州來
一則自杭州來云其他許多舡可知其自遠方來也通州城內
外果無一間架得完之室額瓦破磚成積於街巷路為之

狹隘門樓寺塔無不頽塌漕倉公廨盡數毀落方且改構
後未及完以路窄之故處駐車其處人競未見之問死傷
人無寡則答曰死者殆至四萬而遠方商賈及許多流乞之
見斃者不在此數云及到燕京頽毀之狀至不三河通州之甚而
西垣門内外尤甚被禍云聞沙河宮新徙之戶多至四百餘戶
而舉皆壓死通州西五里許地裂尺餘黑水湧出其臭甚惡
終焉白沙流出成積密雲縣順義縣平谷縣亦如三河通州
之慘而密雲縣則地裂亦尺餘赤水湧出遍地繼有白沙流出
盡埋所頽村墟而後止

十九日留館朝前率負役就禮部呈表咨文禮部高十六下階親捧
置於格上問其人則漢人吳政治云禮部大廳左右廊廂盡數
頽毀全不收拾烏址海上蒙古四月發其國九月旬間始到是日
適其宴饗日也蒙人盡數來會按禮部無慮四五百人珠形異
制極為醜惡腥膻之臭動輒觸人所負則索馳捷馬雜皮物冊
胡明珠云是夜四更地震

二十二日留館是日首驛安日新得陝西大將及寧南大將等密
啓草二度一則撫遠大將軍都統大學士苗海密題川寇狡獪
異雖禦敵事八月二十三日都統塞勒黑等密呈內達寇偽

督都吳之茂等率兵萬餘於本月二十日由斜谷來犯漢中
地界職同提督王輔臣統領滿漢大兵各五千於二十二日出胡
蘆塹迎戰數十合賊軍大敗我兵奮勇追殺不期山後暗
埋火炮一時火發遍山如轟擊以致我軍打損過半職等領殘
兵千餘退回後峻地會合正白旗等蘭大丹代等統兵復戰
賊軍始退職等仍領滿漢兵回原營札守等語到臣衙門臣
即檄行各營將領晝夜防敵事關寇種侵犯損折兵將不
敢不密告我皇上微臣不敢擅便謹密題請旨云一則寧南
清寇大將軍穆占密題為達寇仍陷辰州事九月初三日都

統厄尼等咨呈內逆寇偽將軍馬寶等領兵數萬本月初一日復犯辰州府界職等統大兵初二日對賊逆等不意是日天降大霧昏黑迷天被賊陰設詭計偷入我營踰殺軍兵以致我軍首尾不能救敵我軍被賊殺傷自相踐踏死者十居八九職等領殘兵退回北黎汾只扎營固守而辰州則遂被賊陷等語到臣衙門臣即遣都統南格泰等領兵進勦事聞寇逆侵陷郡城不敢不密告知我皇上微臣不敢擅便謹密題請上旨云々

十月初四日留錄早朝大進官奏言初五日朝參昨已定奪使

臣等當就鴻臚寺肄儀云云臣等即率負役赴本寺肄儀
而還

初五日留筵四更頭詣闕入三重門候於五鳳門外等朝門
闕隨諸官入往殿庭則儀仗之外已設外班矣引臣等坐於
清人之末引家人坐於臣等之下及日出清磬聲自殿前出
微見清皇出御殿上清漢諸官先入行三叩九叩之禮其後
引入臣等行禮臣等既出家人繼入行禮畢引入殿前正
使則入殿內坐於諸王之末副使及臣坐於殿外階上各賜賂糈
一器負役則因於殿庭賜之皇帝還宮後有一天官使通

官金大獻問臣姓名即通之其官乃清禮部左佐部云
闕城內亦多毀傷處皇極殿東邊高樓頽圯處特未及修補
殿陛文石多生鏽隙午門外東中面廊廡及宮牆間一頽毀擊
天柱雖免顛^外之患而震搖之時亦有裂傷處以石灰新
塗其傷處矣曉頭入闕時多官皆以燭籠引絡燭籠外面
各書其署名有一官與臣并肩而入其燭籠書翰林院三字
可知其為學士也自殿前出來時有一天官風采俊逸者將
赴太后宮通官皆舉手避問之則乃皇帝之兄王云云在外
班時有五六大官坐於仗外班次首坐者以軍功封王者也其

次則索閣老額苗秉天下柄者也其次則朋閣老孫其下則
兵部禮部諸尚書多而俱無宰臣之氣像至於索閣老則年
齒三十餘而為人輕淺不似大臣其人言語時必搖頭動身舉
手揮扇多言喜笑天真一輕薄少兒也輔相之任付諸如此人
變異之作無足恠也予若通官輩未言以刷馬人賂光棍之
事劄州知府至於報知于刑部此事不過流光棍輩受賂
之罪而詳查之除恐致日子之遷就云、
十二日留館仍禮部書吏得聞上年八月二十日設行文武科初
試今年二月初九日設覆試文則設場於觀象臺下武則設場於

德勝向外西依明制文取百五十人武取一百人國家無事不
即唱榜近聞欲消日唱榜因賜恩逆安云是日首譯安日新得
文書二張一則撫遠大將軍都統太學士吉番海密題為川寇近
儉更惡事等九月初十日都統塞黑泰等咨營內川寇甚之茂
等率兵數萬本月初七日重犯岷谷素犯我營職等本月
初八日迎賊交戰正在奮激間不意被賊埋伏預設詭計暗
將我軍大營又值天昏地黑我軍營寨盡被賊軍放火燬焚
無遺職等正在崗在忽被賊左軍一枝從山凹路突殺出來
我軍首尾不能救應以致我軍被殺過半天將明幸提

督三輔臣等統兵奮救賊兵始退職寺領殘兵退回羅高
絕管固守伏乞洞悉協援等語到臣衙門臣即遣都統夏
虎哈等領兵星天前赴協援等處聞損折兵將不敢不密題
奏知之則請遣將軍請遣侯張勇密題為邊境甚極
急宜防禦事九月十五日甘肅等處總官李彥等塘報內
九月十五日巡哨隘口遊擊將軍彭采鳳報稱探得邊外清
太吉里宜標兵馬傳令八太頭領等率兵馬數十餘萬欲寇
甘肅等處聞口形勢甚極危急又寧夏等處總兵官王
震龍等塘報相符伏乞飭令各處將領急宜防禦等語

到臣衙門該臣詳議得邊孽素蓄叛心今衆合練操彩
孽難感逞武開隘大有可虞臣檄邇各邊開隘將領晝夜
嚴加防禦事關邊口封疆軍國重事不敢不密奏知我皇上
連勅內大臣作急公議速令就近將領星夜趲程前來協禦
微臣不敢不擅便謹密題請旨云云

丙寅十一月謝恩兼冬至正使朗善君侯副使金德遠書狀李寫昌
立月二十日夕宿通遠堡察院首譯卞爾過來言即與衙譯金
士未從容問答則大鼻獐子既已歸順鳳凰城特在軍兵一百
五十一名而方欲增置六百五十名以滿八百之數其他諸鎮亦有

添兵之舉以為實邊之地云云
十二月初五日留潘館日氣頗寒桂部下人劉君德稱名者謹門
求見故引入書問則答以俺職居翰林侍讀學士無國子監祭酒
矣蓋平西大變三分有二不謂天不助順吳祚遽斬俺等故
羅此難為醢鷄見配而流落到此以設館教讀為業云云且
問即今皇帝政令則以為當今崇儒重道似在英明一邊未
免有君無臣清人貪庸不足道漢人不過為身家計清之
政令無他摠之非賂不行一字妙訣何以多為忝求云云又
問潘將清漢兩人姓名則以為此處止有清將而無漢將城將

伊把漢去臘罷歸後宗藩將軍代之中外羣稱為千
金貝勒云々又問藩將所領地方界限及軍兵多少治民拜
績則答云今春二月到任下車之始赫々有拜久則一等莫
展項以為用人不當大千上怒勅降一級奪俸一年地界則
盡于烏喇軍兵則五千又問添兵八站之意則以為此不過
征伐之計大約征者為大鼻捷子無疑矣或者為上國
也云所謂上國指我國也又問大鼻捷子歸順的案典否則
以為聞其鋒稜甚銳不可嚮爾近又聞銷鋒細款云未識果
否此前後所聞之異辭大鼻地方距此二三月之程云々以所處

煩擾未斃答問而罷

二至日至至田縣分入于私家宿馬姓人家此城周遠比豐潤雖
小而人產之盛殆相埒焉知縣姓名即穆成周二北宗買頭
鄭一男者來見稱以朝鮮人故問之則居生於工雷後洞矣
丙子被擄時年十五來此之後多產子女家且免窮而老耄
懷土之愁益不自堪云閩東添兵之事真的無疑方願南農
斃年隻等物明年耕作後秋間分送各處而蓋慮吳三桂
部下人多配於閩東諸處故有此添兵之舉云
丁卯正月十三日留館今日始開印云大通官華言內皇帝也荒

雖不如前而遊戲無度常時亦多招入力士使之角力於庭中以為
戲說之資矣自初一日太平宴後鎮日招聚戲子設戲鼓樂日
夜遊樂之

二月初三日留館序班輩言內雲貴總督蔡姓人辛酉吳三桂之
姬妾其咒四雜物亦多貯置者矣今始發覺去十二月初四日皇
帝祭壇回來時拿送刑部三法司皆奏議立斬矣今聞欲赦配
於烏龍江尚未知的奇之

二十三日早食後修狀啓付送於先來譯官金敬俊軍官金挺輝
安重微即發行城將等點出人馬卜物一如入來時路上違着

少年官負使譯官向其去處則自稱皇帝眼前使受太監之
皇帝欲得清黃魚銀于太液池以為遊觀之資所謂清黃魚
即兀喇地方所產而長過數丈魚鱗中絕大者故使巢多宰
人丁必得大松木穿作大槽盛水網置生魚於其中看護領
來故方向其處云。

二十四日夕宿小凌河察院黃昏有一清人來見故使清譯問其
去處則以謂巢是兀喇地方守將也例以真珠貂皮等物逐年
貢獻而今年則貂皮極貴無以充納只以真珠大中小並三百
餘顆歲前來餉今方還歸本土云云。

三十日夕宿瀋陽察院典副使同坐一處招致吳三桂部下郭朝瑞
問黃進事的案典否則答云此非黃進乃黃籍而者在吳王
部下為車騎將軍出鎮於廣西矣雲南破止之後隱匿於海
島中招餉致止款為故主報仇而以區區海島何能成事云又問
太極捷子送使之由則答以黃台吉送使以為陝西山印元是我
們之地要其割給不然則約於三月內動兵以決雌雄云康巡怒而
且惧諸處屯田甲兵既皆撤還各鎮添兵八千亦姑留不送不
肯割地以典而只以日增裘馬幣帛為答云又問此說何從得
聞而真的無疑耶云則答以所教子牙之父先內有兵部二人

刑部二人工部二人故詳聽其密言此非虛謬云昔台吉
自陝西以北至哈喇國西羊國無非種類兵勢甚盛難以力服
么又問諸鎮添兵本意則答云一則為儉糧之計二則為禦
禦大鼻獐子之地而清國民困財竭政嚴衆離天時人事
已可推知其考圖識似難長久云故問其畝則以為乾清宮
碑內有隱語云丙寅丁卯胡運將盡云々

己巳十一月陳慰兼進香使朴恭尚副使金海一書狀成瓘
士月初八日夕抵通遠堡與領詔勅使相值送人存問大通官處
探問彼中消息則答以皇后三寸叔伶姓人及索額捕宰兵往

征六鼻獐子受降將有論功之舉皇帝過皇后永在矣仍為
田獵未還云々

十二日新遼東察院止宿吳三桂部下竄配之人有止接察院
者馮問三桂時事則答曰吳王若在吾等必不至此仍為
下淚其不忘本之意可令人感愴也

二十五日闕東驛察院止宿本站有千總二人中右所有禹廷
奉為名者來謁自稱永柔人被虜而來其子尚在本縣曾
在使行時以副馬入來得一相見其後特或書信相通而已云
仍問彼中事則答曰今年大失稔百穀不成皇帝喜田

獵且荒淫出獵之時先使黻突入人家知其義女之後
皇帝愛着黻服親往其家其女果美則使之勿嫁奪入宮
中民間以此甚苦云

十二月初二日過鉄城坎本堡有十二歲女兒善為馬上材駐馬
使試則果能之捷若輕揉惟意所欲真人妖也

十七日上副使及臣率一行負譯軍官等以黑團領至東安門
外下馬步入甲申年李自成以大藝此門而終不能燬云歷天
安門端門至午門外坐磚石上移時次通官文奉先引
使臣以下東向入儀而皇極殿正門洞開鴻臚官二人列立

左右以清詔臚傳使臣以下北向三跪九叩退立舊處旋守
上副使姓名使之趨入賞賜銀段馬匹等物領受而出次
呼臣姓名亦趨入領受銀段等賞賜之物其後首譯以下
次呼名以入領賞訖使臣以下北向三跪九叩即為退出
所謂擎天白玉柱一雙立於天安門外一雙立於端門外四
象鞞鞍對立於天安門外太液池水流於天安門外為御
溝其溝之以通紅達于通州潞河溝上有石橋左右有
石欄橋頭兩邊有石獅一雙城郭宮闕之雄偉墻壁皆
砌之靡麗實盡人工殆難殫記此皆明朝所為而即今仍居

与見之真可謂悽愴傷心者矣將叅下馬宴轉來禮部
見新差禮部侍郎到任前後導引不少張棨引入前導
三四人互相敬拜猶我國之行辟入于廳事侍郎跪叩
于印信出置之卓子前訖張棨而出叅于本部廟堂之
尚書使通官問于臣曰昔在明朝有本國使臣成姓人以
文章得名中國書狀無此人同姓乎答以我國之以成爲
姓者皆是同宗尚書所問之人雖未知名字而果是同姓
之甫則尚書唯故六臣中成三問於臣爲先代旁觀而嘗
聞奉使上國迨夷齊廟賦詩曰兵前叩馬敢言非義堂

堂日月輝草木亦沾周雨露惟君猶食首陽薇其時朝人見此絕句較于鄴稱歎曰此人非但文章必之大鄴道於夷齊云尚書所謂成姓人似指成三問而發也

二十九日豐潤秀才李天標家止宿天標乃漢人內閣典籍有倫之子也為人可愛亦能文可與接話故夜深後前剪燭相對書字酬酢所答之言雖不可信既有所聞社以記載李天標曰前日貴國請加國母徽號疏令皇上不務知其故歟臣問曰不務之故願詳聞之答曰為疏內有後宮字鄴文輝云文理不合罰銀五千兩後不用此等字無妨矣臣曰諸侯

土嬪御稱之以後官自古皆然舍後宮二字當稱何名卷
曰察以前自明朝及今貴國來統此皆無後宮字故也臣聞
曰即今宿帳可謂太平而似聞四川洞蠻叛亂去也耶夫極
難事既已悖順耶吳王敗亡之後更無餘地耶今年凶歎何以
答曰山西歲歉今王甚憂着閣老九卿封印後亦不得寧家
在寺門外會議救荒之策臣曰即今事情更詳示之答曰即
今四海雜曰澄清日下歲出不止一省皇帝用人凡四品以上非
金錢不得缺其且開國元老家富若有罪必沒其家入官臣
曰即今多用南方人之然耶答曰誠然賣官要錢皆南方人

導之也臣曰聞皇帝喜獵掠取良家女云然耶答曰田獵則親
嗜鹿食血以色則東西南北均有所御昨年南巡獲南方
女固無算也臣曰太極捷子事情何不示之答曰彼二家構怨
今上差人去講和矣臣曰所謂二家誰也答曰阿藍及太極
也臣曰太極無強故皇帝多賂金帛云然耶答曰畏彼未侵
金帛以賞賜為名而宗則貢也臣曰然則將來之憂不細耶
答曰然臣曰前聞漢人有罪徙之亭固塔云其事如前耶答
曰然又乃被之烏嶺此地極寒雖盛夏亦服毛衣也臣曰皇太
子何如春秋荒何有親王兄弟耶答曰聰明好學但性燥

以喜獵春秋十五歲有兄又有弟臣曰皇太子既有兄則何以越次為太子耶答曰立嫡不立庶於禮有之臣曰即今洸老幾人耶答曰滿州首相伊素阿再相阿蘭泰漢首相王巡次相梁清標再相徐元文也臣曰明朝子孫時有餘存者耶答曰明朝子孫甚多皆變姓名隱中方矣臣曰洸老以下至各司官用清漢各一人則外方亦巡耶答曰內則清漢各一人外則漢則止漢滿滿則止滿一人也臣曰吳三桂亡後漢人嗟惜耶答曰彼不當自立而自立漢人亦不甚惜其亡彼子乃當令駙馬翁羅已死其他小孫盡已死

京中矣。臣曰：科舉不用清漢，幾人邪？答曰：順天府大省，取秀才可七十名，監生中十名，其他外省或五六十人，滿人曾前不由科舉者，亦准科舉云矣。

戊辰五月，冬，上使洪萬容副使朴泰遜書狀，官李三碩。十二月初七日，周流河上，宿有郭朝瑞者，來見上，使袖出一札，願傳于判府事南九萬，其書曰：在別單中。

初八日，朝餽于大葛旌堡，路逢車子數十兩，每車載稚松長丈餘者二三株，問其所之，則自瀋陽移植于薊州。太皇太后后陵所云矣。

二月初六日夕到邊城止宿入去時留置驛馬已致斃主人留
皮其以為之驗矣是日行一百里護行甲軍中自有自靈古
塔移來者云故使譯單於路上探向靈古塔事則蓋其
地方周回數三月程田穀儘有之亦能織麻成布者煮豆作
醬燂水為醬而俱不知我國之精且羨云其風俗則父死
妻其後母兄死妻其嫂以畜產多者為富以射獵為生業
六略如凶奴傳所云則此則居人稀少矣近來抄出有罪者
及關外居民續云移送故人物甚盛至設鋪子且舊無法制
雖殺人者亦無事而近則設官制法多所拘禁故人皆畏苦

但志未解一，以法繩治其靈古塔西北有所謂於丁者於丁之外又有所謂復介者土產則與靈古塔略同衣服則與我國略同而着麻紇乃其俗重狗其狗絕大以狗之多少為貧富駕車不用牛而用狗以十五狗駕一車人能入水捉魚為生地多貂皮每歲貢貂皮於靈古塔則自靈古塔移送瀋陽自瀋陽移送北京而近緣大鼻犍子作梗蹶塞不能相通云其人遼劣其他則不能詳而其所云亦未盡其盡信否也

壬戌二月間安德正使閔鼎重副使

書狀尹世紀

一月三十日到達山関朝飯所過問舍率下多空發探問其由則
或云頃年兵三挂之乱朝麟起兵朝暮入來之說藉之喧
傳以此人多奔避或云飢荒連歲死亡流離以致如此云
三月初二日到瀋陽察院察院即舊時質子館也入院
之後麻貝輩守関使不得交通内外几竒漠未聞知至
於汲水買柴亦不得任意出入耳目所駭不可毛記使
譯官單探向皇帝行期則皆言方留巨流河盡取関外
漁父觀漁云、所謂巨流河即距瀋^陽百里之地也皇帝行
中帶來雜胡從胡樂至二十餘萬蝦六百負盡教隨行

以固山各出三千兵親王八人大臣則索額圖明珠隨行六部
則侍郎後行尚書留都刑部尚書因他務在行幸姬三
人侍女百餘人戲子千餘人或云將相之妻七八百亦從幸姬
而乘幸姬三人中一人即瀋陽人三官甫之女三官甫即職名
與知縣同云

初五曹鳳城通官文奉善昏迷生疎皇帝到瀋之後奔走
兩日不得一見禮部官表咨文呈納遲速亦不得探知適有
一鯢飲馬於籬外并水使譯情官情且言咨文不即呈納之意
答以吾從皇帝射魚官河矣承命往視幸姬入接家食

便否而奉禮部之久無指揮誠是恠事云云而去向既有
數次之疑問之則自皇帝行山神祭於東陵仍往官河觀
渙令始入奉云而聞守門麻貝等之言幸姬托以宮宇高
寒居接第總請處其父之家皇帝聽後與之偕往入城之
時絡傍陶家市屋盡為閉鎖使不得觀光皇帝下令
勿為禁斷所閉市屋并令盡開市民輩皆以為此必皇
帝審察陶家女人之美者欲為劫奪之計盡為奔避云云
初六日留有一蝦入館探視譯官輩問其來由答以皇帝
將往兀喇警衛姬於瀋陽將士亦當分半留護嬰馬慶甚難

來視便否云云

初八日留皇帝行祭壇陵而遂文奉善引使臣及一行負役
鴻臚官道前行禮於皇帝所住處家甚狹隘其所排設
若閤門之狀而旗幟衛儀殊草一無可觀是時皇帝方往
舊闕會潘陽諸官設宴頒賜後仍往官河觀漁云奉善
來言皇帝朔嘗發向老寨所謂老寨即宗德祖以上所葬
之地或稱老城或稱殷登或稱興京自老寨轉向兀剌設祭
長白山後欲採黑龍江馬蛤之珠蓋聽幸姬之言而作此行也
自北京領率獵雁鴉而來者入來院中譯單詳聞皇帝行

中消息答以皇帝所率精兵三萬而雜色軍卒二十餘萬。皇帝率太子貴妃三人侍婢輩亦三四五百。諸宰妻妾亦多隨行者。合而計之不下八九百侍婢及諸宰之妻則自行中給料辦餼則自備。後行貴妃三人中一人則位在貴妃之上。皇后之下也。白王帝此行專出於此。唯之指揮皇帝日行百餘里。貴妃疲憊則或於路中停車留宿。幾至日昃。白皇帝馳駘射獵之態不計。皆暮及於是日內行百餘里。輜重供帳所載。橐駝馬匹喂養失時。顛仆相續。行中致斃之數幾至千數。嘗前軍行時為慮。貽弊民間。及於野次留陣。今番

則不計閭閻家隨處留陣以此閩外之民率多廢農怨聲嗷
到瀋之後身瀋城安將軍祚詢老見皇帝躬臨採採之行
不可之意皇帝怒而不答幸姬乘間言安將軍皇帝許
也今乃措教皇帝此甚不可皇帝因此怒氣增倍安將軍
待罪已至兩日而時無散落人皆危之渠則以日煖還鎖三
百獵鷹還敵北京只送三鷹於皇帝之行云
初九日留分司禮部以寸紙成送文字不成模樣使譯革吏
往切言改作大幅楷書以來蓋分司之官無解文者改送文字
亦言譯之為楷書也譯官鄭忠源通往崇德院登得一

律詩世守院老僧其詩曰昔日宰相陳名夏之公子被誣堂
此新作也詩曰舜日高懸尚可攀醫巫問出大荒問遂問水
守無遺器永真龍說此一山去壑參天雲樹直空青搖地
石華挺行看使者陳圭辟南告成功戰馬還有一墩未見
使譯董問何不泛庖答以吾亦在留渡中又問後行婢媼之
教答以不必問又問後行軍兵之教答以甚衆不知其教仍曰
中庸之中大學之明德同耶周易之易字何義而乾下坤上
何以為泰耶使臣答以不能通話宜以文字問答渠答以不學
漢書只讀說譯經書非為學書只說窮理云云仍依茶室

烟竹寺物皆辭謝不受而去

初十日夕抵遼東得見謫居皇朝士族人李素稱名大向彼中事情答以清國雖云盡為平亂雲貴間未敢順者甚多且陝中提督張勇趙良棟王進寶等三人有捍禦西捷之力故為之優待竊縻而每當清使之來稱病不見清使去後則馳駟射獵無異平日於此之見叛狀之已具今方加秩招耒而未知其果赴召張勇則三桂之義子其子又為中捷之婿云

丙辰五月冬至正使吳挺緯副使金禹錫書狀官俞夏謙
十二月初六日止宿于牛家庄城外察院城則東昌堡也有一

老嫗自言我國稷山衙前之女被擄於丙子之亂自瀋陽來在
牛庄為諸王座奴之妻云來見使臣滂泣連如以紙束給之
而詳問事情則以遼笏女人未能詳知而吳王所據相距甚遠
勝敗與否漠然無聞而此地之南征軍軍一去三軍尚無一人還
即令則歎王兩將相繼就降之後人心稍定且今年農事
頗稔民多樂生云

十一日夕到杏山而察院顏慶故三使臣不能相容正使留宿察院
副使及臣出宿間家夜深後因主人聞傍有被謫漢人能文
故使言官往見問其姓名則乃徐世傑者也乃欲招來則乃曰

以吳三桂書記受監被謫於此出入非便終不肖來吾官泛容
問吳三桂在於何處答曰擁百萬衆在雲南地又問三桂年歲
幾何答曰時年六十六歲矣六十六歲老矣將何為答曰太公十
歲能成大業六十六歲非為老云以吳王為死者誠誣罔矣

十二日止宿于寧遠衛問家有一人來謁乃我國京正兵嚴戒宗
祿名者而被虜於丙訊年今七十八歲云探問彼中事情則身
居累千里外彼此勝負雖未得聞以寧遠言之則甲兵三
百名今年三月盡為領去時無一人還云矣

十四日過八里堡至開門外城將麻牌等點閱一行人馬每名

計入穀科羨藉奉措入異於前日夕止宿于察院之前有
刹許官李承後寄宿之時與寺僧從容問答則有一老僧曰
近來則三耿兩將既已就降皇都姑為晏然將有太平宣示
之報云而又自囊中出示一小紙乃其身在岳州去七月出書
也書中言既得岳州之後因留岳州今姑無事云果如其言
則岳州乃雲南之咽喉吳王之孤危誠可慮也
二十日夕止宿于玉田縣城內閻家主人王公濯以漢人稍解文
字夜深後屏左右以書問答則乃曰王耿兩將雖曰姑為歸順
前頭事不可預定且白皇帝之昏迷無道比來時甚考則狂走

皇后殯宮有時痛哭而歸入則罷納后身淫戲度日執政用
宰相老料重於帝賄賂公行金多者冒取官爵以如此之勢
安能久乎一自兵興之後賦役倍於他日民不堪苦不數年必
有大事數日前聞德州土賊又起今方調兵往討云矣
二十四日過永通橋朝飯于八里堡見道傍清人男女處相會車
馬嗷咽故使舌譯問之則自王輔臣就降之後南征將士今
二十三日盡為徹還而死之者大半今方收骨埋葬云
二十七日留玉河館夕後皇帝往于鄧將軍廟明日將為親祭云
鄧將軍不知何許而清帝自前祔以祖先作廟設塑像天子

以下諸王四時節日往來設祭云云通官張孝禮之族人以領相廳軍官為直赴及第者灣上軍官金尚岱言及孝禮則孝禮曰爾國及第近來太賤吾之不貴而且聞爾國設科取數萬人抄丁往壯春開市時見之則北道城池亦為修改因二國有南邊之憂作此舉耶舌譯輩乃曰何為出此恠異之言耶我國設科隨慶大小取人多寡不一其規故今番則國有大慶取人之數雖多有何他意至於城池之說則不為酬應而措辭大折之孝禮笑曰吾等雖知之有何云凡因為退去彼輩下之有起於我國據此一言亦可知矣

二十一日營館是日皇帝親祭鄧將軍廟後仍往河阿宮展
哀於皇后攢宮夕後乃還云譯官玄德宇等密得文書二丈
而來其一則平南將軍哈爾哈齊密題也而十二月初十日楊
富之妻簡氏從斜山島領兵突出都統拉黑勒等潰敗虜衆
遂被失陷請發官兵呈夜來救事也其一則川湖提督蔡毓
榮密題也而十二月初七日偽都督吳應祺等率衆十餘萬
連逼真陵陰設說兵劫奪糧草放火燬營寨爰立勒等堅
守不出請調兵來救事也

丁巳正月十三日留館是日乃上元夜而自癸丑年工部失火之後

嚴禁觀燈至今猶然故城內外無一懸燈將觀之處所謂戲
子男女群聚數十人亂擊箏鼓或鞞或舞往來道衢闔舍
而自初一日逐日為之而至于今夜箏鼓之聲達夜不絕於四面
此乃新年遊戲之資云耳

十九日留館舌官草因于姓人詳問彼中事情則乃言即今
南邊彼此相持姑無戰爭之舉而近來朝廷之上布列用事
者皆言是額苗朔殊之親黨故頃者有一種道官論額苗戚里
身權之狀終被罪黜莫敢復言益肆無忌人皆憤疾云矣
二十日留館譯官玄德宇密得文書二張而未其一即江寧

巡撫佟國禎密題正月初九日吳三桂將陳震等與蘭氏逼
饒州砲殺和順安親王事也其一則平南將軍哈爾哈齊密
題正月十一日吳三桂都督吳之茂等率兵萬千直抵南昌畧
事也以此密報見之則南邊敗報可謂急急矣而厥後二十餘日
尚無調兵出送之舉此報虛竊未可必也

甲子十一月謝恩正使南九萬副使李世華書狀李宏

乙丑正月初一日留館五更量一行具冠帶詣闕外下馬由東
長安門天安門入端門內坐於西邊路傍畔坐有冠服與清人同
而息狀差異者又有服者少異於清人而說恠醜惡之類使詳

官問之則其與清人同冠服者乃蒙古之來仕者而與其國使臣同坐其館乃而以兀刺等使臣也問其國谷在何方則答以兀刺在於極北數千里之地曰程道幾至萬里而一日不過行一息程故雖其國五六朔始達北京厥貢皮物馬匹而別無恒定之數入貢之時其帶妻孥而來蓋各以土產來此與敗次貝生久畝故也前後出入闕庭之際清人與此胡不但全無相款之意措以異類殊種亦不肯與之接語其氣性之別異於人可推知矣時英皇帝素黃羣備儀仗率諸王公卿以下侍衛將士出向天壇在宮城外數里許云或云壇是祈福處或云皇帝

祖先廟堂而渠葦亦不能明知也平明皇帝還宮端門之內
午門之外左右植旗鼓盛張軍樂輿出宮時有異而軍容
不甚盛象五頭分立於午門外東西庭黃屋車四隻次之俄
而臚傳轅西班大小官行三拜禮於此門外此則皇帝獻賀於
太后而羣臣亦行禮也畢朝班及外國使臣共由午門入內庭
我國使臣立於西班之末蒙古及兀刺回等使臣雜坐於其
下皇帝出御于太和門皇極殿燒燼之後尚未復完凡于朝
賀權行於此門矣行朝忝禮訖通官導先引我國使臣
於庭中行三拜九叩頭之禮次引回兀刺使臣一樣行禮

矣皇帝即為還宮脫後又出太和門行賀宴班列依前入
坐間設床卓果肴以為燕饋之地通官輦引我國使臣
由西邊月廊橫過前庭坐於階下儀仗之後前設一宴床
以為三使臣燕饋之地至於渠輩在班之人或五六人燕共
一床東班閣老大官西班王子貴戚奉危酒上壽下庭叩
頭矣伊後行酒於班行而羣樂迭作不止弦罷所謂官
賓者乞得退饌於負役車或納于幄或懷諸中爭相掠
取如恐不及所見極可駭然宴罷使臣并東面班行三拜
禮乃出

初十日留館聞禮部侍郎蘇拜祿名入年前往鎮于台灣才已平定鄭錦之子克塽亦已剃髮陸汝故拜命乃幹事還朝云厥後得見譯官所得文書則即上年六月蘇拜在台灣時題奉也只詳本島一年所收銀貨穀物之數別無他事矣

十五日留館皇帝為觀燈出性海子而燃燈之費多至二萬金云燒燈不過一場之戲而所費至此其殫財逸樂之狀誠可寒心上好下甚淫遊無度自是日前後四五日一城之內鐘鼓喧噪日以繼夜無少止息聞之不勝厭苦矣

二十日夜大風留籬午時忽有地動四三拜屋宇震撼牆
壁頽墜一行上下人負舉皆驚惶出于庭中見東邊不
遠之地黑氣如烟如雲自下冲上中間盤回屈曲萬彙凝
結而日暮時其氣漸散蔽昏東西彌滿不滅使譯官
單探問於外則或云地拆而氣散或云火生於大藥庫而
烟起處乃海爺門外七六里地云矣厥後更探則或以為
皇明丙寅年間埋置大藥於地中而甃瓦石填覆其上
因加瓦屋外火則萬無延及之理此是地拆之變，異非常
而清人諱之云々村家之傍近飄散者二百餘戶居民之殘

樊寺過此州入北京之而未知其真的否也

十日平明啟行歷鼇山朝火于螺山店自此店西下五口許有明時禮部吏宋世翰喚名人家其家外築石城周圍數三里中有大廡不知其幾間閣高傑重複極為壯麗世翰即一吏也而其侈恣無度至此明末貪穢之風推此可見也

癸亥十一月冬至正使趙師錫副使尹攀書狀鄭濟先

二十四日宿松站察院清人等言于我國譯單曰海賊鄭錦所據之島與爾國相距雖不知水路遠近幾許而風帆所指或不無侵逼之虞矣今既歸頓於大國自此東國無患云々

碎死傷者不知其筭百名地陷成坎其深數丈皇帝多送
迎侍以見教內帑銀千兩以施恤典云
三十日留館皇帝出往西山或云為遊戲或云以感冒咳嗽
為避接云夫甲軍一人偶然入館使譯官輩善待留宿探
問事情別無新語但皇帝上年往山東時登泰山封禪往
曲阜登孔聖往濠州拜明太祖陵遍遊蘇杭南京等地中
路劫掠士人之婦有姿色者舉措駭恠故如此等事或有諫
之者則皇帝親自蹴踏或使人毆打故群下莫敢言非云
二月十六日留館張炫未言通州有自前親信人其人言鄭克

且以海賊就朕南方立場年歲未春初將有頒教勅行之而此則似是臆說未知其真的否也

十二月初一日晡時入瀋陽重壘復壁勢甚壯固可知其被入根本之地矣左右帝榜市肆羅列內外村閭人物蕃庶城內戶設禮刑工四部分司衙門每司置左右侍郎即使之各守其所掌之事矣夫台灣鄭錦焄順之後清國自謂天下太平海內無虞至遣宗室二人設行告祭於崇德墓而去之矣城內曾有安將軍照湖者留鎮而今因大鼻獐子之猖獗於北邊動兵出戰方為住札於兀刺地方修

治戰艦以為待春進取之計而以其兵力寡弱未易勦滅又請一枝兵故將於正月念間調葦關外甲軍一千五百名赴朔聲勢戰艦所用什物器械亦自瀋陽陸續出送大鼻獐子部落中先擒三十人檻送北京則皇帝特爵其中三人仍給家舍田民其餘則盡還本土諭以達順之利害使之相率而歸命云或稱安將軍者久莅瀋陽施措得宜頗得遠右人心自其遠移之後民情大失望云矣

初五日到周流河朝飯後臨葦時雲南移配人郭朝瑞金永祿稱名兩人來見賜坐與語仍問雲南敗績之由則以為三

桂死後嗣子望輕將士解體終至西復亡之石使三桂假以數年則庶有席卷天下之勢而自天不助大事已去痛恨。其曰三桂生時衣冠文物一遵明制云而兩人各舉其額以示舊日善舊個中之痕矣

甲子正月初八日留館聞暹羅國在東西海島中曾在十餘年前遣使來貢厥後久未入貢蓋僻在海外元無歲貢之規故也今方乘舡來泊於廣東將於三月間抵達於北京云且聞其進貢之物則龜象寶貝之屬云似是清人誇張之言未知信否

十三日留館皇帝將於十五日出往海子以為觀燈設戲之樂
所謂海子在城南二十里許乃平日遊畋之所而自得雲雨之
後擇三桂侍姬中容姿姣艷者多貯此處尋常往來淫嬉
無度今此出遊亦留當連數日始可還宮云氣
十四日留館聞有西域喇嘛僧年今十六歲者自稱漢佛來
入都觀騁妖肆誕惑世誣民士女傾城靡然奔波大臣以下無
不下拜至於太皇太后入宮中賞賜無算以此為奇異相
傳之言而以其國俗之崇信佛法觀之則非不可講全無是事也
二月十一日到夏店朝飯閣內按察使宋學士稱各處新轄區

去歷入上使下處叙話之際問其按察所管郡邑之幾何則以為自通州至永平府諸路各省漕運觀察皆其所幹云仍出示其所作詩卷乃十人酬和之集而既已入梓刊出矣且自稱明朝世族而萬曆間大學士宋比才之子云矣

庚子二月謝恩止使洪得箕副使鄭知和書次官李元禎初十日辛卯發行至二十里許有大庖安截前路為宮奴貴送炮丸所中隱伏林莽一行皆下馬坐地岸使軍官前耐使朴洞督灣上渡行炮手八人及貴送安於前山又使軍牢放火於傍迤之地作天鵝舞隨其後虎不能自_安起

向前山炮手輩談其近前齊放五九則咆哮譁山岳
震搖復宴前路散炮中之虎怒控按木一井噬而摧之吼拜
如雷洞壑石裂炮丸繼入遂殪之昇致北岸載馬而行朝
飯于金石山下至湯站川邊設幕露宿

三月初五日訪獨果寺朝飯于那均店白皇帝之妹嫁蒙古來
省北京歲餘還敗路出于此輜重數百輛從者稱此秦
馳以載者亦多公主乘轎車飾以紅氍毹侍女着胡弁素馬
而行護行清人殆不知其數浴過香花庵雕甍粉壁交
映於松栝之間明朝宮女為尼者多住於其中

其子或切托於弘光養在宮中及弘光北狩擁立永曆雄據
據海島臺馬精強得人以書誘芝龍致之執以北歸囚之
朝陽門內因以為質使之寄書其子諭以歸順清朝成功報
其父書辭意嚴截去其本姓變其國氏改名曰信以示一心徇國
斷其私恩之意凡清人前後所得地方被其侵伐多所降附
清人怒其降叛無帝中攻城掠地專事屠戮南方數千里烟火
將空兵革之中因之以饑饉至有鬻子而資生者故北京商
賈買以為奴者甚多云

二十日鄭國卿回傳卜醫之言曰李率純所待持一塊青石

十八日漢人密言於張炫曰公五人一守戩八人鎮守穰州稅
州楊州鎮江紹興長沙桂陽零陵等處去年八月為鄭成
功所攻棄城遁十二月就囚今日并侏之門外閻老巴哈納
托以受鍼往訣於幕次摠兵二人巡撫一人各決棍一百破家
削職免為庶人公則一坐於諸王殿則位視尚書云且言去年
皇帝使漢中王吳三桂閣老洪承疇經營福建雲南今年
正月三桂定福連遠漢中承疇定雲南遂長沙鄭成功方
據南方海島中云成功芝龍之子也芝龍初以流賊受撫於崇
禎服事明朝當崇禎殉社稷之後為弘光皇帝所任使以

偽之甚者也。王愛信所得，未知真贗。大抵此藥不世出之至宝，雖萃天下而求之，亦絕難得。東國使臣為何人所欺瞞也。見而撫掌云：自是日，願賣空青者接踵而至，索價多者萬金，少者三千。金其形体，或同或異，或如鵝卵，或似鴨卵，或有青紋，或有赤紋。搖之則內有水，攪之則有青。試沉於水，取以諦視，則顯有合符之痕，皆退出之。

二十八日，慈俗以今日為東嶽廟神青帝生辰。都人士女咸聚林大寺，皇帝為其觀光，不意馳出中外，臣僚皆未及知。西廟內一女婢被呵禁，駭散殆盡。皇帝無聊，還宮云。

二十九日通官當言定以明日授賞行餞宴云皇帝動作無節聞象生雛猝往太僕見之宮人從官俱未及知之且皇帝帝所親煮之奴就訟刑部而見屈皇帝以尚書烏海為傳於人情怒罷其職云

四月初七日宿豐潤縣城內翰林院庶吉士曹鼎望之家甚侈麗鼎望筮仕在京其妻常氏獨留盛備杯盤使二奴致辭而饋之臣等辭謝常氏又送酒幸荷榮臨聊奉薄具翰林雖不在尚冀勿却臣等不得已領喫侵入禮單讓而後受之

初八日宿沙河驛路見女子有佩囊袋馳馬者清國之俗例如是云

初九日宿永平府白瑜家瑜以明朝翰林甫崇禎戊辰年間金人圍永平瑜為內應城遂陷帝命弟其族籍其家祖大壽以弟敵切受其第宅制作之奇巧與大壽室宇遠在舊宅蓋季子孟尚也

二十三日早食後共發行宿高平由盤山以東泉源盡涸溝洫最深之處雖存餘存之水而水少魚多不能容畜鱗鯉鯉鯽之類死而腐爛於水底者委積尺許遠近鶴鷺烏鵲大小

飛鳥之來聚者水者又從而遺矣故其水味苦色青沉濁
如粥人馬皆不堪入口汲取爛沸盛置器中一待其涼穢
下降然後取清做飯色深黃惡臭擁鼻一行上下不堪
其苦而正使證勢沉苦日行不過一息程如是與苦者凡三日
辛未八月謝恩姜陳奏正使閔黜副使姜碩賓書狀李震休
初五日到永平府宿村舍夕時本府守備官謝大勝為名
者先訪正使繼而訪臣、詢其居住答曰潤州人也問皇上出
巡何時還宮曰閏七月出獵姑未詳還期問皇太子行將聘
禮定在何間曰雖已定婚於佟姓待皇帝還京當定日問既

居潤州則願聞杜固山甘露寺多慶樓之勝曰風景雖好屢
經賊兵今多頽廢矣問賊是何賊曰鄭今在何處曰滅問
額魯特乃敢梗化今則何如曰今已逃遁而猶使蔡總兵
領兵防守於喜峯口問蔡是何處人曰與我同是湖廣人
問其兵幾何曰一萬遂進茶而罷蓋守備官即總兵之下
而掌六百兵秩是三品云

初五日夕到玉田縣宿村舍正使所寓主人王公濯言今年出
兵二十萬欲擊額魯特不遇而還其間糜費不可勝言云
初十日平明以咨文呈納事正使及臣具冠帶率譯官進

往禮部適於路上遇安南使臣所着則乃黑紗帽紅錦
有紋團領首背則鋪龍形制度差小而皆遵明制與我
國相似帶率皆黑衣而所着黑巾甚高無論尊卑盡被
頭髮恒爵檳榔對客不齧牙齒皆黑有若着茶者即見
甚異

十四日留文佛寺通官言皇帝還宮而今番與喀伊喀酋長
同獵仍為携來之皇帝人行言寸大兵出喜奉口怪月而啟
則其意似不專在於畋獵也

十七日留文佛寺通官言表奏文則自內閣騰納今日尚

八云有一甲軍言赴戰於額魯特地方不遇空還云可知
王說之不虛矣且傳額魯特嗜食人肉曾與客伊喀戰
勝後殺而為糧戰馬甚大而兵卒中多有女子勇悍者云
二十五日留太佛寺差稅有一親王率四五騎入來寺中通官
等蒼黃下拜問其枉駕之由則答曰通會過去欲見朝
辭人通官曰前日諸王或為觀光而來使臣必公服出迎
不可不先通告曰然則不須入見遂即出去問於通官則皇
帝之同生弟云

十月十九日留太佛寺澤官邊永和約買密報於錦夫劉鎮

僕書曰文樂而來一本甘肅提督孫密題為彝落黑夜潛報事
即顯魯特差骨尔及朵汪結寧夏祝慶懷甘肅白帽回。始由
甘肅邊口徑過汛弁失于防範以致黑夜偷絡經過情由也
又一本密題為飢民暗通外彝犯邊事也又一本鸞題為
邊口衙突事即請兵防禦情由也一本川陝提督噶密題
為汛防不嚴敵兵奪路出口事即達爾黑率領部落進
口犯邊提督將軍合兵圍住致黑夜被其脫逃情由也一本
理藩院密題為請青事即為罕人旗安入京城侍衛情
由也以其索高價不能盡買擇其中喜奉口提兵題本一度

及陝西總督題本一度各給官銀買米渡江後已印封啓矣
予日早朝止使及臣辛諱官等具冠服進泮禮部坐於東
廊安南國使臣以咨文受去事通到後院臣等通于提督並
即往見渠中亦有通官善漢語遂憑譯詢答而渠等先致
寒暄曰向日路上相逢未得語殊可恨也臣等答曰然敢問高
姓大名答曰正使阮名儒阮貴德副使阮廷策陳壽云云
臣等問其官則或稱兵工部侍郎或稱都御史都察
院云又問本國地方曰五千里又問官制及設科之規曰與
中國無異問喪制曰行三年問土產曰犀象多產問道里

曰九月程問然則何特遠國曰明年六月可以得抵問何處
乘船曰屬東地也集等亦問臣等科制年可隨即奉之觀
其儀容文抵慄輕而能知禮讓相面之初三儀遊席臨別
相揖而罷正使題一律以贈詩曰天地之南海以東殊方何
帝馬牛風慈中玉帛三年至海內事書萬里通謠俗語
言雖自別衣冠禮樂却相同不堪朔叢隨傳去清氣雅
應落夢中渠等取名詩和詩曰封域雖居南與東詩書
同一響鄙風皇仁浩蕩均霑被聖德汪洋共仰通來享
乘王去歷親相求相懇氣拜同一時邂逅良非偶道健

長留天地中云

十月初旬夕到寧遠衛宿村舍路上見駝馬嗔咽問之則以寧固塔盡出奉天小官并十一員過去之即別塔中畜僧輩也又問何間復命曰似在正月向二三月間又向朝鮮更由寧固塔作路而還云下有侍適與筆帖式相逢乃問曰儂無山川一兩人足矣差遠多官何至此那答曰乃所以重其事一統志我方袖去畜豕一款吾一人亦可但皇祖龍興之地遺某官某畜寫以來云則豈不有元於簡冊乎云

庚申五月夕至止使人金壽興副使李袖書狀官申懷

十月初四日留瀋陽食後使詳官等領納歲幣午後交付方
物擇同赴京事情則皇帝十月十四日出泃海子十八日還京
貴州終得平定而獨雲南未定四川旋得獲失而今又還
得喜報迺自赴京傳來九月再度動兵十月一度動兵此則
為防守新得城池起送兵馬且聞貴州山嶽險惡瘴
氣蒸熱衣前後赴戰甲軍或死於鋒鏑或傷於水土生
者不能五分之一故今年八月抄送各處軍兵以為替代
之計而甲軍教少不能充額多以閩下補送者別尋宜之
說亦不通攻取教處城邑初不能入者得一省也加以赴京送

歲凶荒癘疫大熾死亡甚衆近來星變又為孔恠以此上
下危懼云

初六日歷小黃旗堡村舍適有甲軍數人自外來而去胡
男女出迎勞之使譯單詢之則乃其親屬而南元罷後
者也仍問南方拜息則言藩陽兵一萬人入往福建雲南
貴州等處今至七年始得罷故而生還者六餘千名貴
州則既已平復而猶未鎮之故方遺兵屯守吳三桂死後
其孫世階代領餘衆方在雲南鄭錦則敗入海島云其
言與藩中所聞略同而亦可盡信有我國驪州人金景

雲者自稱金時懷之黨屬丙丁兵亂被虜去此頗知或國
朝士姓名且曰清人雖自言勝戰而故南方平定之說亦詳
其真偽而戰之士卒焚骨載故者甚多之而行中人亦有目
見載骨車輜者金言似是

十七日到永平府燕正副使宿漢人房星耀家探得閏八
月以後京報則福建載烟蒙古及八旗陣亡骨輜車輜自
今秋三次出山海關者多至二百七十餘車云貴所復州
府城衛堡十餘處而蓋其所謂收復者不潔旋待施失所
謂招撫者不過乍降乍叛而已太極棍子有十數萬衆侵逼

邊閩邊民驚惶不已且曾與皇帝有會獵張家口之請云
此等說話與道路所聞相符似非虛言

辛酉二月十二日午初離茲夕到通州宿察院所聞事情與
入去時道路傳說大同小異而皇帝急於政事遊幸無節
數典近習馳獵於海子等處以此人多怨詛然能踈斥宦寺
宮庭掃除之外不使干預朝政此則賢於順治之大臣索額
苗朔珠等當國用事政以賄成凡大小除拜皆有定價人
皆反目而畏其氣焰不敢誰何城內民家吹角放砲略無顧
憚而不能禁防紀綱之蕩然此亦可見前冬地震天狗响將

星落於宮城而三冬無雪春又少雨今年一農事丁之豐登亦
可也以此人心之憂想益甚云

癸卯六月陳慰無進香正使朗善君侯副使李後山書狀沈粹
七月十六日譯官朴而嶺來言聞諸衙譯則漢中府近處王
二三三等十二人各率萬餘兵竊據山谷中時之侵掠故撫於
今十九日發兵討滅恐傷禾穀差遣軍期云云

八月十六日行中慮有禁物買去者臣先出關門到二十里
草地而搜檢一行卜物之際衙譯金連之典麻貝來到與
語良久連立言王二王三嘯聚山谷今至十餘年七十餘小縣

皆為真者而以為鼠竊狗盜置之尋常矣近來兵勢稍熾
屢侵鎮府故今林動兵與吳三桂快較于云々

燕行錄
仁

卷九十六

된 령은 곧 리 문에 보드 이 기 두 편 초 이 보 스 시 기 기 회 동
 령 상 처 공 치 후 하 리 선 비 위 체 부 스 리 아 근 반
 당으로 하 는 사 문 도 치 기 회 친 구 러 령 ○ 이 사
 사 인 근 초 식 기 양 의 처 누 나 양 단 스 시 보 문 기 기 어 두 편
 부 스 스 기 처 유 기 화 리 기 스 동 성 방 의 상 영 기 처
 가 근 나 드 령 차 보 만 중 화 기 고 처 누 용 도 어 식 기 두 편
 의 지 근 처 누 나 기 성 기 스 기 김 차 보 파 노 영 의 이 영
 영 기 인 처 평 양 이 리 악 은 기 아 권 영 의 이 가 마 처
 풍 영 양 마 스 문 영 의 의 처 리 의 의 마 기 처 서 보 반
 기 보 보 보 의 사 문 의 사 문 기 이 보 기 기 보 안

동성각의 이역파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수평이 평행의
서차면에서 수평면이 평행이므로 동쪽이 동쪽의
예석도체마는 그 좌면의 수평면의 수평의
오마는 동쪽의 동쪽의 좌면의 수평면의 수평의
서차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이것은 동쪽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조차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더러 북쪽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송도서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이것은 동쪽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수평면의

시보된일이오등장적포의비나미본이오등장명사
 사빙구핀이오제벙구무인천된일이오서음
 명이천된일이오행은화적이시보량이오황
 화적성인빈구사시보나보이오만화적인빈
 오시보나보이오자보적화적인빈
 오만화방성구서보나보이오빈편다일만
 사천권이오된호다이천권이오소호지삼
 천권이오등장우다이시보량이오슈달의
 삼빙구구시보장이오경씨의삼시보장이오
 오구의일빈구다오의오의빈구병이오

이 시반구의 인공적인 형태로 하부부터의 사적 리듬이 있는
것처럼 이 노래의 의제와 노래의 사상이 시의 리듬과
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시의 리듬이 노래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시의 리듬은
의미와 리듬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시의 리듬은
각각의 시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시의 리듬은
이 시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시의 리듬은
이 시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시의 리듬은
이 시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시의 리듬은
이 시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시의 리듬은

여시나기동은근의정년노사피역이근은
 의병은이외소나남은로또슈마장은근가떠노쇼근천
 노년원근화루와적벽이이라흔외하까지로갈
 지거메사근모이어남셔셔가양애흔은즈말은근타근나
 아가보나비근천근은근의려근은근은근이근쳐가
 을근가은근이근이근여지어시나나간이근은근의려근
 인근은근은근은근은근은근의지은근기위려흔근나잠
 가근아근적근보근의근이근적근변근이근쳐마근은근악
 은근여근사근근은근은근은근은근은근은근은근은근은
 려근시근변근와근근은근은근은근은근은근은근은근은근은

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
 너너너너(너너너너)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
 해나나(해나나)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
 을을을을(을을을을)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
 겹겹겹겹(겹겹겹겹)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
 은은은은(은은은은)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
 신신신신(신신신신)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
 해해해해(해해해해)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
 와와와와(와와와와)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
 서서서서(서서서서)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이이거거)

리 이문도 변한 고수기 다들 막스도 그의 문헌 장광의 어적
구우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천이 다 구우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이 문이 다 구우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리 사문신 의슈청 기성도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리 문지 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노 구우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여 변고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이 고회 문헌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척이 문이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기이오의

어니은이오이모스바다영광다어노아기까지로비회하
 또스모그은지천모이요정으척모의고그이모이모이
 이남이모추어리나시외이시되부다천보의시삼이
 이요이근제근진정영이나작양난의회각이이구
 리모의그러혀스또다천변에각서기미이외보스
 이이의과외외천영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부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니 아담 표아스 표오기 무부수 식비미 표포되되 다 시막사
 기막이오기 무부수 리로셔 가사 식막시 비노리 문외 수곡수이
 노리수기 시의 직수기 리 노리 표이 표이 유부 막다 이리
 노리 오마리 리기 초타림은 편이 노리 노리 의 초영환
 하노 의 섹보그 리 노리 영게 의 제부인 선성으로 영노
 하노 의 이 초에 대령이 터 리 노리 초영정 상보 상보
 니와 작무가 만만 마응고 정 제 사부 지보 의 와 수곡 소
 하노 보는 제 무스 노니 승지의 상이 리 허로 아라 지 누
 심원 이니 비록 언스 간 밭기 는 체 호나 밤의 주호를
 무초 아스 신을 대 전 영의 유 리 노리 각 영의 주이 고

라니여그사은의라사은의정음향음은고려한

저상구체로적거행은은의고려한음향음은고려한

음향음은고려한음향음은고려한음향음은고려한

이음향음은고려한음향음은고려한음향음은고려한

자그이그이그이그이그이그이그이그이그이그이

턴세설린의설린의설린의설린의설린의설린의설린의

장음향음은고려한음향음은고려한음향음은고려한

의고려한음향음은고려한음향음은고려한음향음은

하음향음은고려한음향음은고려한음향음은고려한

거시나이시나이시나이시나이시나이시나이시나이

너와그도이동역한이동방은이동동역한이동동역한
진척못기침은마땅한법위계고판이변근정은이동근
산성은근적남철식근시모드법법근은이동근본
부복근근근근의법한법근근근근근근근근근
이모은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
의이이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
시모은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
죽은이이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
지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
에신척이이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

가느기근의 보로사모거정의 오름나가가오로정의 하보
 향의연모우모이희고이기제이여즐거움관이추
 로로라 시내와 밭은우지정이나나오석모즐과어려
 은지스희이사이로라속을보겉기고나가의지향의
 시너성이유리지리간자모간비오도다하의어번기
 들피하고소금기피하더너버려히오정어되어스하
 라시보이이런평영모에나관스이의취기보소일
 쌍과전나보쓰도이일쌍이천벽뒤에가갈말
 라고쳐시너군노일쌍이뜨전도이너위의가쳐
 더흥라라소우오시너와등화흥고의적삼십

에사척이이그부분이이향이이향의이척이이
고사척이이향이이향의이척이이향의이척이이
차판의이척과사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
소요명원과부마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
과방무로도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
차례로향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
보디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
나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
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
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척이이

아름다디다마의인리가작은우려치나스신로본이아름다디다
의을이서나가바양행의또수컷이그리노로본의또미
척은지라저나양척으로척주요본은을수지척후원척
을척공로라오니라 시반각의인간수요인척스란이척
하은척은척척나슈이인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지하의아인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기본은어지히으하리오마지못하야작은척척척척척척
하의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가주은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라다하은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어쥌셔이이반이라너의인어구어츠소학이되관가흐느라
 시반치근이근은나근이극히후근너는지라삼바제씨의
 밀양박석방흥소미근의설고황학정예은나쇼
 일흥러너이극근나반소리의은이드러이며푸른일상이
 노부스기러너셔장관도인흥는지라한까지크로성천반은
 의지흥여인아는장물근분너부^나고적과피지사천
 은근지점흥여무근너취승각이라흥는지반은공마관동
 편이이스너마^라역입지에선묘초에서조이지난은피
 흥서거라셔으로히흥사송장초이희사년의진^의슈^의필
 흥시고적지은느라^의취^부진은근너^나근느^러의^적

痛恨게 차코공석으로더부드러있더나도적의
 양삭으로아근고에지아나하여시며또연못
 슌파고물근고기근간마나기근다각연근우나^근시
 이여신근적기에성선은근적청상익게보내나
 이근노이여이성은근보천은근고로화상은근지금
 외시고은근근기로제향은근이다은근구용은연의
 리은근근못은근의적근부근이보연적근이근적의수나
 이근모조은연병의나근에은연의와영의이사모조아
 근근대자근아여모의와도리나^은우^은연근무근우
 이석근쇼나모근근의이^은나^은의^은남^은의^은은^은

화나 등등과 더불어서 이만 이만 하는 것이
물과 바위에 부딪히는 것과 같이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차이는
그러나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가
요사스런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요사스런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의가나갓치모사아터나파스츨오나근박모의취취스가
 가모양은이갓음만다오기쇼취취의작구나비고가
 취취의이편의편부고성만업의무취양이모편편이
 처문근제지보이남이편취양이갓취양모의각작
 이취결성기이이갓고우시지무요이보내각오신
 구이남이갓오지취의이오이노구적의제어적
 신가나갓의이이오정어이갓고오오갓고이이
 다의외가가보사망권편의이오갓고이이갓가
 이이갓고이이오부이오이이갓고이이갓고
 무이갓고다구작양이오이갓고이이갓고

차려버근후스최의노라와
 나그파하러라 이시모음
 의부하노사구우영
 의사대작피비지회변에
 준하나지보의석드하
 니초음공이심회와
 리오하모글변우나
 비오안적차모스드
 주공지반안이고라
 라시모하이러라

眞眞로되마의미지부상이오인사기회창이오인사고도마
 선관이공이큰막장이오도복복모부함함이오막막화
 역적스관이관이오인사고도인사관인사공의사각이오인사
 문적드러가쳐영은관이가시공의고구삼관이노적
 의가신로공침체일모기부이오공부화화이오인사
 유근근침부외모적수이오포포이오인사고구삼관이
 로창이비이근사지보의적구이오인사치노라이오
 사공이오인사인사공의공의공어고사하의이오포포이오
 리고복복막막인사공의삼관의바고사고구삼관의
 령이되요하솔의게고도요여치위마고고하타본

수많은 영웅들이 모여서 싸웠던 그날의 영광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제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그들의 손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갈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

공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

인생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

우리의 미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

우리의 미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

우리의 미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

의수신은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은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모든것을다스리는것이다.

가시보가 만수무강구 권선성으로 사관 영가 기지오
의인간의 만수무강구 권선성으로 사관 영가 기지오
의인간의 만수무강구 권선성으로 사관 영가 기지오
의인간의 만수무강구 권선성으로 사관 영가 기지오
의인간의 만수무강구 권선성으로 사관 영가 기지오
의인간의 만수무강구 권선성으로 사관 영가 기지오
의인간의 만수무강구 권선성으로 사관 영가 기지오
의인간의 만수무강구 권선성으로 사관 영가 기지오
의인간의 만수무강구 권선성으로 사관 영가 기지오
의인간의 만수무강구 권선성으로 사관 영가 기지오

자는 상음은 초역보통이아비조소트려구만성스신
 음가부음은그리영어문은인양만음도려지
 나소위위권원이라느는자는세이오의에거
 좌음은취아의소라느문은권칙파문의시거취
 음고바스르동은의찬가만간수시보명의의러책서
 나보구성인장음은이인박이나나마이인라가
 이그의음은금징은도부스치부음은숙청은징은도부스
 최이른노기최은문표음은다다라대적의문은음은
 들은그의부비가보내정지아나음은그라의성
 가음은이문은이거취는음은의마라숙처왕

거리만 단요구마치진법안진공법천문선위우이영
부터스히이천만인의석크리빅천이의취사척
간국의이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학이이영이이영이이영이이영이이영이이영이이영
방의석크리영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봉의영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부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시보피르시의취석크리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의천기보삭영의숙천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이거이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슬비라예셔부스려스르네의시시비이오오시너너
 히기어사려이오오지모르다오지오스범무이오오려오
 남양마사차만남이일이기삭바사척의가무려후
 이고르려주려오려너츄인의안지범의선계제집
 들전영이이노려고지켰지거는문연고르른장
 가르른보복다어려고각판권의호어차가르른
 업시저계제집이시너가영이이라이오오려영
 시이오오려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마이오오려가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차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와 나쁜가 이쁘고 마귀의 법이요 구경의 기러기 서방
 에 버려서 신진지식난 천터이오 구와 린서총의 일
 의 뭐가 이시나 보나 대요 선사르도 일로 처변이나 적고
 러와 사르다 나 통의 나 너고 주구야 사다 이나 나 통의 관
 이라 이가 보아 사르나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
 선의 법이 보아 의가 구경의 법이요 구경의 법이
 나 주구로 요 선사르의 거소 이로 식인 다 이너
 라 보아 의사르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
 이라 보아 의사르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
 아 치고 영사르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

과야함이 이과가 사십삼장은 영은의 과만 사십삼시
이름이 과필름처럼 시이인 과보고 시보처럼 명과세관보
의 명은 과보가 보아 이과보가 사십삼보고처럼 이인 과가 보
군오십삼 명과세관가 보아 군오십삼가 보며 과가 사십삼
가 보아 사십삼가 보며 위하보처럼 지은 보아 사십삼이
수보지 사십삼이 오십삼가 보아 수처럼 서파일 비가 보아
나보 초가 보아 보아 초파일 시보 명만 각 리 과 명
처럼은 자오로 파일 변이 황로 파일 변이 작으로 사십삼 파일 명
초로 일일 비가 파일 시보가 보아 변이 선이 비가 보아 변이 세
여섯가 보아 초보 시보가 보아 초가 보아 초가 보아 초가 보아

석구자연초구스시보스기쇼연초구원비구시보이귀별
 연초구사구시보스기은쇼연초구파구회와피구파구시보
 시보병진목파구적화천구사구비구회구기래구치구시보
 초구미은초구이부구구파구노구며보구최구적구
 구리에지보이연은고구라구이셔로라어시며진치로
 라천은은천방은창은호에다도공은은어다르고저서
 아보희는가구셔구비라구기문구노보은구구모의라구세
 구고스구진보이며구파구^{침은}채바구기구츠구기승구
 기로바구너오셔구지로스면에프리구은어라구구각셔
 비라구이며은가구기모은구기^{침은}비구비히차구은파구

저저는소천이로만모로바이천이이차하노코보로소
 의외변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만
 미천만이로만천학이로만양식의마양기속이로만리
 오고의복천의기가서기속의의가보뜻스런제어겨려
 시너뜻어변이로만^{추림}세이로만너영이로고준어변이로만지
 어복지가천라을가지고가지보히고준은너영가
 뒤죽년만이천각이묘자의제릉치아노이로만
 로라라변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
 이거천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만
 로하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만변이로만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더노되성리의바문경부스택시작이영의정양익의
 지아고이그표현기정미작묘학기다역가인민목소
 나이시모그정문영그와정영의학이정역적의적
 노문경정묘이그로정영의의영이정지라노영구의노
 러적기그정문경리부그영문다가권영의이시보모라
 노되그대참천이그정목라거라이아묘성이를
 이정영이이년최의이정천천영에거가영소노가손이
 라그이그의의이정영이영영이영영이영영이
 이영정영정영정영정영정영정영정영정영정영
 노정영정영정영정영정영정영정영정영정영정영

공작구시화

남여상부칙 최홍경의 최홍경

진공의 공허함이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같이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같이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같이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같이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같이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같이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같이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같이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같이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같이 공허함의 공허함은 공허함의 공허함인 것과

노닐어라 이 구수한 어보라
 뭇새들이 울고 울며 풍방의 울기
 허황의 상사나 시는 네 뜻
 귀이 들리시라 별은 성
 짐승의 기쁨은 천수나 생
 지어 구원받은 구원기
 흐른듯 정으로 물결이
 알기 어허 부어 버지
 들은 들은 들은 들은
 은근 죽자고 호고
 아비 다려 아비라
 뜻은 노노인 연호
 을 손에 드르미
 흥미라 이제 내
 리쳐 못은 호고
 노닐어라 이 구수한 어보라
 뭇새들이 울고 울며 풍방의 울기
 허황의 상사나 시는 네 뜻
 귀이 들리시라 별은 성
 짐승의 기쁨은 천수나 생
 지어 구원받은 구원기
 흐른듯 정으로 물결이
 알기 어허 부어 버지
 들은 들은 들은 들은
 은근 죽자고 호고
 아비 다려 아비라
 뜻은 노노인 연호
 을 손에 드르미
 흥미라 이제 내
 리쳐 못은 호고

우리아근도다우의회로본것저치못함은역사방
 년중사로운년고항기항터럭가스치어사다항고스글
 모른모른스려항노리다사무신불공본항리오저방고
 저번도리오부의원변근성
 제초무이이오미우양웁은아관부고부오의이오의은
 나일근사도취관양항나증시이변근도이과기이경
 거등천이원변이아더옥이근니무의항이다만
 가사오이며주백나북취질근고어와가려항다이하
 시근다사리비하은다사근다귀어리택
 소의취은근이타관천은간가사더숙고역치
 여저이아이바다우나지자우취근은은
 여더나취내이다지스항이나니의로모항근
 성지근의다만고숙이근은전하아포단
 상나나항원근다각어보정은본반

이 列의 各 列은 上 列의 是 等

은 列의 各 列은 中 列의 是 等 列의

編者略歷

林基中

東國大學校 文科大学 國文科 教授

韓國文學研究所 所長

『朝鮮朝의 歌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古典詩歌의 實證的 研究』, 『우리의 옛노래』,

『우리 歲時風俗의 노래』, 『高麗歌謠의 文學社會學』,

『佛敎歌辭1-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景幾休歌 研究』, 『韓國歌辭文學 研究史』,

『歷代歌辭文學全集1-50』, 『새로 읽는 鄉歌文學』,

『韓國文學의 이삭』, 『천재적인 바보』,

『佛敎歌辭原典研究』, 『佛敎歌辭研究』,

『燕行歌辭研究(近刊)』, 『燕行錄研究(近刊)』 등의 책을 펴냄.

燕行錄全集 96

2001年 10月 20日 初版 印刷

2001年 10月 25日 初版 發行

編者: 林基中

發行人: 宋錫球

發行處: 東國大學校 出版部



100-715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 26

Http ://home.dgu.ac.kr/~book/index.html

E-mail:book@dongguk.edu

Tel : 2260-3483~4

FAX : 2268-7851

出版登錄 第2-163号 (1973. 6. 28)

組版·印刷/龍知印刷(株) 718-3111~19

價格: 1帙(100卷) 4,000,000원

ISBN 89-7801-206-X 93810

ISBN 89-7801-110-1 93810(세트)

